

ISSN 1975-6607

금융안정보고서

2020. 12



한국은행
BANK OF KOREA

BANK OF KOREA

금융안정보고서

2020. 12

금융안정이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증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금융안정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이를 이루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의 일환으로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금융안정보고서를 2003년부터 연 2회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한국은행법(제96조)에서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의 질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2020년 11월까지 부각된 금융안정 잠재 위험요인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금융안정보고서가 금융시장 참가자, 정책당국 등이 금융시스템에 내재해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행법〉

제96조(국회보고 등)

- 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은행

총재 이 주 열

이 주 열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이 주 열

위원 고 승 범

위원 임 지원

위원 조 운 제

위원 서 영 경

위원 주 상 영

위원 이 승 현

[요약]

[금융안정 상황]

I. 신용시장	15
1. 신용 레버리지	15
2. 가계신용	17
3. 기업신용	33
II. 자산시장	38
1. 채권시장	38
2. 주식시장	41
3. 부동산시장	43
III. 금융기관	47
1. 은행	47
2. 비은행금융기관	57
3. 상호연계성	69
IV. 자본유출입	73

[복원력]

I. 금융기관	79
1. 은행	79
2. 비은행금융기관	88
II. 대외지급능력	90
III. 금융시장인프라	93

[금융안정 현안 분석]

I. 최근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	103
II. 코로나19 장기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114
III. 경기회복 지연과 금융불균형 조정의 부문별 영향 분석	124

참고 차례

[금융안정 상황]

참고 1. 최근 청년층의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	22
참고 2. 향후 자영업자 재무건전성 전망	28
참고 3. 비대면 금융거래 현황 및 평가	52
참고 4.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현황 및 시사점	60
참고 5. 코로나19 이후 증권회사·여전사 자금조달운용 현황 및 시사점	65

[복원력]

참고 6. 코로나19 이후 국내은행의 신용리스크 변동 및 시사점	83
참고 7.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사이버리스크 대응현황 및 시사점	96

부록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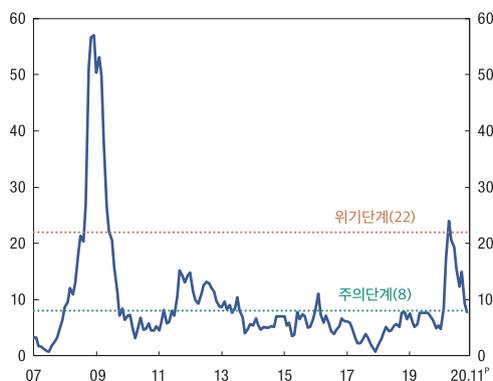
부록 1. 그림 및 통계표	139
부록 2. 용어 해설	145
부록 3.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150

요약

[개 황]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가운데 정책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 10월 이후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금융·외환 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 기능은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FSI)는 4월 위기 단계에 일시 진입하였다가 하락세를 지속하여 11월에는 7.7(잠정)로 주의단계 임계치(8)를 소폭 하회하고 있다.

금융안정지수(FSI)¹⁾²⁾



주: 1) 금융안정 관련 실물 및 금융 부문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주의 및 위기 단계 임계치는 'noise-to-signal ratio' 방식에 따라 각각 8과 22로 설정

2) 2020년 10월 및 11월은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와 기업 모두 차입을 늘리면서 민간신용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더욱이 명목GDP 성장률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가계신용은 주택관련대출, 신용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가

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났다. 아직까지는 가계대출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소득여건 개선이 미약할 경우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 한편 기업신용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실적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유동성 및 신용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채권 및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었으나 주택시장은 가격상승압력이 높은 모습이다. 장기시장금리는 추경편성에 따른 수급부담,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주요국과 함께 상승하였고, 신용스프레드는 정책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신용경계감이 완화되면서 축소되었다. 주가는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주택매매 가격은 정부의 연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일시 둔화되었다가 11월 들어 수도권, 5대광역시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었다.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이 지속되면서 금융·실물 간 괴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의 경영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익성이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자산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건전성이 대체로 개선되고 수익성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현재의 건전성 지표가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등으로 실제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자금은 금년중 주식자금이 순유출된 반면 채권자금은 순유입되었다. 주식자금

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규모 순유출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 경제지표 등으로 10월 이후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향후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이 위험회피 심리 강화로 이어지면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은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큰 폭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은행의 경우 바젤Ⅲ 개편안 조기도입으로 상승하였으며, 비은행 금융기관도 대체로 자본적정성 비율이 상승하였다. 대외지급능력은 외환보유액이 4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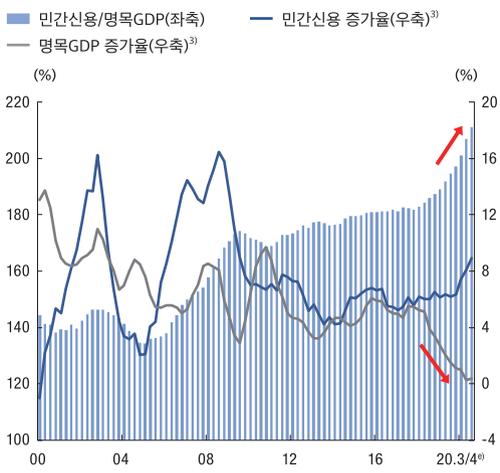
금융·경제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국내외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금융기관이 원활한 자금 중개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외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 글로벌 경기회복세 약화 우려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가계 및 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자산가격 상승압력이 강화되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장기적인 금융 안정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점에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I. 신용시장

①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2020년 3/4분기말 211.2%(추정치)로 전년동기대비 큰 폭 상승(+16.6%포인트)하였다. 이는 가계의 생계 및 주택관련 대출수요 증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기업의 자금확보 노력 등으로 민간의 자금수요가 확대된 반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GDP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데 기인한다.

민간신용¹⁾/명목GDP²⁾ 비율



주: 1) 2020년 3/4분기는 추정치
2)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의 합
3)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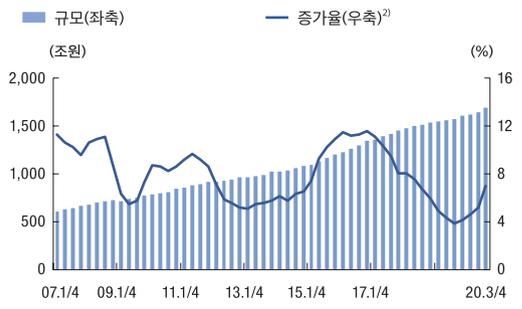
② 가계신용은 2020년 3/4분기말 1,682.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하여 지난해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통계 기

준)은 2020년 3/4분기말 171.3%(추정치)로 전년동기(160.5%)보다 10.7%포인트 상승하여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평가액이 증가하면서 2020년 3/4분기말 45.4%(추정치)로 전년동기(47.4%)보다 2.0%포인트 하락하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소폭 낮아졌다.

고신용·고소득 차주 비중이 확대되고 연체율이 하락하는 등 가계대출의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소득여건 개선이 미약할 경우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계신용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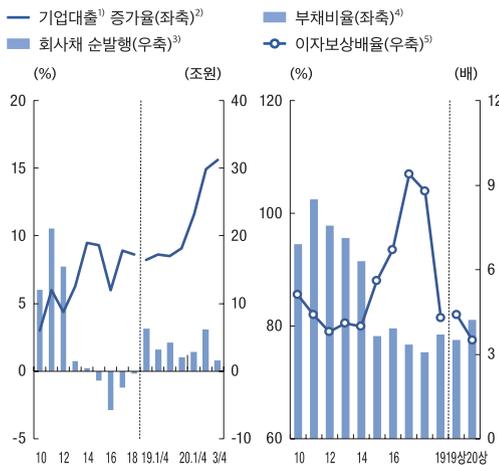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2020년 3/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직전 3개년의 연간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 처분가능소득 비율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
4) 자금순환통계 기준이며 2020년 3/4분기는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㉓ 기업신용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증가세가 큰 폭 확대되었다. 기업대출은 2020년 3/4분기말 1,332.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이 모두 증가하였다. 한편, 직접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과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회사채가 순발행되었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저하되었다. 2020년 상반기말 부채비율은 81.1%로 전년말(78.5%)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수익성 저하로 비교적 큰 폭 하락(19년 상반기 4.4배 → 20년 상반기 3.5배)하였다.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세 약화 우려 등 기업 경영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실적 회복 지연으로 유동성 사정이 악화되거나 신용위험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기업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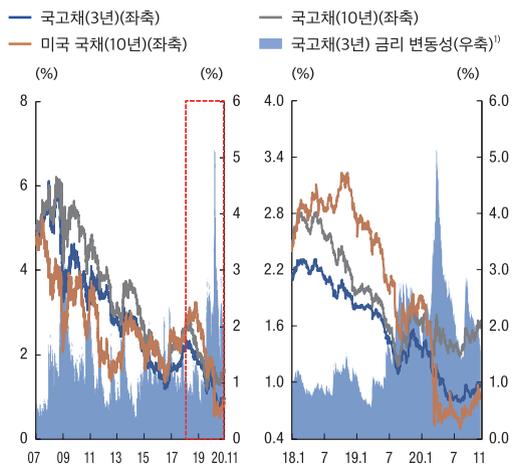


주: 1) 기업대출은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준(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료 제약으로 일부 업권 및 기간의 금융보험업 대출을 포함)
 2) 전년동기대비 3) 분기중 기준(19년 이후)
 4) 부채/자기자본, 기말 기준 5) 영업이익/이자비용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KIS-Value,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II. 자산시장

㉑ 국고채 금리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따른 수급 부담,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인해 주요 국과 함께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금리 변동성은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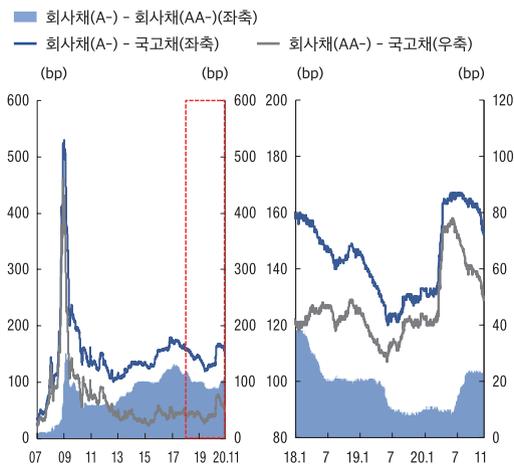
국고채 및 미국 국채 금리



주: 1) 지수가중이동평균(EWMA)에 의거 일별 변동성 산출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정부 및 한국은행의 지원대책 등에 힘입어 우량물을 중심으로 상당폭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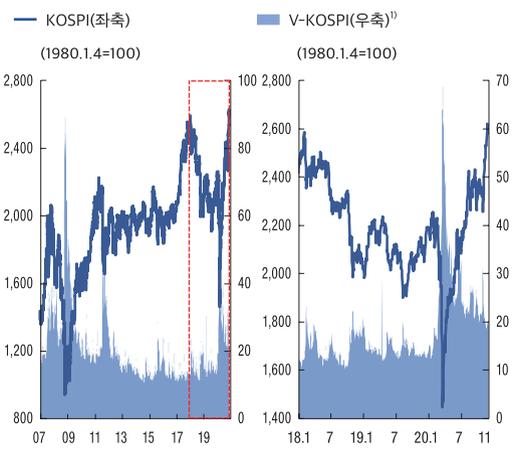
회사채 신용스프레드¹⁾ 및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



주: 1) 3년물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② 주가는 주요국의 완화적인 정책기조 유지,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 및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주가 및 주가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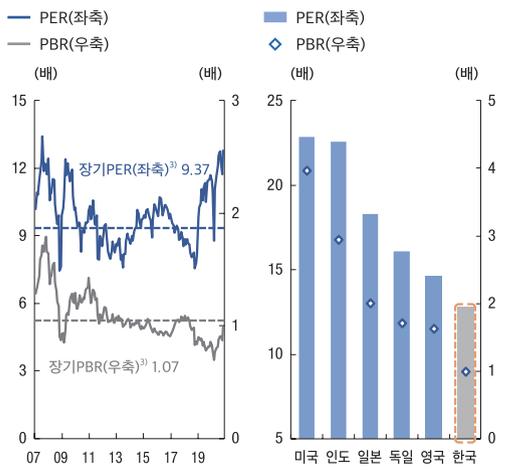


주: 1) KOSPI200 지수 옵션 가격으로부터 산출된 변동성지수
자료: KOSCOM

수익성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주가수익비율 (PER)은 11월말 12.79배로 장기평균(01년 이후,

9.37배)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 반면 청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은 대체로 오름세를 지속하여 11월말 0.99배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PER¹⁾ 및 PBR²⁾



주: 1)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2) 코스피 종목 기준
3) 2001년 1월~2020년 11월 평균
자료: Bloomberg, Thomson Reuters

③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연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8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11월 들어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는 주택공급 부족 우려, 저금리 기조 및 규제격차 등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가 지속된 데 주로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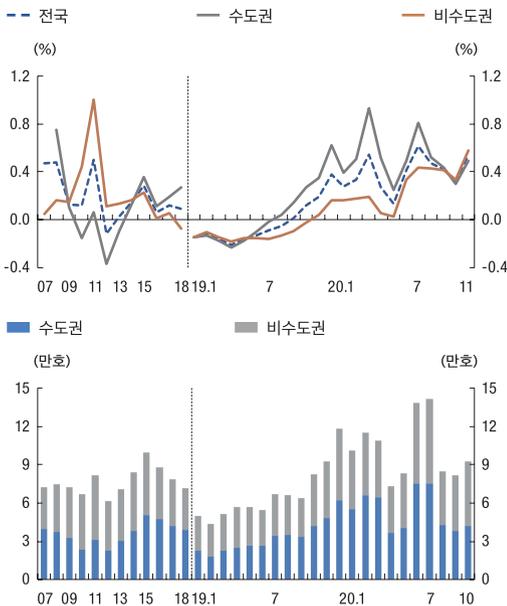
전월세가격은 입주물량이 감소세를 지속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에 따른 수급불균형 심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금년 1~10월중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72.0% 증가하였다. 특히 6~7월중에는 가격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큰 폭 증가하다가 8월 이후 규제강화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상회하였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과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은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택매매 가격상승률¹⁾ 및 거래량²⁾



주: 1) 전월대비. 단, 2018년 이전은 전월대비 상승률의 연평균

2) 2018년 이전은 월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Ⅲ. 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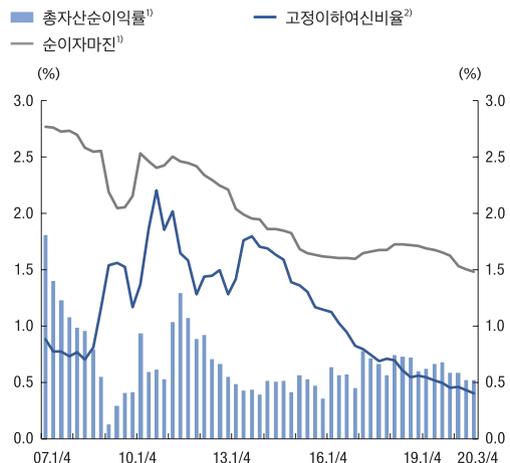
① 일반은행의 경영건전성은 수익성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2020년 3/4분기말 일반은행의 총자산은 1,880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2% 늘어나면서 총자산 증가율은 지난해 3/4분기말(8.4%)보다 낮아졌다. 자산건전성은 코로나19 이후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출 증가,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의 영향으로 고정이자여신비율이 0.40%로 하락하면서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수익성은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저하되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20년 1/4~3/4분기중 0.52%(연율환산 기준)로 전년동기(0.68%) 대비 0.16%포인트 하락하였다.

향후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2) 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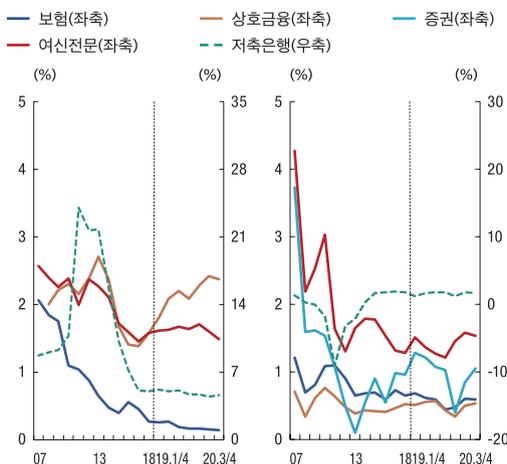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②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자산건전성은 대부분 업권에서 개선되었고 수익성은 전년동기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규모는 2020년 3/4분기말 3,06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0% 늘어났다. 자산건전성의 경우 저축은행,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모두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다. 다만 상호금융조합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모두 상승하면서 자산건전성이 다소 저하되었다.

수익성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 대부분 업권에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사업 비용 절감, 연체율 하락 등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비은행금융기관 고정이하여신비율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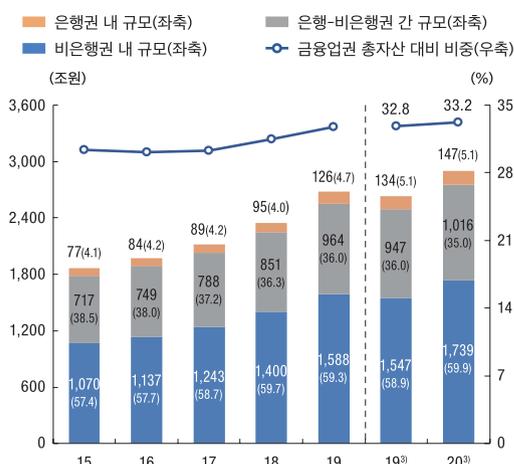
주: 1) 기말 기준, 증권회사 제외
 2) 2018년 이전은 연간 기준, 2019년 이후는 분기 기준
 3)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③ 금융기관 간 자금조달·운용을 통한 상호연계성은 강화되었다.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2020년 2/4분기말 2,90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4% 늘어났으며, 금융부문 총자산에서 전체 상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33.2%로 전년동기대비 0.4%포인트 상승하였다.

업권간 상호거래에서는 비은행권 내 거래가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관련 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2.4%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상호거래액에서 비은행권 내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9.9%로 전년동기대비 1.0%포인트 상승하였다. 반면, 은행·비은행 간 상호거래 비중은 35.0%로 전년동기 대비 1.0%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은행권 내 거래 비중은 5.1%로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 구조를 토대로 부실전염 및 집중도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부실전염 리스크가 증가한 반면 집중도 리스크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금융기관-업권 간 상호거래 현황¹⁾²⁾



주: 1) 상호거래 규모는 자금순환통계 기말 기준
 2) () 내는 전체 상호거래 규모 대비 비중
 3) 각 연도 2/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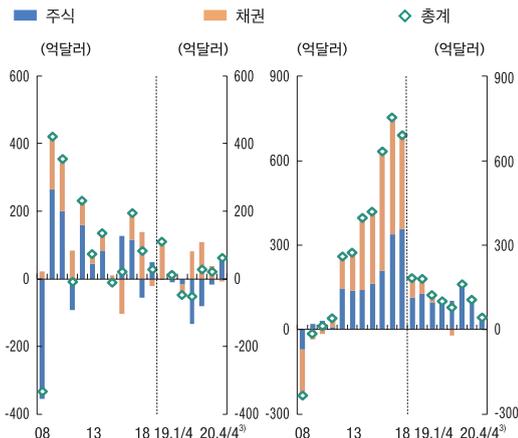
IV. 자본유출입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자자금은 2020년 1~11월중 주식자금이 순유출된 반면 채권자금은 순유입되었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2~4월중 큰 폭으로 유출되었으나 10월 이후에는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순유입되었다. 외국인 채권자금은 1~7월중 안전자산 선호 등에 따라 순유입되었으나 9월 이후 차익거래유인 축소, 만기도래 등의 영향으로 소폭 유출되었다.

향후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이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지면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의 경우 주식은 해외주식시장 호조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채권 투자가 감소하면서 증가 규모가 2020년 1~10월중 386억 달러(주식 384억달러, 채권 2억달러)로 전년동기(519억달러) 대비 상당폭 축소되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증감¹⁾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감²⁾



주: 1)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2) '+'는 순투자, '-'는 순회수를 의미
 3) 2020년 4/4분기는 10~11월중(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감은 10월중)
 자료: 한국은행

[복원력]

I. 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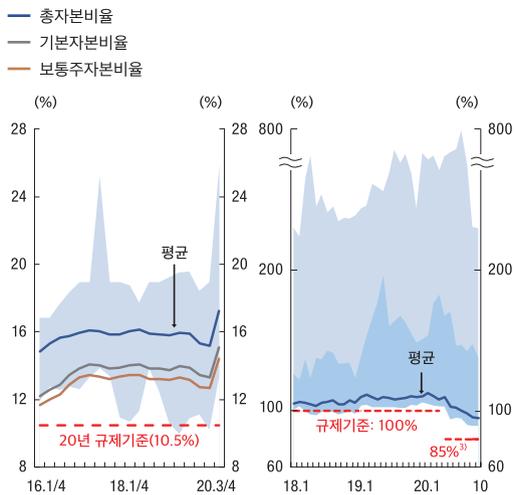
① 일반은행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상승하였으나 유동성 비율은 하락하였다.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바젤Ⅲ 개편안의 조기도입으로 2020년 3/4분기말 17.24%로 전년말 대비 1.35%포인트 상승하였다. 급격한 자금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기업 수시입출식 예금의 큰 폭 증가로 순현금유출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2020년 10월말 95.0%로 전년말 대비 15.4%포인트 하락하였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업실적 부진 장기화 시 신용위험 등으로 손실흡수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일반은행 총자본비율¹⁾

일반은행 LCR¹⁾²⁾



주: 1)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분포를 나타내며 진한 음영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경우를 나타냄
 2) 고유동성자산/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월평균 기준
 3) 2020년 4월~2021년 3월중 한시적으로 85%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②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도 대부분의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비율이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0년 3/4분기말 증권회사의 순자본비율 및 생명보험회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비율)은 677.3%, 303.5%로 전년말 대비 각각 121.4%포인트, 18.9%포인트 상승하였다. 상호금융조합도 순자본비율이 8.4%로 전년말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하였다. 반면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4.6%로 전년말 대비 소폭(0.2%포인트) 하락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8.8%로 전년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에 비해 취약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금융기관별로 자본적정성 비율 편차가 크므로,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본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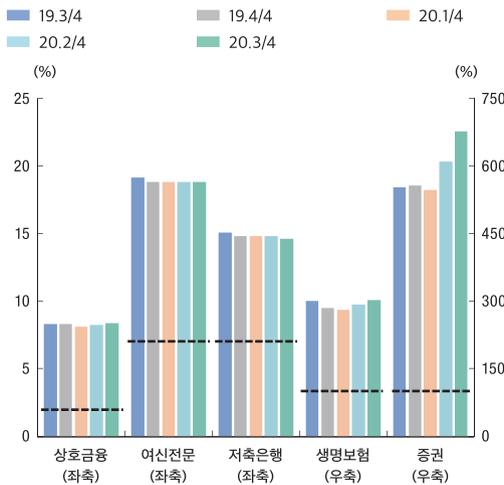
II. 대외지급능력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시 저하되었으나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안정세를 보였다.

순대외채권이 3/4분기 들어 전기대비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외환보유액은 운용수익 및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으로 하반기중 증가세를 지속하여 2020년 11월말 4,363.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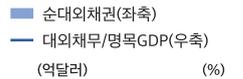
한편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주로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증가에 기인하여 상승하였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20년 3/4분기말 34.3%로 전년동기(33.1%)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예년 평균(10~19년중 36.4%)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 자본적정성 비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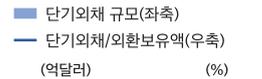


주: 1) 점선은 감독기준 자본적정성 규제비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¹⁾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¹⁾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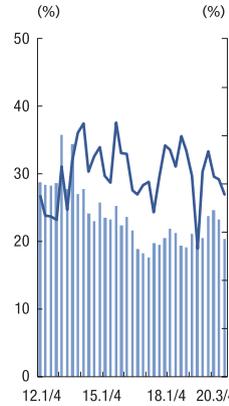
III. 금융시장인프라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확대 추세를 지속하였으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편 결제방식 개선, 결제계좌 정비 등을 반영한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10월 12일에 가동되면서 결제시스템 안전성과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일종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 및 자금이체지시 대기비율은 2020년 3/4분기중 각각 20.4% 및 3.8%로 대체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관련 결제리스크를 나타내는 순이체한도 소진율도 18.2%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환결제 중 외환거래를 시차 없이 결제함으로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감축시키는 CLS 외환동시결제의 비중은 2020년 3/4분기중 74.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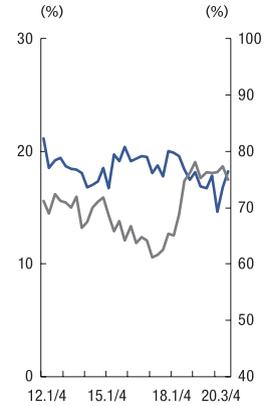
거액결제시스템

■ 일종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 (좌축)¹⁾
— 대기비율(우축)²⁾



소액결제 및 외환결제 시스템

—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 평균(좌축)³⁾
— CLS시스템 이용 외환결제 비중(우축)⁴⁾



- 주: 1)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종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2) 참가기관들의 대기금액/총결제금액(유동성절감을 위한 대기 제외)의 평균
3) 해당 기간중 참가기관별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4) 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I. 신용시장	15
II. 자산시장	38
III. 금융기관	47
IV. 자본유출입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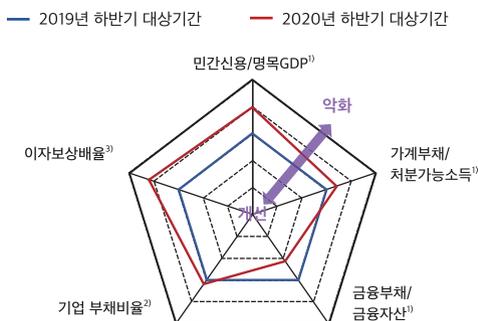
I. 신용시장

민간부분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민간신용/명목GDP 비율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GDP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데다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가계신용은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세가 모두 확대되었으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낮아지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났다.

기업신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금확보 등으로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회사채도 순발행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업 재무건전성은 매출이 감소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하락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악화되었다(그림 I-1).

그림 I-1. 신용시장 상황 변화 지도



주: 1) 2019년 3/4분기말 대비 2020년 3/4분기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2019년말 대비 2020년 6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3) 2019년 대비 2019년 7월~2020년 6월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자료: 한국은행

1. 신용 레버리지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빠르게 상승

민간신용²⁾/명목GDP 비율은 2020년 3/4분기말 211.2%(추정치)³⁾로 전년동기대비 16.6%포인트 상승하여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이는 가계 및 기업의 대출증가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확대된 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명목GDP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데 기인한다. 민간신용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전년말 6.4%에서 2020년 3/4분기말 8.9%로 높아졌으나 명목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019년 4/4분기 1.1%에서 2020년 3/4분기 0.4%로 0.7%포인트 낮아졌다(그림 I-2).

그림 I-2. 민간신용¹⁾/명목GDP²⁾ 비율



주: 1) 2020년 3/4분기는 추정치
2)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의 합
3)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 1) 민간부분의 레버리지 수준 평가 시 민간신용 부문별 증가율,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주택가격 수준, 은행 레버리지 등 다양한 금융·실물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 2010)가 권고한 글로벌 공통 참고지표(common reference guide)인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2) BCBS(2010)는 민간신용을 '가계 및 비금융기업에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채무(debt funds)'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민간신용 지표는 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대출금, 정부융자) 및 기업(대출금, 채권, 정부융자) 부채의 합을 이용하였다.
- 3) 2020년 3/4분기 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 및 기업 신용은 가계신용 증가율(가계신용통계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부분 신용 증가율 등을 설명변수로 한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각각 추정하였다.
- 4)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의 합으로 국민소득통계의 분기별 명목GDP와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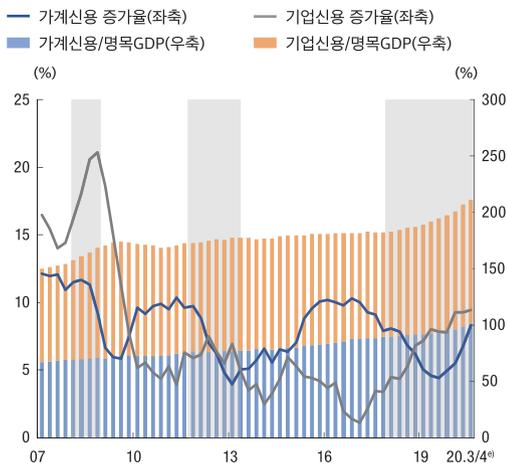
가계신용, 기업신용 증가율 모두 확대

금년 들어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증가세가 모두 확대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명목 GDP 비율이 2020년 3/4분기말 101.1%로 전년동기대비 7.4%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기업신용/명목GDP 비율은 110.1%로 같은 기간 9.2%포인트 높아졌다.

2020년 3/4분기말 가계신용은 주택 매매·전세 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다 생계자금 및 주식투자자금⁵⁾ 수요도 가세하면서 전년동기대비 8.3% 늘어나 금년 들어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기업신용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9.5%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그림 I-3).

그림 I-3. 부문별 신용 증가율 및 명목GDP 대비 비율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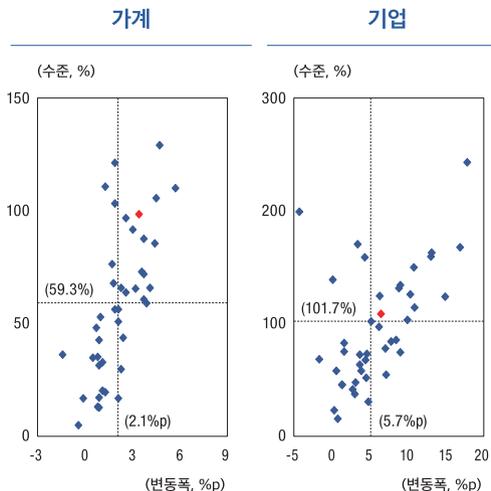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2020년 3/4분기는 추정치
2) 음영부분은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기준 경기수축 기간
자료: 한국은행

민간 신용레버리지 국제비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민간신용의 증가는 전세계적 현상으로서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증가폭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20년 2/4분기말(BIS통계 기준)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206.9%로 BIS 조사대상국 43개국 중 13위를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19년말) 대비 변동폭은 9.9%포인트로 14위 수준을 보여 민간 신용레버리지 수준이나 변동폭이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명목GDP 비율이 2019년말 95.2%에서 2020년 2/4분기말 98.6%(7위)로 3.4%포인트 상승(11위)하였고, 기업신용/명목GDP 비율은 101.8%에서 108.3%(17위)로 6.5%포인트(17위) 높아졌다(그림 I-4).

그림 I-4. 민간신용/명목GDP 수준¹⁾ 및 변동폭²⁾ 국제비교³⁾



주: 1) 2020년 2/4분기말 기준
2) 2019년말 대비 2020년 2/4분기말 기준
3) 점선은 43개국 평균, 붉은 표시는 우리나라를 의미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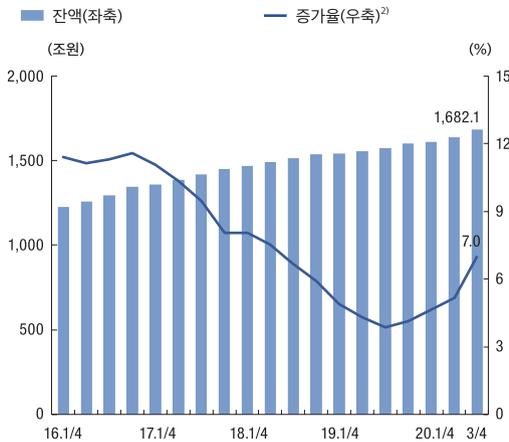
5) 개인투자자들의 고객예탁금 규모가 약 61.6조원(11월 30일 기준)으로 전년말 대비 125.3% 증가하였고 증권회사 신용융자 잔고도 같은 기간 94.3% 증가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년중 가계의 주식 투자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가계신용

가계신용 증가세 확대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2020년 3/4분기말 1,682.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하여 지난해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그림 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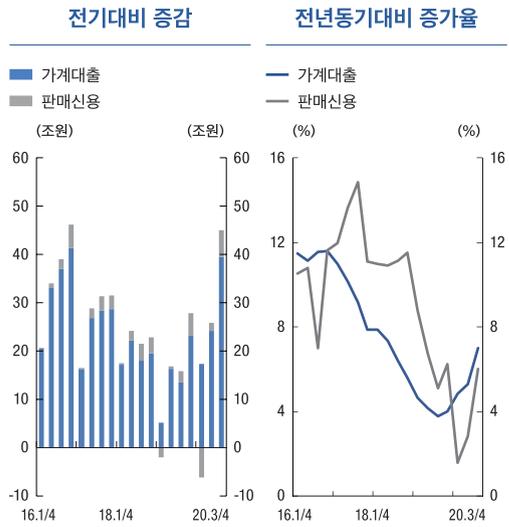
그림 I-5. 가계신용¹⁾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항목별로 보면 2020년 3/4분기말 가계대출이 1,585.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중에 크게 둔화되었던 판매신용도 온라인 거래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6.0% 늘어나 지난해 4/4분기 수준(6.3%)에 근접하였다(그림 I-6). 한편 10월 이후에도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 모두 높은 증가세⁶⁾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I-6. 항목별 가계신용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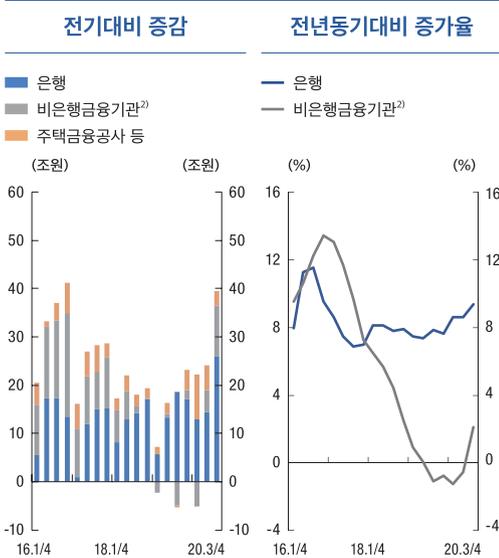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20년 3/4분기말 821.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587.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하여 지난해 3/4분기 이후의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그림 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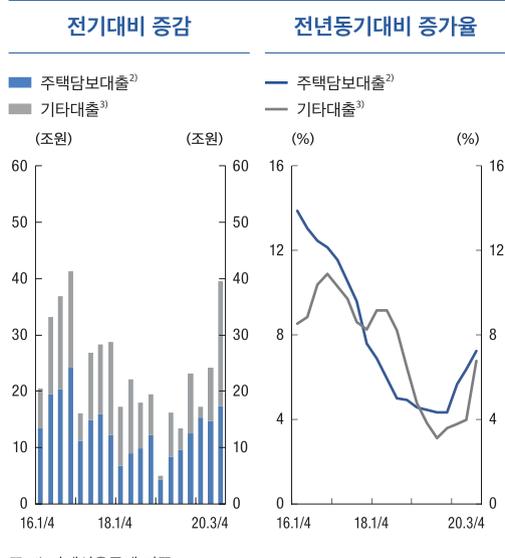
6) 2020년 10~11월중 전 금융권(은행, 상호금융, 보험,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31.9조원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각각 14.1조원, 17.7조원 늘어났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중 증가규모(15.0조원)를 크게 상회하였다.

그림 I-7. 금융업권별 가계대출¹⁾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등 제외)
 자료: 한국은행

그림 I-8. 대출유형별 가계대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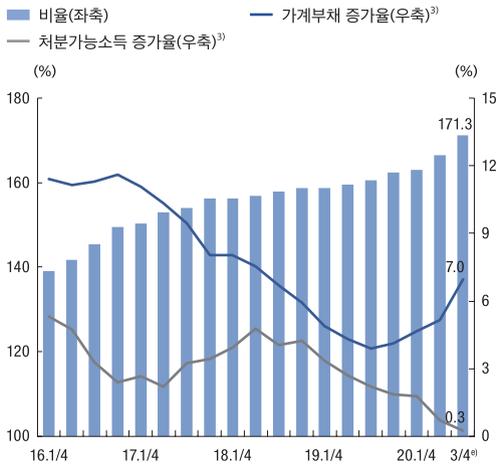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주택담보대출(예금취급기관 및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금융취급부), 전세자금대출 등
 3)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대출 등
 자료: 한국은행

대출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2020년 3/4분기말 890.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하였다. 이는 주택거래량이 크게 늘어난⁷⁾ 가운데 최근 들어 20~30대 등 청년층의 주택관련 자금수요가 확대⁸⁾된 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기타대출은 695.2조원으로 금리 하락⁹⁾, 생활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6.8% 늘어났다(그림 I-8).

가계 채무상환부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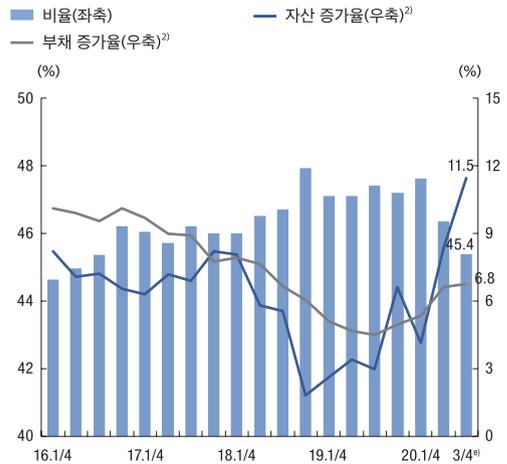
2020년 3/4분기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통계 기준)은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소득 증가율이 정체된 반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년동기(160.5%)보다 10.7%포인트 상승한 171.3%(추정치)를 기록하였다(그림 I-9).

7) 2020년 7~9월중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거래량(확정일자 기준)은 각각 30.9만건, 53.4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5.9%, 13.3% 증가하였다.
 8) 금년 3/4분기말 청년층의 주택관련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0.6%로 동 기간중 여타 연령층 주택관련대출 증가율(5.9%)을 크게 상회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최근 청년층의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22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9) 2020년 9월 기준 예금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89%로 전년말 대비 0.98%포인트 하락한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중 0.01%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그림 I -9. 처분가능소득¹⁾ 대비 가계부채²⁾ 비율

주: 1) 2020년 3/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직전 3개년의 연간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 처분가능소득 비율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
2) 가계신용통계 기준
3)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한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2020년 3/4분기말 45.4%(추정치)로 전년동기(47.4%)보다 2.0%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 호조로 주식평가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예비적 동기 등에 따른 현금 및 예금 규모도 크게 늘어나면서 개인의 금융자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1.5%)이 금융부채 증가율(6.8%)을 큰 폭 상회한 데 기인한다(그림 I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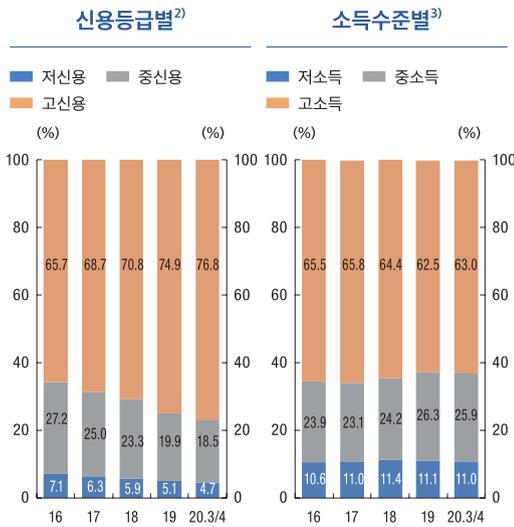
그림 I -10.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¹⁾

주: 1) 자금순환통계 기준(20년 3/4분기는 추정치)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취약차주 비중 하락

차주특성별 분포를 보면 고신용·고소득 차주의 대출비중이 꾸준히 상승하였다. 2020년 3/4분기말 고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비중은 76.8%로 전년말 대비 1.9%포인트 상승했으며 고소득 차주 비중도 63.0%로 전년말 대비 0.5%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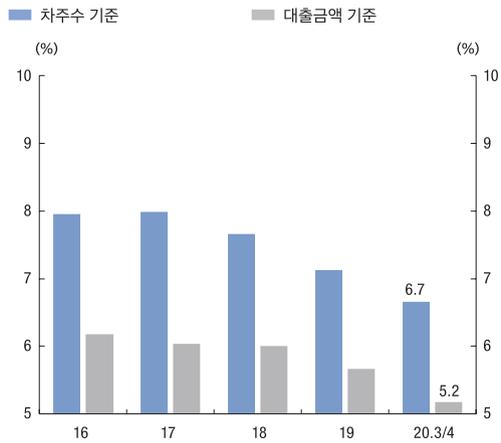
그림 I-11. 신용등급 및 소득수준별 가계대출 구성비¹⁾



주: 1) 대출금액 기준
 2) 고신용 1~3등급, 중신용 4~6등급, 저신용 7~10등급
 3) 고소득 상위 30%, 중소득 30~70%, 저소득 하위 30%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또한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주의 비중도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 계층에 속하는 취약차주는 2020년 3/4분기말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6.7%로 전년말 대비 0.4%포인트 낮아졌다. 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금액이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2%(82.1조원)로 전년말(5.7%, 85.2조원)보다 하락하였다(그림 I-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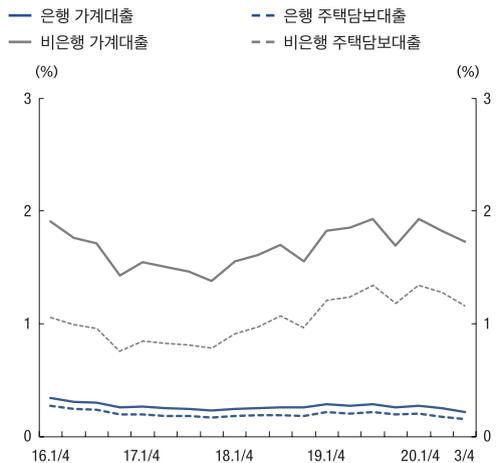
그림 I-12. 취약차주 비중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대출의 경우 2020년 3/4분기말 0.22%로 전년동기대비 0.07%포인트 하락하였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1.73%로 전년동기대비 0.20%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I-13).

그림 I-13.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¹⁾²⁾ 가계대출 연체율³⁾



주: 1)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대출 제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카드(판매신용 제외)·할부금융·리스자산 포함
 3)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가계부채가 큰 폭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¹⁰⁾과 전반적인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¹¹⁾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 수준, 원리금 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 등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신용위험이 현재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경기회복지연 등으로 소득여건 개선이 미약할 경우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0)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향후 자영업자 재무건전성 전망」(28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자세한 내용은 <금융안정 현안 분석> 「1. 최근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103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1.

최근 청년층의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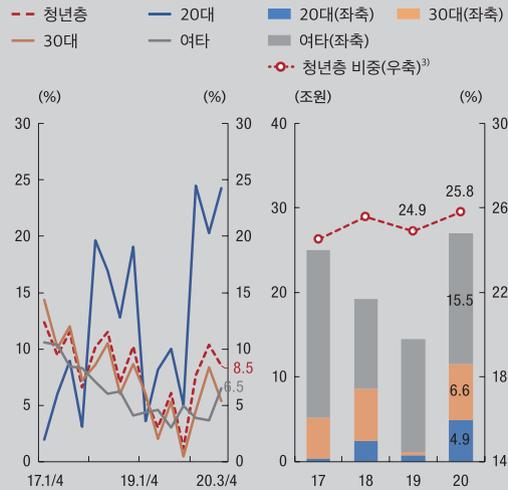
금년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대 및 30대(이하 '청년층')의 가계대출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청년층의 가계대출 현황 및 증가 배경, 채무상환능력 등을 점검해 보았다.

현황

(대출규모) 청년층의 가계대출은 금년 3/4분기말 409.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5% 늘어나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7.0%)을 상회하였다. 특히 금년중 청년층의 분기평균 가계대출 증가액(+11.5조원)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27.0조원)의 42.7%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전체 가계대출 잔액(1,586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말 24.9%(20대 4.2%, 30대 20.7%)에서 금년 3/4분기말 25.8%(20대 4.9%, 30대 20.9%)로 상승하였다.

청년층의 가계대출¹⁾ 증가율²⁾

분기평균 증감액 및 비중



주: 1) 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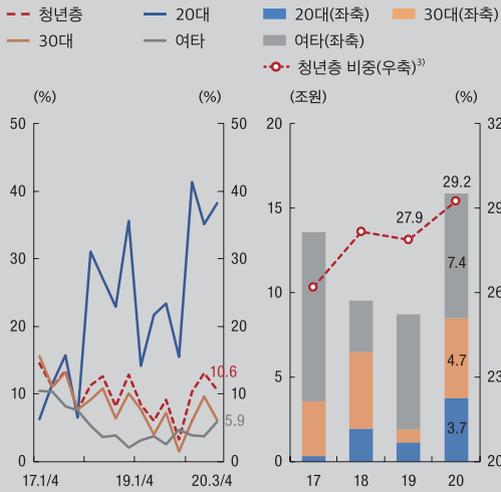
2) 전년동기대비

3) 가계대출 잔액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2020년은 3/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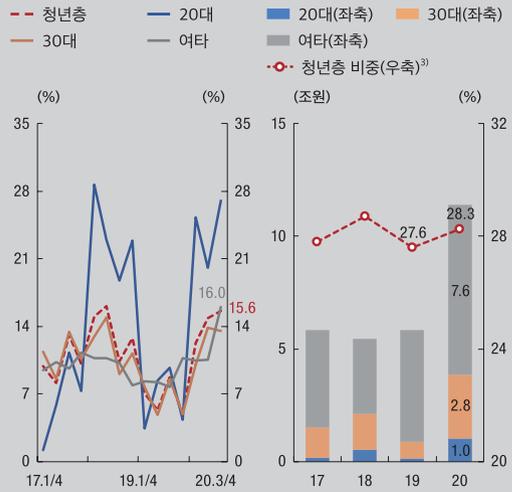
(대출종류별) 금년 3/4분기말 현재 청년층의 주택관련대출은 260.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하였다. 특히 금년중 주택관련대출 분기평균 증가액(+15.8조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53.4%(+8.5조원)로 지난해(21.4%)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전체 주택관련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2%로 지난해말(27.9%)보다 상승하였다. 한편 청년층의 주택관련대출 증가액(+8.5조원) 중 전세자금대출이 85.1%에 달하는 등 전세자금대출이 청년층의 주택관련대출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청년층의 주택관련대출¹⁾ 증가율²⁾ 분기평균 증감액 및 비중



주: 1) 기말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전체 주택관련대출 잔액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2020년은 3/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청년층의 신용대출¹⁾ 증가율²⁾ 분기평균 증감액 및 비중



주: 1) 기말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전체 신용대출 잔액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2020년은 3/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청년층 주택관련대출 증감 및 잔액¹⁾

(조원, %)

	청년층		전체	
	20.1~9월중 분기평균 증감액	20.3/4말 잔액	20.1~9월중 분기평균 증감액	20.3/4말 잔액
전세자금대출 (A)	+7.2 (85.1)	87.6 (33.7)	+10.6 (67.0)	151.1 (17.0)
주택담보대출 (B)	+1.3 (14.9)	172.6 (66.3)	+5.2 (33.0)	739.3 (83.0)
주택관련대출 (A+B)	+8.5 (100.0)	260.2 (100.0)	+15.8 (100.0)	890.4 (100.0)

주: 1) () 내는 주택관련대출 중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청년층의 신용대출은 89.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하였다. 특히 금년중 신용대출 분기평균 증가액(+11.4조원) 중 청년층의 비중은 33.6%(+3.8조원)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전체 신용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3%로 지난해말(27.6%)보다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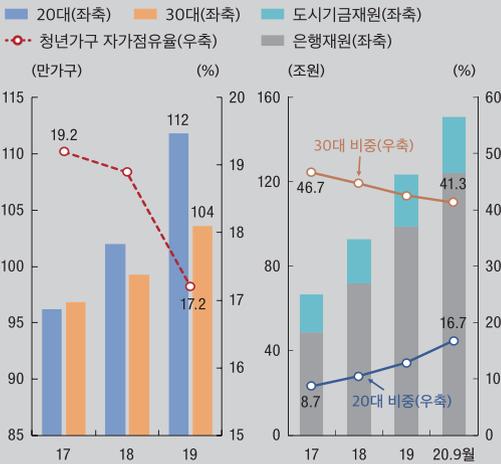
증가 배경

(전월세자금 대출 증가)

청년층 1인가구 증가 및 정부의 청년가구(만 24~34세) 주거안정 지원 확대 등으로 청년층의 전월세 자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였다. 청년층 1인가구 수는 20대를 중심으로 증가한 데 반해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꾸준히 하락(17년 19.2% → 19년 17.2%)하면서 이들의 전월세 대출 수요가 확대되었다. 한편 2018년 이후 정부는 20~30대 초반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월세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정부의 주요 청년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18년 1월 도입),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18년 6월), 청년 맞춤형 전월세자금(19년 5월) 등이 있다. 이들 대출상품의 2020년 1~10월중 대출실적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과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

증금대출 등이 7.4조원, 청년 맞춤형 전월세자금 보 증실적은 2020년 1~9월중 2.1조원이다. 금년 9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 은 16.7%로 2017년말 8.7%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 였다.

청년층 1인가구 수 및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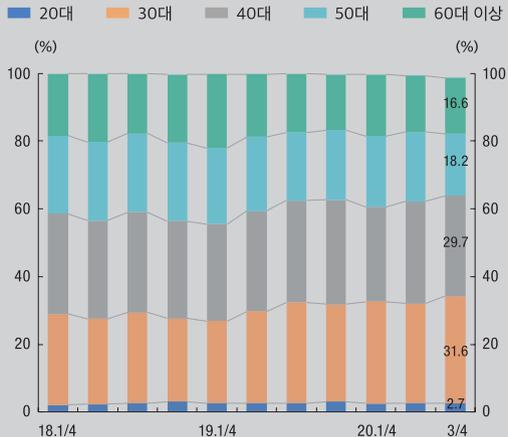


주: 1)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과 협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주로 취급되기 때문에 비은행금융기관 취급규모는 작음
2)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청

(30대의 주택매입 수요 확대)

금년 들어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서울 및 수도 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 데 30대의 거래가 빠르게 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경우 주택 매입 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여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¹⁾

연령별¹⁾ 서울·수도권 주택거래²⁾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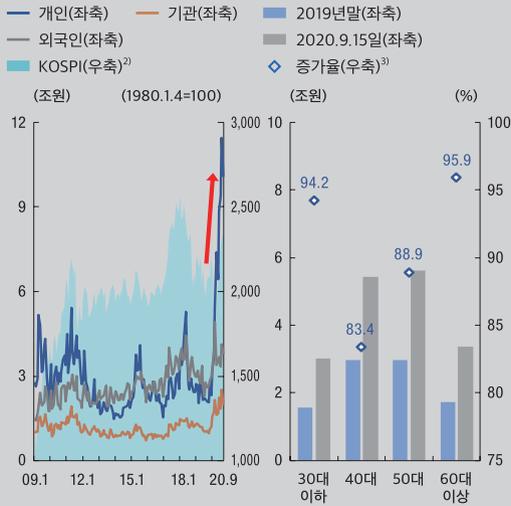
주: 1) 공동매수의 경우 대표매수자의 연령 기준
2)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대상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자금조달계획서)

(주식 투자자금 수요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가 급락 이후 개인의 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청년층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금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모든 연령층의 신용용자²⁾가 확대된 가운데 30대 이하 신용용자 증가율(94.2%)은 60대 이상(95.9%) 과 함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신용 용자의 높은 금리³⁾ 및 짧은 만기, 엄격한 신용공여 한도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대출 조건이 좋은 청년층의 신용대출 상당 부분도 주식시장으로 유입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청년층의 주택매입자금 중 금융기관 차입 비중은 금년 1~9월중 30대 29.1%, 20대 26.1%로 여타 연령층(40대 22.0%, 50대 16.7%, 60대 이상 9.2%)보다 높은 수준이다.
2) 개인이 일부는 투자자 자신의 자금으로 나머지는 증권회사로부터 용자를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로 통상 90일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증권회사는 담보가치비율(주식평가액/용자금액) 기준치 하회 시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며, 추가담보 미납 시 임의로 처분한다.
3) 2020년 9월말 기준 신용용자 이자율은 5.75(1~7일)~8.75%(180일 초과)이고 2020년 9월중 예금은행 신용대출 금리(신규취급액)는 2.89%이다(자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체별 주식거래규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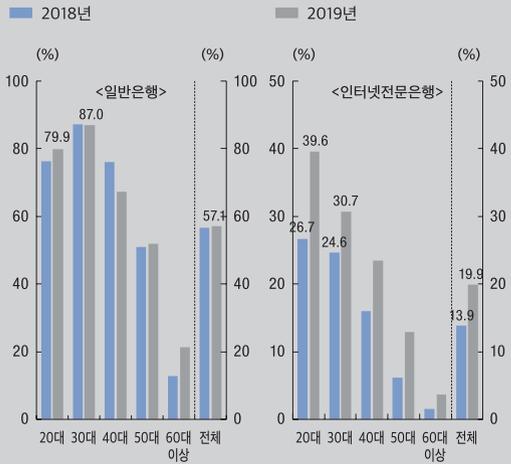


주: 1) 코스피시장 기준(월평균)
 2) 기말 기준
 3) 2020년 9월 15일 기준 전년말 대비
 자료: KOSCOM, 금융감독원

(비대면 신용대출 확대)

한편 인터넷전문은행⁴⁾ 출범, 핀테크 혁신 등에 따라 모바일기반 비대면 신용대출 영업경쟁이 심화된 것도 이러한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의 대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청년층을 주고객층으로 설정하고 신용대출 영업을 확대한 데다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시중은행도 대출 한도 및 금리 우대혜택을 비대면 상품에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은행대출 증가액에서 전자금융경로를 통한 대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중 28.7%에서 2020년 1~9월중 34.2%로 상승하였다.

일반¹⁾ 인터넷전문은행의 연령별 모바일뱅킹 이용행태²⁾



주: 1)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시중은행, 특수은행 등을 포함
 2) 2,65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
 자료: 한국은행

채무상환능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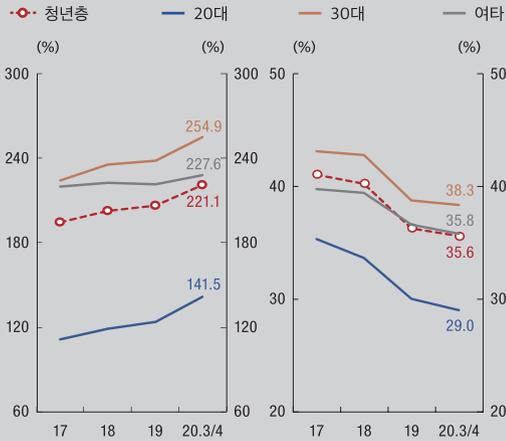
(레버리지) 청년층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 Loan to Income) 수준은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꾸준히 상승하여 금년 3/4분기말 221.1%로 여타 연령층 수준(227.6%)에 근접하였다. 30대의 경우(254.9%)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금년 들어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DSR) 청년층의 DSR은 35.6%로 2017년 이후 여타 연령층보다 큰 폭 하락하였다. 이는 동 기간중 대출금리 하락, 가계대출 평균만기 장기화 등 공통 요인 외에도 청년층 차주의 경우 비교적 금리 수준이 낮은 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은 데다⁵⁾ 이자만 납입하는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인터넷전문은행 가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30대 가입자가 전체의 약 60%(케이뱅크 94만명, 카카오뱅크 785만명)를 차지하였다.
 5) 청년층의 가계대출 중 은행권 대출 비중은 2020년 3/4분기말 70.3%로 2017년말(63.4%)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주택관련 대출의 경우 청년층의 은행권 대출 비중은 75.3%, 신용대출은 81.4%로 여타 연령층(68.5%, 70.3%)에 비해 모두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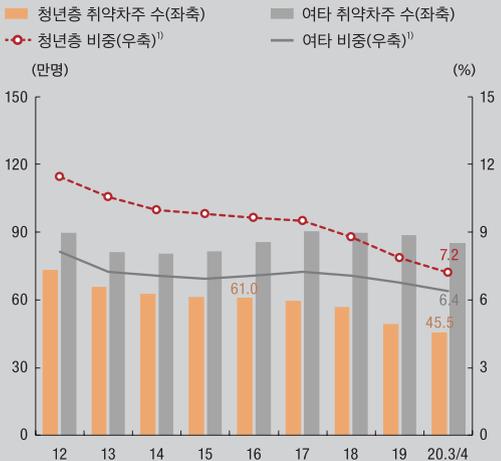
(취약차주) 청년층 중 취약차주⁶⁾ 수는 금년 3/4분기말 45.5만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층 전체 차주 대비 비중(7.2%)도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여타 연령층(6.4%)에 비해서는 취약차주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레버리지(LTI)¹⁾ 연령대별 DSR¹⁾



주: 1) 가계대출 차주 기준.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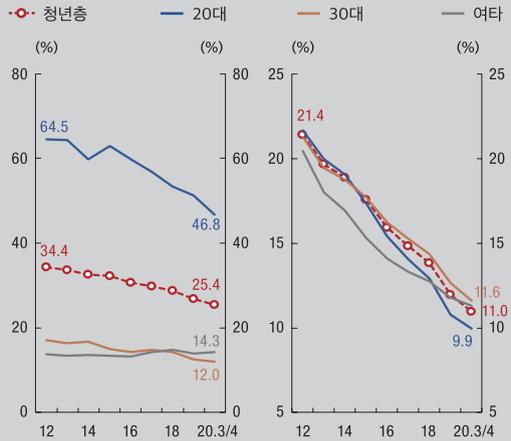
청년층 취약차주 수



주: 1) 청년층(여타) 전체 차주 수 대비 취약차주 수 비중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저소득·저신용 차주 비중) 청년층 가계대출 차주 중 저소득 차주(하위 30%) 비중은 금년 3/4분기말 25.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20대의 경우 아직 절반 정도(46.8%)가 저소득 차주로 나타났으나 2012년 이후 동 비중의 하락폭은 17.7%포인트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컸다. 한편 청년층의 저신용 차주(7~10등급) 비중은 전반적인 신용등급 개선 추세⁷⁾ 등에 힘입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금년 3/4분기말 11.0%로 여타 연령층과 비슷한 수준(20대 9.9%, 30대 11.6%)을 보였다.

청년층 저소득¹⁾ 차주 비중²⁾ 청년층 저신용¹⁾ 차주 비중²⁾



주: 1) NICE 신용이력 보유자의 소득 중 하위 30%를 저소득으로, 신용평가등급(총 10등급) 중 7~10등급을 저신용 등급으로 분류
2) 기말 차주 수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연체율) 청년층 차주의 연체율은 여타 연령층보다 소폭 낮은 수준에서 대체로 하락하여 금년 3/4분기말 0.47%를 기록하였다. 특히 30대의 연체율(0.42%)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전 연령대에서 최저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청년층 차주 중 연체차주 비중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금년 3/4분기말에는 여타 연령층(1.99%)보다 낮은 1.71%를 기록하였다.

6) 다중채무자(금융기관 대출 3건 이상)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의미한다.

7) 가계대출의 연체율 하락, 정부의 개인신용 회복 지원노력,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등급이 2012년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청년층 가계대출 연체율¹⁾ 청년층 연체차주¹⁾ 비중



주: 1)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상 연체액, 연체기간, 가계대출 포괄범위 등과 차이가 있음.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할 정도는 아니나 최근과 같은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⁸⁾ 따라서 청년층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신용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점진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청년층 가계대출 증가는 청년층의 전월세 및 주택 매입 수요 증가, 주식투자 수요 확대 등 수요측 요인에다, 청년층의 접근성이 높은 비대면 신용대출 확대, 정부의 청년층 전월세자금대출 지원 강화 등 공급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하였다.

청년층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채무상환부담은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 가계대출은 비교적 금리 수준이 낮은 은행권의 보증부 또는 담보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DSR도 하락한 가운데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0대를 중심으로 레버리지(LTI)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취약차주 비중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가계대출 증가는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

8) 아울러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의 부채 증가는 경제 전체의 소비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 2.

향후 자영업자 재무건전성 전망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대면 거래를 통해 주로 영업하는 자영업자¹⁾를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단계 조정으로 경제주체의 소비활동이 크게 위축된 데다 국경 봉쇄(lockdown)에 따른 해외 관광객의 수요도 급감하면서 업황 부진이 심화되었다.

이하에서는 가계부채DB, 가계금융·복지조사(19년) 등의 미시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가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에 미친 영향과 함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²⁾의 효과를 추산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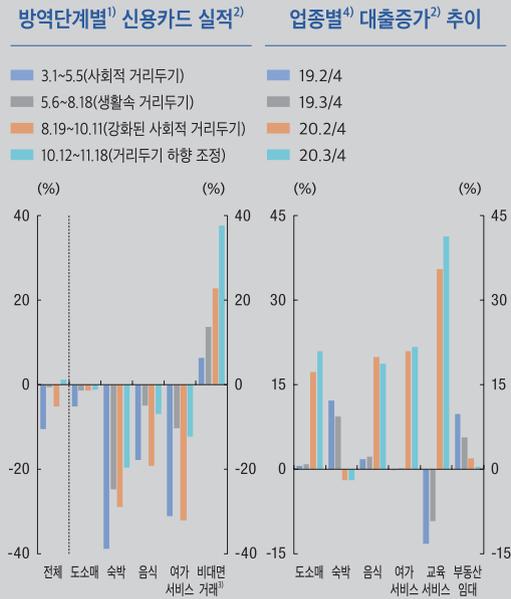
최근 자영업자 동향

자영업자 매출은 코로나19 확산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³⁾ 지급 등의 요인에 따라 감소폭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는 비대면 거래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숙박, 여가 서비스, 음식이 큰 폭의 매출 감소를 기록하였다.

2020년 9월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777.4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9%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는 도소매, 음식, 여가서비스 등에서 대출이 크게 증가하여 매출 감소에 따른 운전자금 부족분을 대출을 통해 일부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매출 및 대출 동향



주: 1) 사회적 거리두기(3월 22일~5월 5일),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5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8월 19일), 2.5단계(8월 30일) 격상(수도권) 등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인터넷상거래 및 통신·우편판매 기준
 4) 중소기업 식별이 가능한 자영업자 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여신금융협회

- 1) 자영업자 가구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종사자, 기타 종사자(학습지 교사 등)인 가구를 포괄한다.
- 2)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를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조치는 2021년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금융위 보도자료, 20년 3월 31일 등).
- 3) 정부는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국 2,216만 가구에 총 14조 2,357억원을 지급하였다. 지원금은 마트·식품(2.5조원, 전체 사용액 대비 26.3%), 대중음식점(2.3조원, 24.3%), 병원·약국(1.2조원, 10.6%), 주유소(0.6조원, 6.1%) 등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재무건전성 전망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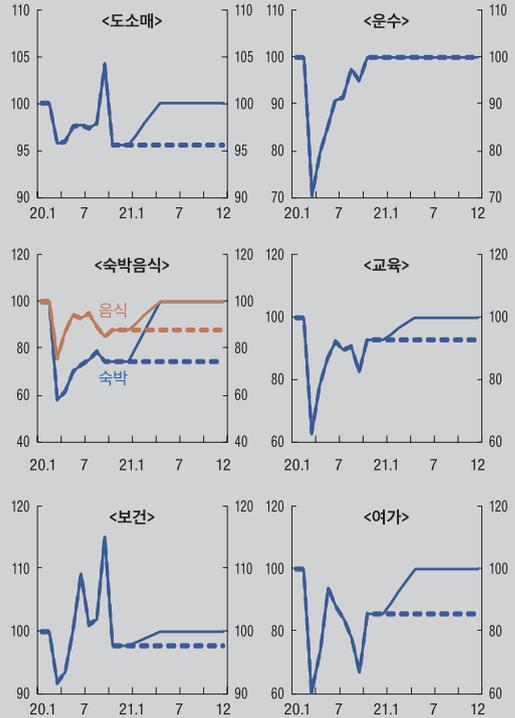
전체 자영업자 가구 중 매출충격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가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⁴⁾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총소득이 필수지출⁵⁾을 하회하는 가구를 '적자가구'로 식별하였다. 적자가구 중에서도 금융자산⁶⁾을 활용하여 적자에 대응할 수 없는 가구를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가구'로, 자산이 부채를 하회하여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에 처하게 되는 가구를 '상환불능(insolvency risk)가구'로 구분하였다.

향후 자영업 업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등으로 내년 2/4분기 이후 매출액이 충격 전 수준에 도달하는 상황(기본 시나리오)과 금년 10월 매출현황이 2021년말까지 지속되는 상황(비관적 시나리오)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한편 각 시나리오에 대해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20년 4월 1일~21년 3월 31일 시행)의 효과도 분석⁷⁾해 보았다. 아울러 내년 3월 후에도 동 유예 조치가 연장되는 경우의 효과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액 변화¹⁾

--- 매출충격 지속(비관적 시나리오)²⁾ — 매출 회복(기본 시나리오)³⁾



주: 1) 충격 전(20년 1~2월)의 매출액을 100으로 지수화
 2) 2020년 10월의 매출액이 이후에도 지속
 3) 2020년 10월의 매출액이 연말까지 지속되다가 2021년 1/4분기중 점진적으로 회복하여 2/4분기부터 충격 이전 수준을 회복
 자료: 여신금융협회, 한국은행 산

테스트 결과

2020년 2월 대비 2021년 12월 수치 변화를 살펴 보면 전체 주요 업종의 자영업자 가구 중에서 흑자 상태를 지속하는 가구 비중이 79.2%에 달한다. 반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가구는 1.5%, 적자 상

4)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이는 주요 업종(도소매, 운수창고, 숙박음식, 부동산, 교육, 보건, 여가, 기타 개인서비스)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동 주요 업종은 244만 가구로 전체 자영업자 가구(453만)의 53.8%를 차지한다.
 5) 총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수지출에는 생계유지 등을 위한 최소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의료, 통신, 식비 등 불가피한 소비지출, 세금 등의 비소비지출, 원리금상환액 등을 포함하였다.
 6) 금융자산에는 저축, 펀드, 보험, 주식 등을 포함하였으며, 보험은 70% 해지환급률을 적용하였다.
 7) 원리금 상환유예 신청요건(지원 대상, 적용대상 대출 등), 금융기관의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전체 자영업자 중 원리금 상환유예를 적용받는 가구는 약 50%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태를 지속하는 가구는 18.8%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로 오히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0.5%)되었다.

코로나19 충격 전후¹⁾ 자영업 가구의 수지 변화²⁾

(만가구, %)

	가구 수	비중
전체 가구	243.7	(100.0)
흑자가구	194.2	(79.7)
흑자 → 흑자	193.1	(79.2)
적자 → 흑자	1.2	(0.5)
적자가구	49.5	(20.3)
흑자 → 적자	3.7	(1.5)
적자 → 적자	45.7	(18.8)

주: 1)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2020년 2월, 2021년 12월의 수지상황을 비교

2) 주요 업종 자영업자 가구 수 기준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시산

(적자가구)

자영업자의 적자가구 증감은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구 비중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나타나기 직전인 2020년 2월 19.2%(주요 업종 자영업자 가구 수 대비, 이하 동일)에서 충격 직후 3월 21.8%로 상승하였다가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에 힘입어 내년 3월에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는 18.8%,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19.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이후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유예되었던 원리금의 분할상환 부담이 추가되면서 적자가구 비중이 내년 12월에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20.3%,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2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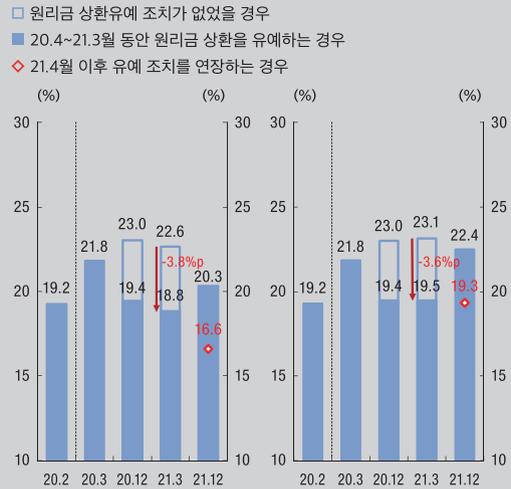
시나리오 하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충격이 크게 나타난 금년 3월 수준(21.8%)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년 4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효과를 살펴보면, 내년 3월까지 적자가구 비중을 3.6~3.8%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의 조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내년 12월에 기본 및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적자가구 비중이 16.6%, 19.3%의 낮은 수준을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수지 적자가구¹⁾의 비중²⁾ 변화

매출 회복 시

매출충격 지속 시



주: 1) 2020년 1월부터 해당 시점까지의 누적 가계수지 기준

2) 주요 업종 자영업자 가구 수 대비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시산

(유동성 위험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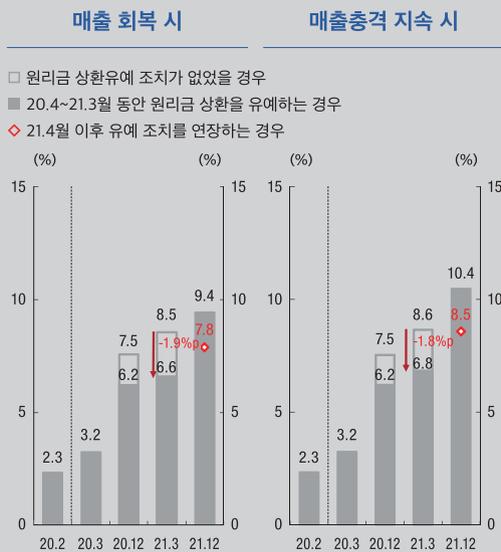
자영업자 적자가구 중에서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하는 유동성 위험가구는 정부의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충격 이전부터 적자 상태였던 가구의

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보유 금융자산을 소진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데 주로 기인한다.

유동성 위험가구 비중은 2020년 2월 2.3%에서 2020년 3월 3.2%로 상승하고 내년 3월에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6.6%,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6.8%로 큰 폭 상승하여 금년 3월의 약 2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1년 12월에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9.4%,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10%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내년 3월까지 유동성 위험가구 비중을 1.8~1.9%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정부의 조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내년 12월 7.8%, 8.5%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유동성 위험가구¹⁾의 비중²⁾ 변화



주: 1) 2020년 1월부터 해당 시점까지의 누적 가계수지 적자가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가구

2) 주요 업종 자영업자 가구 수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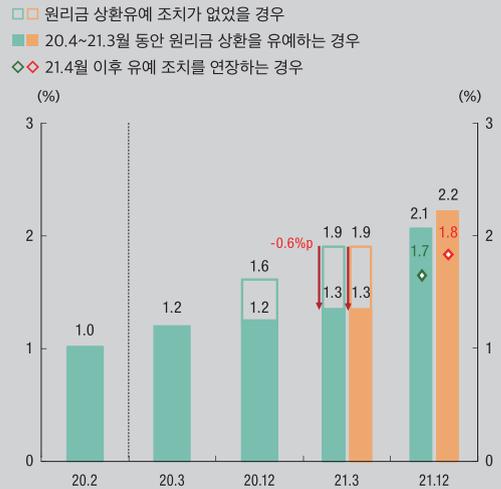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시산

(상환불능가구)

자영업자 적자가구 중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상환불능가구를 살펴보면, 상환불능가구 비중은 2020년 2월 1.0%에서 2020년 3월 1.2%로 상승하고, 내년 3월에는 두 시나리오 하에서 모두 1.3%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2월에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2.1%,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내년 3월에는 상환불능가구 비중을 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정부의 조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내년 12월에 기본 및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1.7%, 1.8%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

자영업자 상환불능가구¹⁾의 비중²⁾ 변화³⁾



주: 1) 2020년 1월부터 해당 시점까지의 누적 가계수지 적자가 순자산을 초과하는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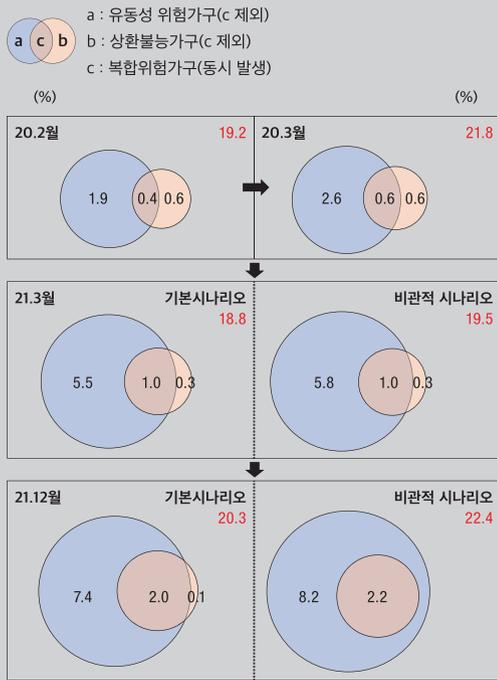
2) 주요 업종 자영업자 가구 수 대비

3) 초록색, 주황색은 각각 매출이 회복되는 경우, 매출충격이 지속되는 경우를 나타냄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시산

자영업자 가구의 리스크 변화를 살펴보면 적자가구 비중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반면, 유동성 위험가구와 상환불능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동성 위험과 상환불능에 동시에 처하는 가구(복합위험가구) 비중이 2020년 2월 0.4%에서 2021년 12월 2.0~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복합위험가구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이 해소된 이후에도 재무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⁸⁾

자영업자 유동성 위험가구와 상환불능가구의 변화¹⁾²⁾



주: 1) 주요 업종 자영업자 가구 수 대비 비중
 2) 붉은색 글씨는 적자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시산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적자가구, 유동성 위험 및 상환불능 가구 증가가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대응조치로 인해 상당 부분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년 4월 이후 지원조치가 종료되면서 적자가구 비중이 다시 상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시적인 금융지원 조치로는 자영업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유동성 위험가구 및 상환불능가구의 경우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 시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적자 상태에 있던 가구의 경우에는 매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데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충격 지속으로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경우 자영업자의 재무상황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인지, 상환불능 상태인지를 구별⁹⁾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¹⁰⁾

아울러 자영업자의 매출충격이 대면거래 업종에 집중된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소비행태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8) 본고의 분석에서는 복합위험가구의 경우 매출 회복 시에도 단일위험(유동성 위험 또는 상환불능)이나 단일위험 이전 상태로 전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면 특정 업종(부동산 매매·임대, 사행성 등 관련 업종)이나 연체 중인 업체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리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0) 자영업자에 대한 폐업정보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법인가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로 살펴보면, 유동성 부족기업(유동비율 100% 미만)의 1년 이내 폐업률은 자본잠식(순자산<0)에 처하지 않은 경우 0.8%에 그치지만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는 8.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동성 부족 및 자본잠식이 동시에 발생한 차주의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한국은행 시산, 20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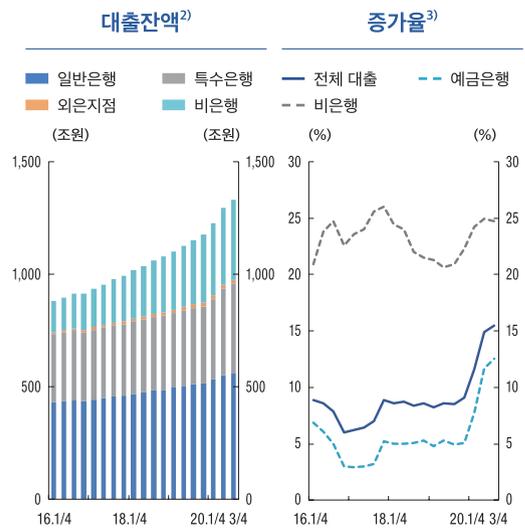
3. 기업신용

기업신용 증가세 지속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2020년 3/4분기말 현재 1,332.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5% 늘어나 높은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향후에도 기업대출은 정부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¹²⁾

금융업권별로 보면,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예금은행 기업대출은 2020년 3/4분기말 975.6조원(일반은행 563.1조원, 특수은행 394.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5%(일반은행 10.0%, 특수은행 16.1%) 증가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¹³⁾ 기업대출은 356.6조원¹⁴⁾으로 상호금융조합(36.0%)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4.7%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그림 I-14).

그림 I-14. 금융기관¹⁾ 기업대출



주: 1) 은행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비은행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준
 2) 기말 기준,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기준
 3)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업규모별¹⁵⁾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대출이 큰 폭 증가하였다. 대기업대출(211.3조원, 전년동기대비 17.0%)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중소기업대출(1,118.1조원, 14.7%)의 경우에는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중소법인 610.6조원, 14.7%, 개인사업자 507.5조원, 14.8%)(그림 I-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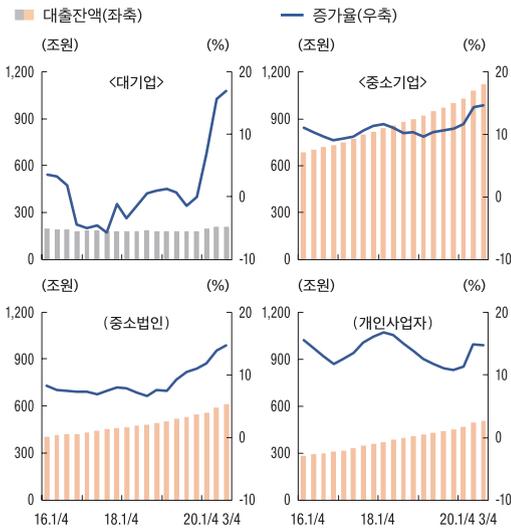
12) 정부가 9월 23일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개편(사업자별 한도 증액 등)하였으며, 한국은행도 9월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8조원 증액하였다. 이에 기업대출은 4/4분기중에도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은행 기업대출 증가폭: 10월 +9.2조원 → 11월 +6.7조원).

13) 비은행금융기관(이하 '비은행') 기업대출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기준이다. 다만 자료 제약으로 인해 일부 업권은 금융보험업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14)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조합 191.5조원(비은행 기업대출 중 53.7%), 보험회사 85.9조원(24.1%), 여신전문금융회사 45.5조원(12.8%) 및 저축은행 33.7조원(9.4%)이다. 특히 상호금융조합은 전년동기대비 36.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데다 연체율도 다소 높아졌다(19년 3/4분기말 2.83% → 20년 3/4분기말 2.97%).

15) 자료의 제약으로 기업규모별 대출 분석 시 기업규모가 구분되지 않는 비은행 업권의 대출 일부(보험회사 약관대출)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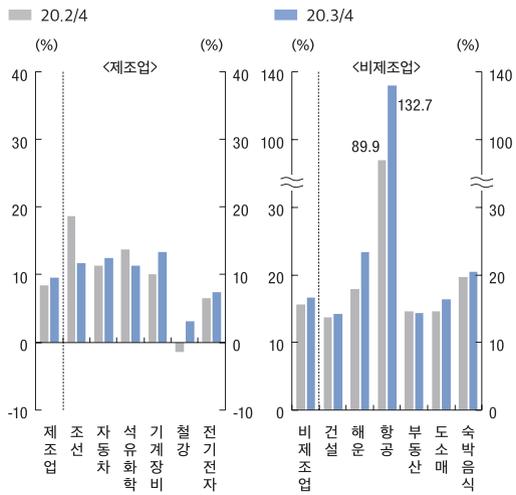
그림 I-15. 기업규모별 기업대출¹⁾²⁾



주: 1)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합산 기준
 2) 기말 기준(금융 및 보험업 제외),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업종별로 보면¹⁶⁾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출이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충격을 크게 받은 항공, 해운, 숙박음식 등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그림 I-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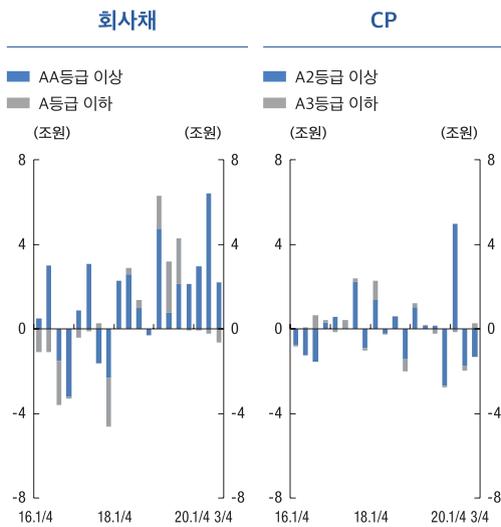
그림 I-16. 주요 업종별 금융기관 기업대출 증가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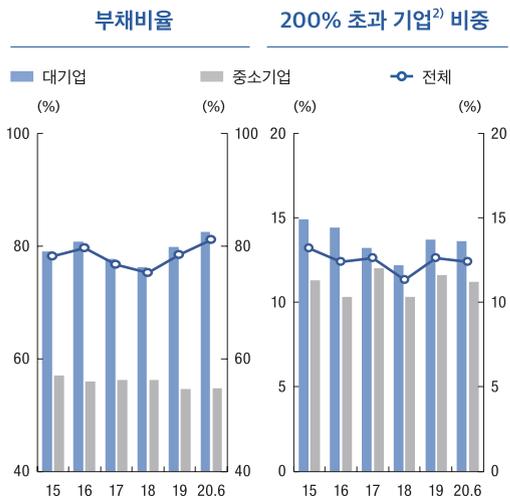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직접 금융시장에서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에 힘입어 신용경계감이 완화되면서 회사채가 순발행되었다. 다만 비우량물은 차환발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으면서 순상환되었다. CP도 장기물인 회사채 선호가 높아지면서 순상환되는 모습이다(그림 I-17).

16) 일부 업권(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대출은 업종 분류가 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I -17. 기업의 직접 금융시장 조달¹⁾ 동향

주: 1) 금융지주회사, 유동화회사(SPC) 발행분 제외, 순발행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그림 I -18. 기업규모별 부채비율¹⁾

주: 1) 부채/자기자본, 기말 기준
2) 완전자본잠식 기업 포함
자료: KIS-Value

부채비율 상승

기업¹⁷⁾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2019년 말 78.5%에서 2020년 상반기말 81.1%로 상승하였다. 다만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과다부채 기업)의 비중(12.4%)은 지난해말(12.6%)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¹⁸⁾(그림 I -18).

성장성 및 수익성 크게 저하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크게 악화되었다. 매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20년 상반기중 -7.0%로 전년동기(-0.8%) 대비 큰 폭 하락하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1.9%)이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대기업은 크게 감소(-7.3%)하였다.¹⁹⁾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도 업황 부진으로 영업이익²⁰⁾이 크게 감소(전년동기대비 -23.5%)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하락(19년 상

17) 이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중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총 2,158개 기업(대기업 1,105개, 중소기업 1,053개)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표본기업이 기업경영분석과 달라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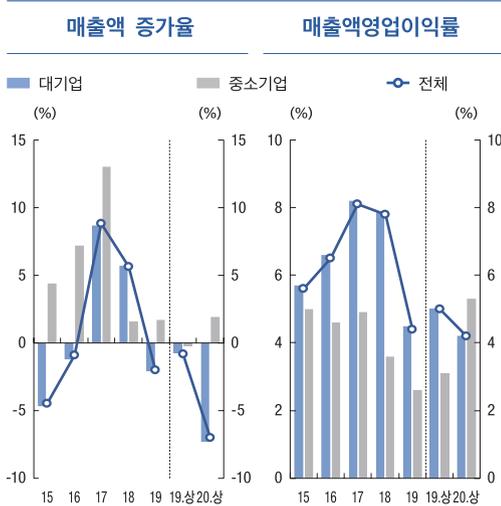
18) 이는 금년 상반기중 기업 부채가 부채비율 200% 이하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19)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기계장비(10.2%), 의류화학(37.1%), 정보서비스(11.4%)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숙박음식(-40.8%), 항공(-38.7%), 석유화학(-19.9%), 조선(-18.8%) 등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0) 2020년 상반기중 영업이익은 석유화학, 조선, 항공, 숙박음식 등에서는 적자전환되었으며, 자동차(전년동기대비 -34.8%), 도소매(-30.7%), 운수(-10.9%) 등에서도 크게 감소하였다.

반기 5.0% → 20년 상반기 4.2%)하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매출액과 유사하게 중소기업(3.1% → 5.3%)이 상승²¹⁾한 반면 대기업은 하락(5.0% → 4.2%)하였다(그림 I-19).

그림 I-19. 기업규모별 매출액 증가율¹⁾ 및 매출액영업이익률²⁾



주: 1) 전년동기대비
2) 영업이익/매출액
자료: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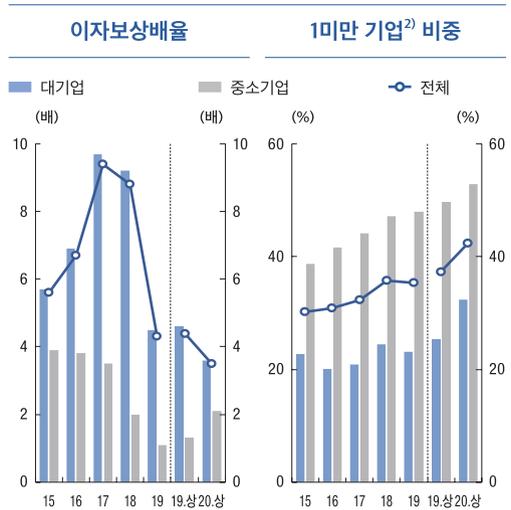
이자지급능력 약화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비교적 큰 폭 하락(19년 상반기 4.4배 → 20년 상반기 3.5배)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상승(1.3배 → 2.1배)한 반면 대기업은 하락(4.6배 → 3.6배)하였다.

이자지급능력이 취약한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은 2019년 상반기 37.3%에서 2020년 상반기 42.4%로 크게 상승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49.7% → 52.8%)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도 금년 상반기중에 동 비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25.3% → 32.4%)하였다(그림 I-20).

한편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의 여신 비중²²⁾은 2020년 상반기말 36.1%로 전년말(28.3%) 대비 7.8%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금년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데 주로 기인한다.

그림 I-20.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¹⁾



주: 1) 영업이익/이자비용
2) 영업손실기업 포함
자료: KIS-Value

21)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이자보상배율이 상승한 것은 매출이 호조를 보인 기계장비(19년 상반기 매출액영업이익률 4.3% → 20년 상반기 6.9%), 의료화학(2.9% → 16.0%), 정보서비스(6.0% → 12.2%) 등의 수익성이 개선된 데 주로 기인한다. 다만 본고의 분석에서 제외된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이자보상배율이 크게 낮을 수 있다.
22)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기업의 여신 비중(%), 기말기준, 자료: KIS-Value, 한국신용정보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비중	35.6	24.1	20.3	26.6	28.3	36.1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의 금융지원,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이 크게 늘어났다. 향후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경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 경영여건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업의 실적 회복 지연에 따른 유동성 부족 및 신용위험 현재화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²³⁾

23) 자세한 내용은 <금융안정 현안 분석> 「II. 코로나19 장기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114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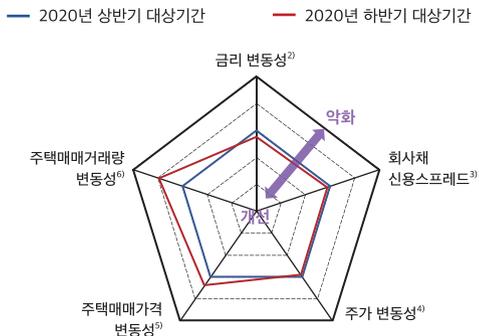
II. 자산시장

국고채 금리는 국고채시장 수급 불균형 우려, 주요국 금리 오름세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신용증권시장 지원대책¹⁾ 등으로 축소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주가는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일시 조정받기도 하였으나 주요국의 완화적인 정책기조 유지, 경제지표 개선 및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 상승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연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8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11월 들어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그림 II-1).

그림 II-1. 자산시장 상황 변화 지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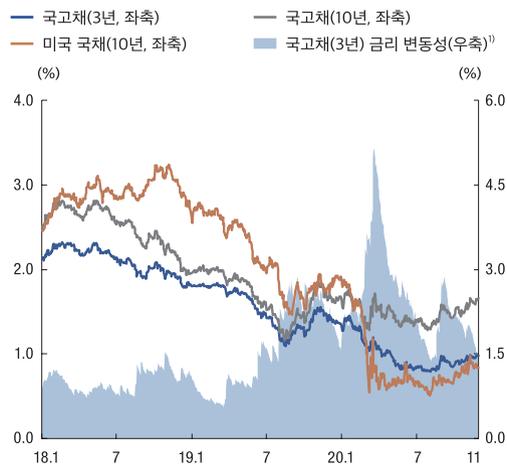
- 주: 1) 2019년 12월~2020년 5월의 6개월간 실적을 기준으로 2020년 6~11월중(주택매매거래량은 20년 6~10월중)의 6개월간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국고채(3년) 금리의 일별 변동성을 지수가중이동평균(EWMA) 방식으로 산정
 3) 회사채(A- 등급) 금리 - 국고채(3년) 금리, 2020년 5월말 대비 2020년 11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4) V-KOSPI 기준
 5) 주택매매가격지수의 월별 변동성을 지수화
 6) 주택매매거래량의 월별 변동성을 지수화
 자료: 한국은행

1. 채권시장

장기시장금리 상승

국고채 금리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발표 및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채권수급 부담 등으로 9월초까지 상당폭 상승하였다. 이후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발표(9월 8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반락하여 9월말 0.80%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10월 이후에는 향후 미국의 경기부양 확대 전망,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에 영향받아 주요국과 동반²⁾하여 큰 폭 반등하였다(그림 II-2, 그림 II-3).

그림 II-2. 국고채 및 미국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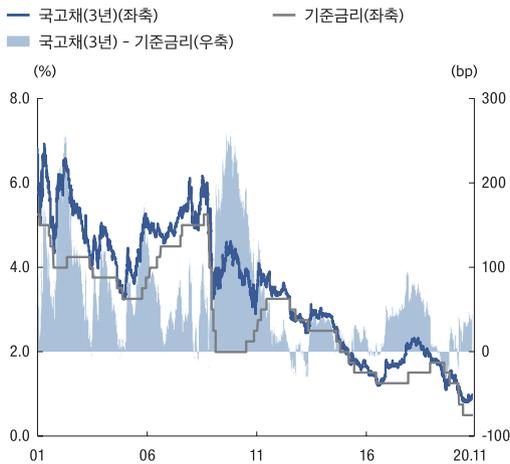


- 주: 1) 지수가중이동평균(EWMA)에 의거 일별 변동성 산출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1) 한국은행은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과 협력하여 1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 지원기구(SPV)」를 설립하고 7월 24일부터 회사채·CP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 특히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10월 1일~11월 3일중 22b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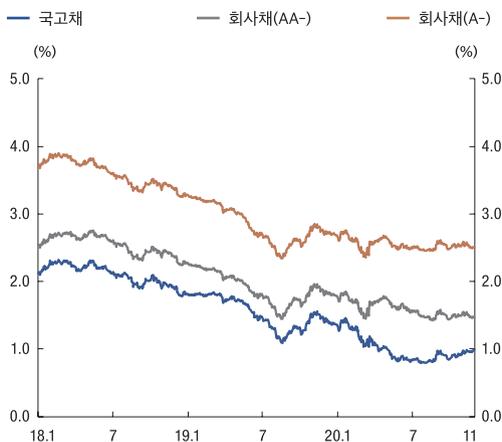
그림 II-3.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소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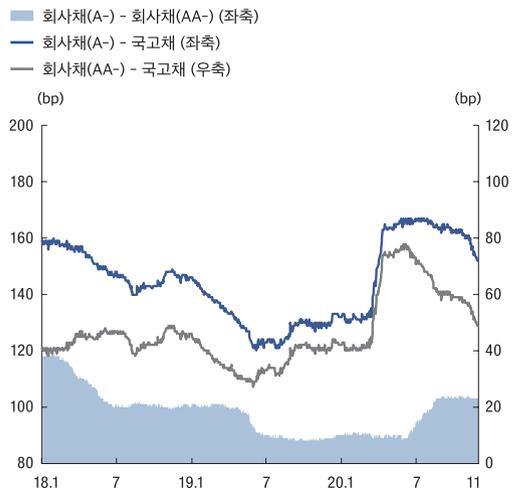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회사채 금리가 국고채 금리와 달리 다소 하락하거나 횡보함에 따라 소폭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II-4).

그림 II-4. 회사채 및 국고채 금리¹⁾

주: 1) 3년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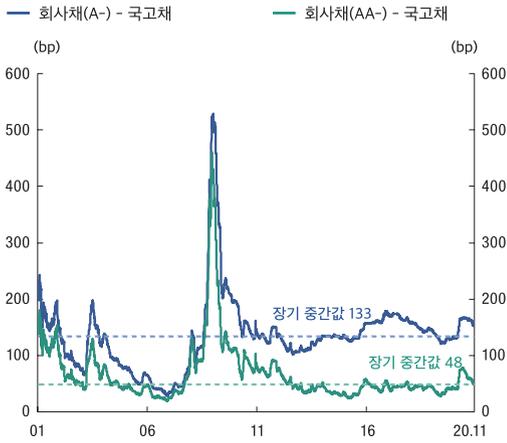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우량물(AA- 기준) 신용스프레드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신용증권시장 지원대책 등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호전되면서 7월초 71bp에서 11월말 현재 49bp로 축소되었다. 비우량물(A- 기준) 신용스프레드도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가동(7월 24일) 이후 축소되었으나 그 폭은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상대적 취약성 등으로 우량물보다는 작았다(7월초 166bp → 11월말 152bp). 이를 반영하여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A- 및 AA- 기준)도 7월 이후 확대되었다(그림 II-5).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높아졌던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최근 많이 낮아졌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II-6).

그림 II-5. 회사채 신용스프레드¹⁾ 및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

주: 1) 3년물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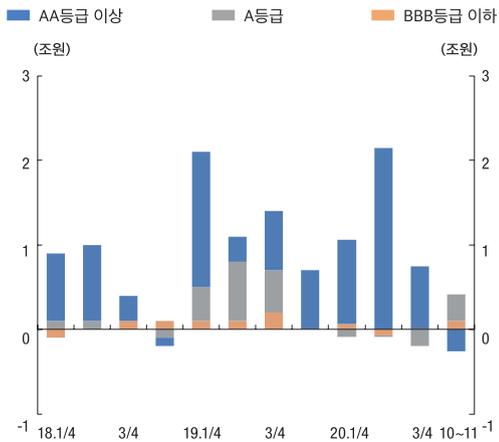
그림 II-6. 회사채 신용스프레드¹⁾²⁾

주: 1) 3년물 기준

2) 장기 중간값은 2001년 1월~2020년 11월 기간중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편 회사채 발행시장에서는 하반기 들어서도 우량물을 중심으로 순발행 기초를 보였다. 비우량물도 기업유동성지원기구의 매입 등으로 4/4분기 들어 순발행되었다(그림 II-7).

그림 II-7. 회사채¹⁾ 순발행²⁾

주: 1) 공모 기준, 금융회사 발행분 제외

2)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2. 주식시장

주가 상승세 지속

주가는 7월 이후 주요국의 적극적인 정책대응,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반면 8~10월 중에는 미국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실적 등 상승요인과 코로나19 재확산 가속화,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등 하락요인이 엇갈리며 2,250~2,450 내에서 등락하였다. 11월 들어서는 미국 정치 관련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큰 폭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³⁾를 기록하였다(그림 II-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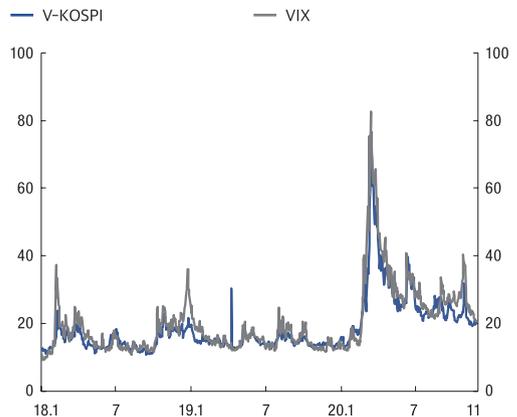
그림 II-8. 코스피 및 글로벌 주가¹⁾



주: 1) 미국은 다우지수,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은 MSCI 기준
자료: KOSCOM, Bloomberg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6~10월 중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 및 미국 정치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단기간 상승 후 하락하는 모습을 반복하였다. 11월 들어서는 점차 안정화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II-9).

그림 II-9. 주가 변동성 지수¹⁾



주: 1) KOSPI200 및 S&P500 지수의 옵션 가격으로부터 산출된 변동성지수
자료: KOSCOM,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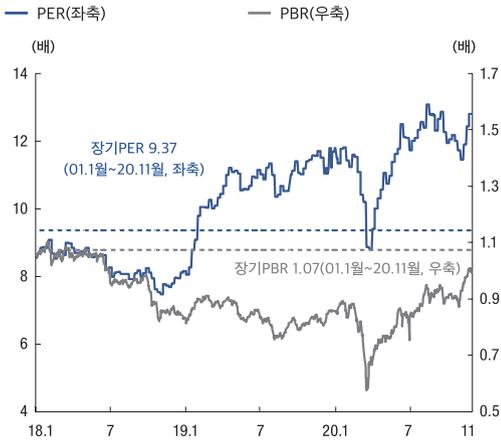
PER 소폭 하락, PBR 상승

주가수익비율⁴⁾(PER)은 주가 상승에 따라 8월 중순 13.09배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기업실적 개선 기대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하락하였다. 다만 11월 들어 주가 급등으로 재차 상승하여 11월말 12.79배로 장기평균(01년 이후, 9.37배)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 청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의 경우 대체로 오름세를 지속하여 11월말 0.99배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그림 II-10).

3) KOSPI는 11월 27일 기준 2,633을 기록하여 코로나19 이전 최고치(2,598, 18년 1월 29일)를 경신하였다.

4) MSCI 기준 12개월 선행 PER을 활용하였으며 동 지표는 MSCI지수 편입기업들의 현재 시가총액 합계를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순이익(국내외 증권회사 전망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그림 II-10. PER¹⁾ 및 PBR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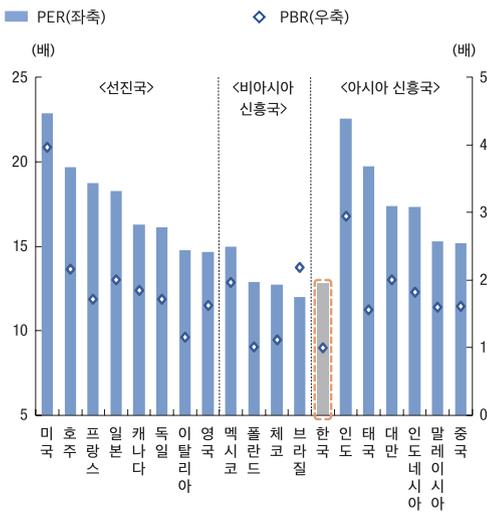
주: 1)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2) 코스피 종목 기준

자료: Bloomberg, Thomson Reuters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국내 주식시장의 PER 및 PBR은 선진국뿐 아니라 주요 신흥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그림 II-11).

그림 II-11. 주요국의 PER¹⁾²⁾ 및 PBR¹⁾



주: 1) 2020년 11월말 기준

2)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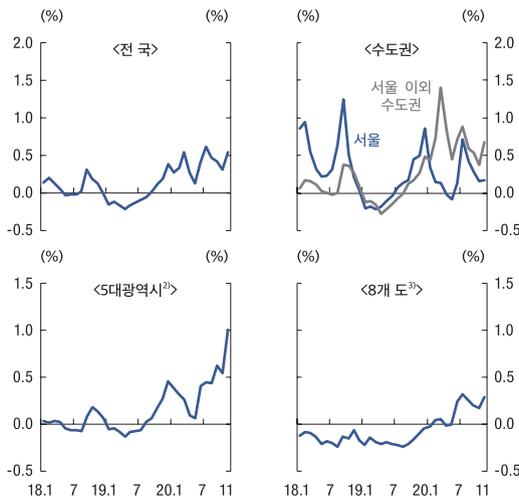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Thomson Reuters

3. 부동산시장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재차 확대

주택매매가격은 6·17, 7·10, 8·4 대책 등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을 중심으로 8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11 월중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는 주택공급 부족 우려,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가 지속된 데 주로 기인한다. 지역 별로는 서울 이외 수도권, 5대광역시의 경우 개발호재, 규제격차⁵⁾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8개 도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그림 II-12).

그림 II-12. 주택매매가격 상승률¹⁾



주: 1)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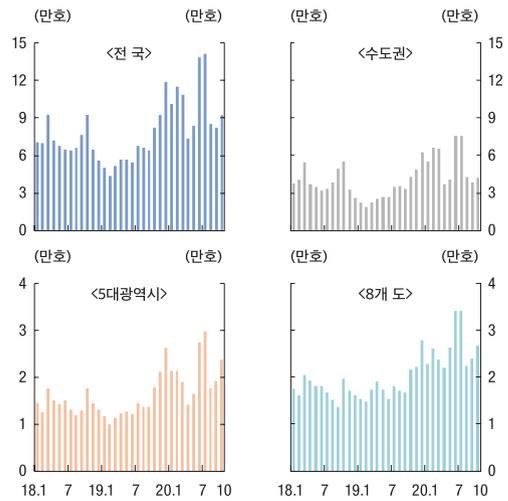
2)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및 울산

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및 제주

자료: 한국부동산원

주택매매거래량은 2020년 1~10월중 102.2만 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0% 증가하였다. 6~7월중 가격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큰 폭 증가하였다가 8월 이후 규제 강화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⁶⁾ 등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을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였다(그림 II-13).

그림 II-13. 주택매매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전월세가격 상승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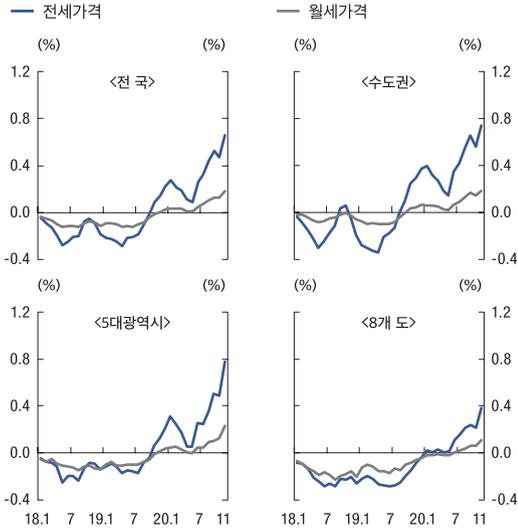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월세가격은 입주물량 감소, 매매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8월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의 영향⁷⁾에 따른 유통물량 감소로 전월세 수급불균형⁸⁾ 심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그림 II-14).

5) 금년 들어 정부의 규제조치가 적용되지 않거나 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6) 아파트 매수우위지수(KB부동산 발표)는 7·10 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로 전환(6월 29일 92.0 → 7월 6일 94.7 → 7월 13일 82.6)되었다가 10월 중순 이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높아지는 모습(10월 5일 67.5 → 10월 12일 74.0 → 11월 30일 99.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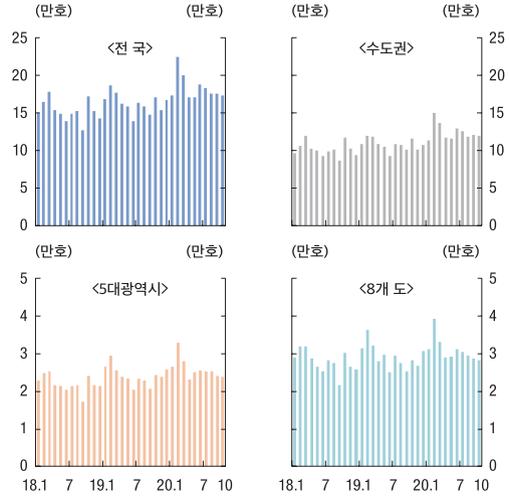
7)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시행(7월 31일),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요건(2년) 신설 등으로 전월세시장 유통물량이 감소하였다.

8) 아파트 전세수급지수(KB부동산 발표)는 4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10월에는 통계작성(03년 7월 1일) 이후 최고점을 기록(4월 6일 152.6 → 10월 26일 192.8 → 11월 30일 186.6)하였다.

그림 II-14. 주택전월세가격 상승률¹⁾

주: 1) 전월대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월세거래량⁹⁾은 2020년 1~10월중 183.3만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1%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중 전세 및 월세 거래량이 각각 109.4만호, 73.9만호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0%, 12.4% 늘어난 가운데 전세 비중은 59.7%로 지난해 같은 기간(59.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중 수도권 거래량이 124.6만호로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한 가운데 5대광역시 및 8개도 거래량은 각각 26.0만호, 31.0만호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8.2%, 5.6% 늘어났다(그림 II-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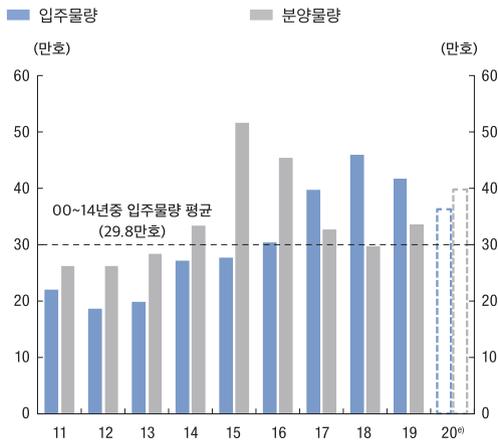
그림 II-15. 주택전월세거래량¹⁾

주: 1) 확정일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2020년중 아파트 신규입주물량은 약 36.2만호로 전년(41.6만호)에 비해 줄어들면서 지난해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아파트 분양물량¹⁰⁾은 39.8만호로 지난해(33.6만호)보다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II-16). 한편 미분양주택물량은 2020년 10월말 기준 2.7만호(수도권 0.4만호, 지방 2.3만호)로 경남, 경북, 강원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년말 대비 44.1%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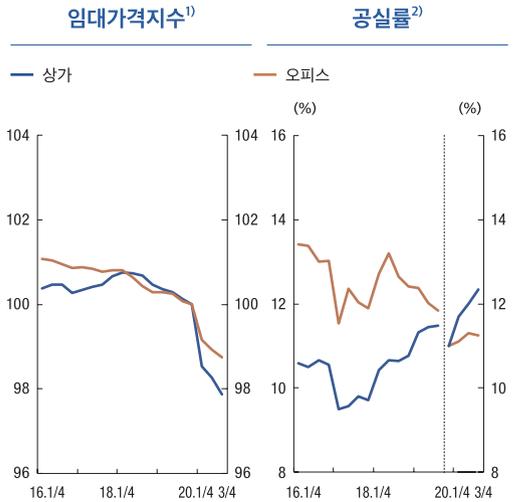
9)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계약 건물은 대상으로 집계되어 전체 전월세거래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0) 2020년중 수도권(17.6만호 → 21.9만호) 및 비수도권(16.0만호 → 17.9만호) 모두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5월중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분양 지연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5%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그림 II-16. 아파트 입주 및 분양 물량¹⁾

주: 1) 2020년 12월 2일 기준(단, 20년은 월별계획물량 합산 기준)
자료: 부동산114

그림 II-17.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 및 공실률



주: 1) 2019년 4/4분기=100. 상가는 중대형 기준
2) 2020년 1/4분기 표본개편으로 시계열 단절. 상가는 중대형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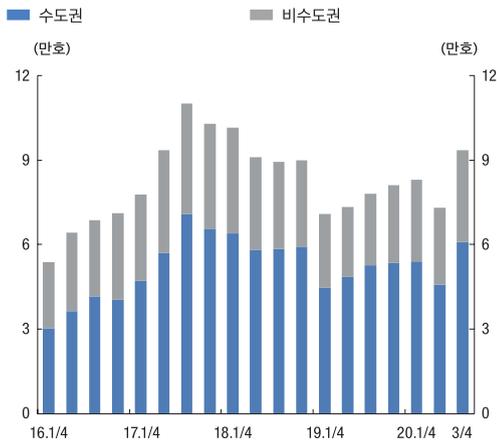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 하락세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건물 유형별 임대가격은 2020년 1/4~3/4분기 중 상가 및 오피스가 각각 전년말 대비 2.1%, 1.3% 하락하였다. 한편 공실률¹⁾의 경우 상가는 3/4분기 12.4%로 전분기(12.0%)보다 상승하였으나, 오피스(11.2%)는 전분기 수준(11.3%)을 유지하였다(그림 II-17).

상업용부동산 거래량은 2/4분기중 일시 감소하였다가 3/4분기 늘어나면서²⁾ 2020년 1/4~3/4분기중 24.9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2% 증가하였다(그림 II-18).

11) 2020년 1/4분기 임대동향조사부터 표본확대 및 교체 등으로 2019년 4/4분기 이후의 시계열이 단절되었다.

12) 급변 3/4분기중 상업용부동산 거래량 증가는 자산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I-18. 상업용부동산¹⁾ 거래량²⁾

Ⅲ. 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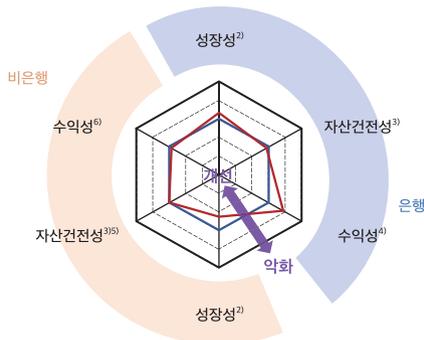
일반은행¹⁾의 경영건전성을 보면, 수익성이 대손 비용 증가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자산건전성은 정책당국의 금융지원 등에 힘입어 개선되는 등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다. 자산 성장세가 지속된 가운데 대부분의 업권에서 자산건전성은 개선되었으며, 수익성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금융기관 간 자금 조달·운용을 통한 상호연계성은 높아졌다.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호거래가 늘어나면서 금융부문 총자산 대비 상호거래 비중이 상승하였으며, 금융업권 간 부실전염 리스크도 증가하였다(그림 Ⅲ-1).

그림 Ⅲ-1.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상황 변화 지도¹⁾

— 2019년 하반기 대상기간 — 2020년 하반기 대상기간



주: 1) 2019년 3/4분기말 대비 2020년 3/4분기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총자산 증가율

3) 고정이하여신비율

4) 총자산순이익률(ROA)

5) 증권회사 제외

6) 비은행 업권별 ROA를 총자산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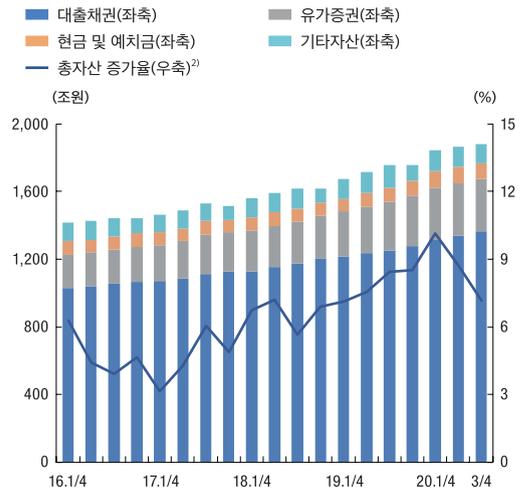
1. 은행

자산 증가세 둔화

일반은행의 총자산(은행계정 기준)은 2020년 3/4분기말 1,88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하였다. 대출채권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대출 외 자산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총자산 증가율은 전년동기(8.4%)보다 낮아졌다.

자산항목별로 살펴보면 대출채권은 전년동기대비 8.9% 늘어나, 지난해 3/4분기(6.8%)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가계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²⁾ 유가증권의 경우 지난해 비이자이익 증대 노력 등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금년 3/4분기말 증가율은 8.3%로 전년동기(15.2%)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그림 Ⅲ-2).

그림 Ⅲ-2. 일반은행 총자산 규모¹⁾



주: 1) 은행계정 기말 잔액 기준

2)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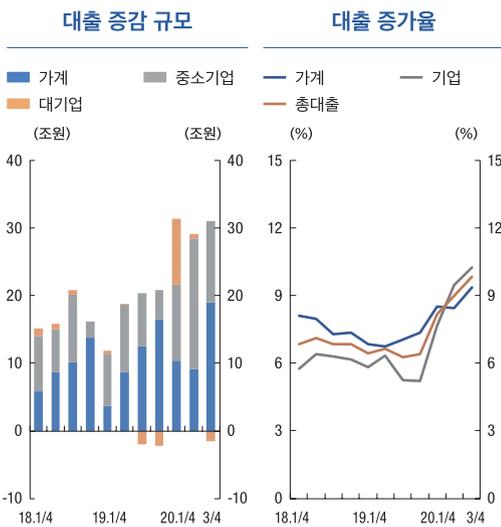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1) 금융안정보고서의 은행부문은 일반은행(시중·지방 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영업모델이 상이한 특수은행(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및 수협 은행)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시중은행에 포함된다.

2) 가계 신용대출이 같은 기간중 19.2%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7.7%)을 크게 상회하였다.

차주별 대출채권(원화대출금 기준)을 보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2020년 1/4~3/4분기중 각각 38.6조원, 51.5조원 늘어나 모두 전년 같은 기간(25.0조원, 24.0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3/4분기말 총대출 증가율(9.8%)은 2008년 4/4분기(1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기업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³⁾ 2020년 2/4분기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대기업대출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수요가 집중되면서 1/4분기에 큰 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증가폭이 축소되어 3/4분기에는 감소로 전환하였다(그림 III-3).

그림 III-3. 일반은행 대출¹⁾ 증감²⁾ 규모 및 대출 증가율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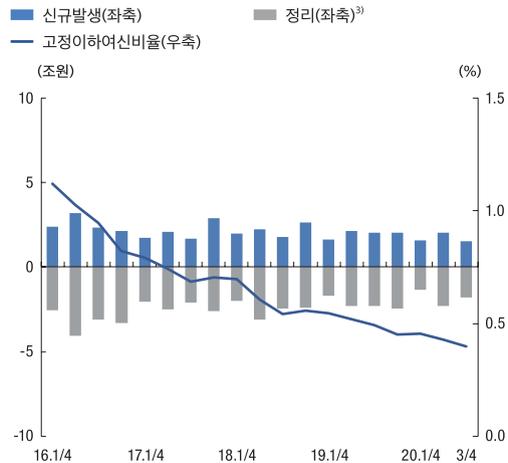


주: 1)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기준
 2) 전기대비
 3)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자산건전성 양호

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0년 3/4분기말 0.40%로 코로나19 이후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에 힘입어 전년동기(0.49%)에 비해 하락하였다(그림 III-4).

그림 III-4. 부실채권 발생·정리 실적¹⁾ 및 고정이하여신비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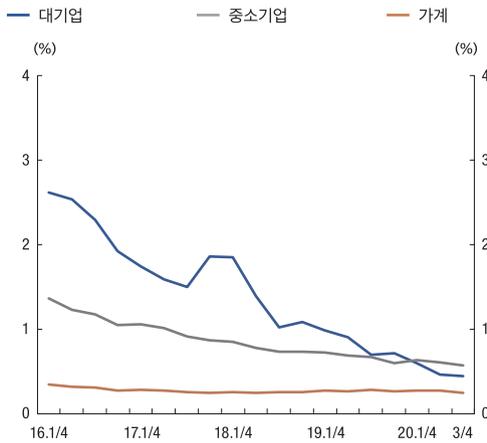


주: 1) 기간중 기준
 2) 기말 기준
 3) 회수, 대손상각, 매각, 건전성재분류, 채권재조정 등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차주별로 살펴보면 가계여신은 2020년 3/4분기말 0.2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기업여신의 경우 대기업이 0.44%로 전년동기(0.69%)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하락세를 지속하였고, 중소기업은 0.10%포인트 하락하여 0.57%를 기록하였다(그림 III-5).

3) 금년 1/4~3/4분기중 중소기업대출 증가폭(42.5조원)은 2004년 이후 최대이며, 특히 2/4분기 증가폭(19.3조원)은 2003년 3/4분기 이후 최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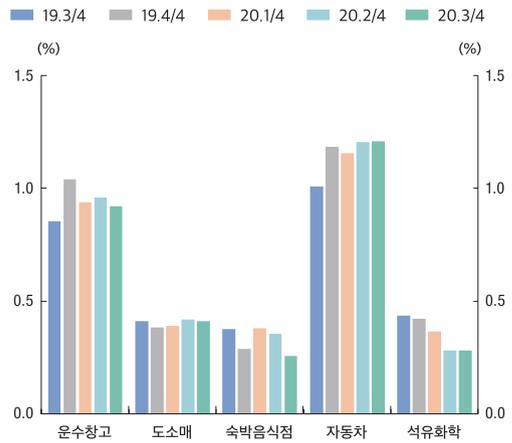
그림 III-5. 일반은행 차주별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19년 3/4분기 0.44% → 20년 3/4분기 0.28%), 숙박음식업(0.38% → 0.26%) 및 도소매업(0.41% → 0.41%) 등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거나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자동차(1.01% → 1.21%) 및 운수창고업(0.86% → 0.92%)은 소폭 상승하였다. 주요 업종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 실적 회복이 지연되고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4) 될 경우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그림 III-6).

그림 III-6. 일반은행 주요 업종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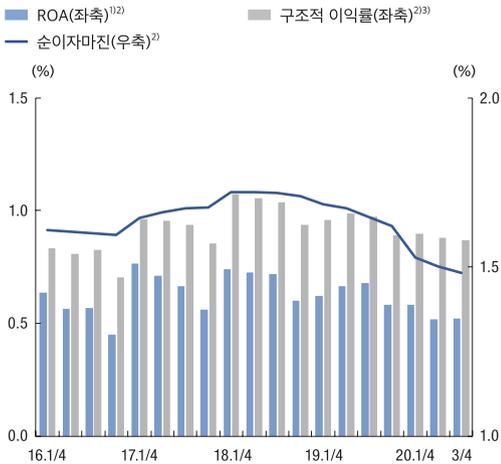
수익성 소폭 저하

일반은행의 수익성은 전년동기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20년 1/4~3/4분기중 0.52%(연율환산 기준)로 전년동기대비 0.16%포인트 하락하여, 2018년 이후의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은행의 지속적 이익 창출능력을 나타내는 구조적 이익률도 2020년 1/4~3/4분기중 0.87%(연율환산 기준)로 전년동기대비 0.10%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I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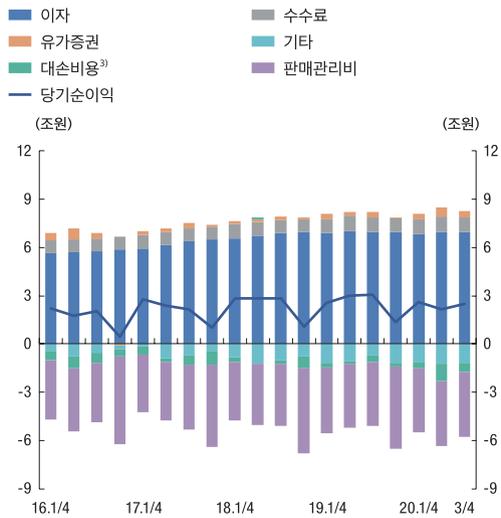
4)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행업감독규정」 <별표 3>)에 따르면 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대출채권이 '고정'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동 조치가 종료된 후 시차를 두고 취약 가계 및 기업의 부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7. 일반은행 수익성



주: 1) 대손준비금 전입 전 금액 기준
 2)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3) (이자이익 + 수수료이익 + 신탁이익 - 운영경비)/총자산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1/4~3/4분기 중 7.2조원으로 전년동기(8.6조원) 대비 1.4조원 감소하였다. 순이익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이자이익은 저금리에 따른 순이자마진 하락⁵⁾에도 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0.1조원)에 그쳤다. 다만 향후 대출 부실에 대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⁶⁾로 대손비용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조원 늘어나면서 당기순이익 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에도 은행의 수익성은 경기회복 지연, 경쟁심화 등 영업환경⁷⁾ 변화와 대손비용 증감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⁸⁾(그림 III-8).

그림 III-8. 일반은행 당기순이익 증감요인¹⁾²⁾

주: 1) 대손준비금 전입 전 금액 기준 2) 기간중 기준
 3) 대손상각비, 총당금 순전입액 및 대출채권 매매손익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대외 외화조달 여건 개선

일반은행의 대외 외화조달 여건은 금년초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악화되었으나 이후 안정화되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단기 외화 차입 가산금리는 국제금융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고 달러화 유동성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하락하였다. 장기 외화차입 가산금리도 신흥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 및 9월중 외평채⁹⁾의 양호한 발행성과 등에 힘입어 하락세를 보였다(그림 II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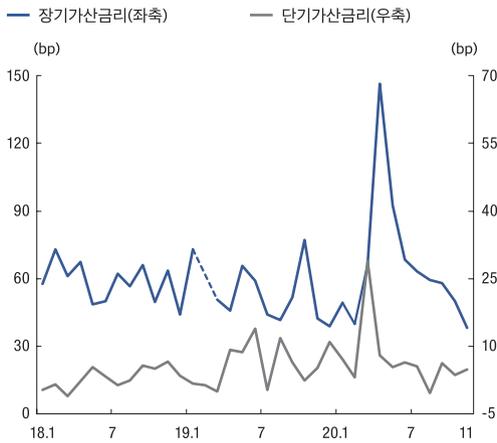
5)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3월 1.25% → 0.75%, 5월 0.75% → 0.50%) 등으로 일반은행의 순이자마진은 2020년 3/4분기 중 1.48%까지 하락하였다. 한편 원화 이자수익자산(20년 3/4분기말 평잔)은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하였다.

6) 2020년 9월말 일반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잔액이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하면서 지난해 9월말(-5.7%)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7) 디지털금융 진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3> 「비대면 금융거래 현황 및 평가」(52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8) 2020년 1/4~3/4분기중 은행 당기순이익의 감소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여력이 있을 때 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9) 2020년 9월 10일 14.5억달러 규모로 발행된 외화표시 외화국평형기금 채권의 발행금리 및 가산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림 Ⅲ-9. 대외 외화차입 장·단기 가산금리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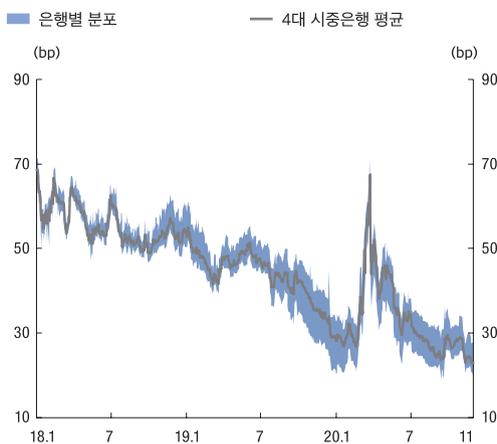
주: 1) LIBOR 기준 가산금리(국민, 신한, 우리 및 하나 은행의 미 달러화 차입금액 가중평균)

2) 국내 금융기관 간 차입 및 본지점 차입, O/N은 집계대상에서 제외

3) 차입실적 부재로 데이터가 단절된 시점(19년 2월 장기차입 가산금리)은 점선으로 표시

자료: 한국은행

일반은행의 CDS 프리미엄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급등하였다가 이후 빠르게 하락하면서 11월에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그림 Ⅲ-10).

그림 Ⅲ-10. 일반은행¹⁾ CDS 프리미엄²⁾

주: 1) 국민, 신한, 우리 및 하나 은행 기준

2) 5년을 기준

자료: Markit

참고 3.

비대면 금융거래 현황 및 평가

2010년대 중반 이후 디지털기술 발전과 함께 핀테크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났고 이들 기업의 금융부문 진출도 꾸준히 확대되었다. 한편 금융기관들도 영업점포를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늘려 왔다.¹⁾ 특히 금년 들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등으로 모바일 결제 등 비대면 거래가 보다 활성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의 디지털금융 지원정책 추진²⁾ 등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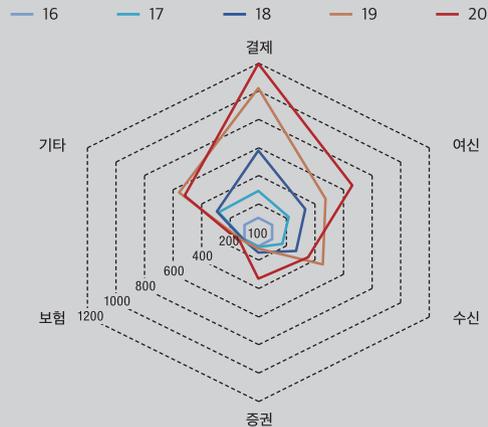
이하에서는 최근 금융부문에서의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거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영향과 관련 리스크를 점검해 보았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현황

2016년 이후 연도별 비대면 금융거래³⁾ 규모의 증가 추이를 결제(송금 포함), 여신, 수신, 증권(자산운용 포함), 보험, 기타 등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4년간 6개 부문의 거래 규모는 평균 5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결제 부문의 성장세(16년 대비 12.0배)가 가장 두드러졌다. 금년 들어서는 증권

(177.4%), 여신(39.4%), 결제(16.9%) 등의 부문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문별¹⁾ 증가 추이²⁾



주: 1) 2016년 연간 비대면 거래금액을 100으로 지수화(각 부문별로 2개 이상의 가용한 통계를 활용)

2) 2020년은 1~9월중 거래규모 등을 활용하여 연간규모를 추정

자료: 한국은행 시산

(결제)

결제는 비대면 금융거래 중 가장 활성화된 부문으로서 2016년 이후 금융기관 및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거래를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온라인쇼핑⁴⁾ 등 전자상거래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카드사의 간편결제 비중이 금년 들어 빠르게 상승⁵⁾하였다. 핀테크 기업도 카드사와의 업무제휴 또는 자체 충전금 활용 등을 통해 간편결제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한편 은행의 비대면 채널별로 송

1) 일반은행 지점 수는 2013년말 5,046개에서 2020년 9월말 3,930개로 감소한 반면 핀테크 기업 수는 2013년말 94개에서 2019년말 345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2) 2020년 7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린 뉴딜(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유도)과 함께 디지털 뉴딜(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3) 본고에서의 비대면 금융거래는 폰뱅킹 및 CD/ATM 이용뿐 아니라 인터넷·모바일 등의 디지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다만 통계자료 제약 등으로 모든 비대면 금융거래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용통계(지급결제 관련 통계,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등)를 활용하여 2016년 이후 비대면 거래규모 추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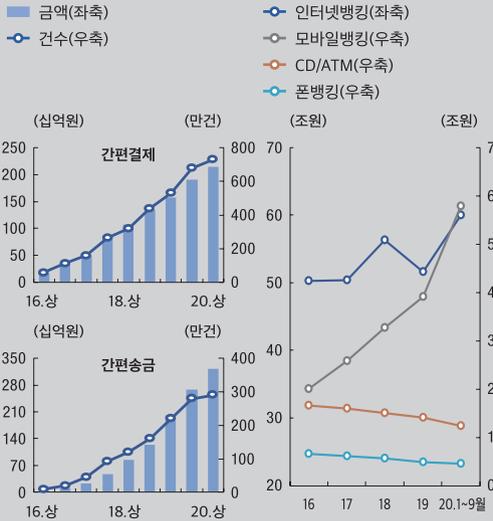
4) 2020년 1~9월중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월평균 기준, 통계청)은 26.6%로 코로나19 이전(18년중 18.8%, 19년중 21.4%)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 카드사의 전체 결제금액 대비 간편결제 비중은 2020년 1월중 14.0%에서 9월중 16.8%로 상승하였다.

금·이체 등 금융거래 규모 추이를 비교해보면, 폰뱅킹 및 CD/ATM 이용 거래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금년 들어 인터넷뱅킹은 증가세로 전환되고 모바일뱅킹은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간편결제·간편송금¹⁾

은행의 비대면 채널별 거래규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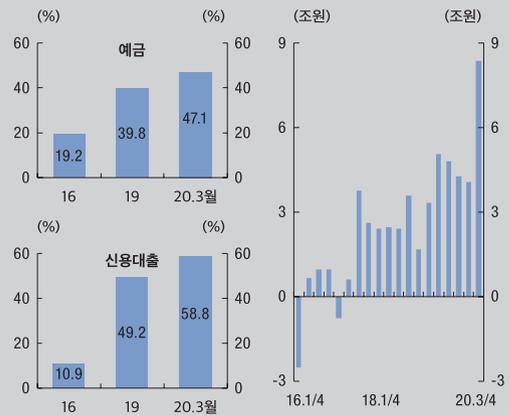


주: 1) 기간중 일평균 이용실적
 2) 기간중 일평균
 자료: 한국은행,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기업의 경우 비대면 채널 대출잔액(20년 9월말 4.6조원, 일반은행 기준)이 가계대출(56.0조원)에 비해 크게 작지만 최근 비대면 대출상품이 다수 출시되고 있어 향후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비대면 대출비중⁶⁾이 지난해부터 크게 높아진⁷⁾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비중¹⁾

은행의 비대면 채널²⁾ 기반 가계대출 증가규모³⁾



주: 1) 기간중, 5개 시중은행 기준
 2) 인터넷, 모바일 등
 3) 기간중
 자료: 금융위원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여신·수신)

금융기관의 비대면 예금·대출 거래는 IT에 기반한 온라인·무점포 영업구조를 가진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2017년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은행권 가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온라인화가

(증권·보험)

증권 부문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및 증권회사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객장거래⁸⁾의 비대면화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금년

6) 저축은행의 비대면 예금 및 대출 취급 현황

	16년말			18년말			20.3월말					
예금 잔액 (비중)	6.9	(15.5)	14.0	(23.4)	14.8	(22.1)	6.1	(14.1)	8.6	(14.7)	12.3	(18.4)
대출 잔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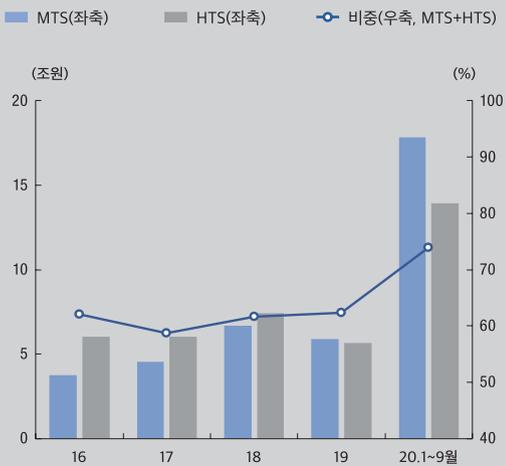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7) 또한 비대면 속성을 지닌 카드론도 꾸준한 증가세(16년말 23.7조원 → 18년말 26.7조원 → 20년 9월말 30.7조원)를 보여 왔다. 반면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개별 단위조합이 많아 영업점 방문을 통한 금융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여신 대부분이 비대면 영업에 유리한 신용대출보다는 부동산담보대출로 구성되어 있고 고객층도 디지털 접근·활용도가 낮은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비대면 예금·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8) 증권회사 지점 수는 2016년말 1,275개에서 2020년 9월말 현재 986개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객장에서 수행되는 주식매매 거래비중도 계속 하락(16년중 27.7% → 18년중 24.1% → 20년 1~9월중 13.4%)하고 있다.

에는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창구거래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MTS(Mobile Trading System) 및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한 주식매매거래가 급증하였다. 자산운용 부문의 경우에도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규모가 최근 크게 확대⁹⁾되는 등 비대면 거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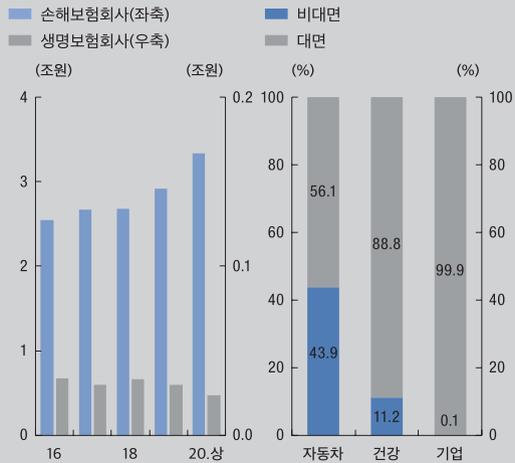
비대면 채널별¹⁾ 주식매매 거래규모²⁾ 및 비중



주: 1) MTS 및 HTS 기준(영업점 단말기 등은 제외)
 2) 기간중 일평균
 자료: 한국거래소

전통적으로 대면 판매방식 비중이 높았던 보험 부문의 경우 지난해부터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비대면 방식을 통한 보험가입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비대면 가입비중(20년 1~9월중 43.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손해보험에 비해 상품구조 및 약관이 복잡한 생명보험은 소비자 보호 규제 정책 강화, 보험상품의 특성(판매 시 특약·보장내역 설명 필요) 등으로 비대면 채널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보험회사별 비대면 채널¹⁾ 가입규모²⁾³⁾ 손해보험회사의 상품별 비대면 비중⁴⁾⁵⁾



주: 1) 텔레마케팅, 온라인마케팅 등
 2) 생보사는 초회보험료, 손보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3) 기간중 분기평균 4) 원수보험료 기준 5) 2020년 1~9월중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타)

P2P 금융, 크라우드펀딩 등은 지난해까지 핀테크 기업의 금융부문 진출 확대와 함께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금년 들어서는 연체율이 급등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관련 사모펀드 환매 연기 등으로 자금 유입규모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P2P 금융·크라우드펀딩

	2017	2018	2019	2020 ¹⁾
P2P 금융 ²⁾ (조원)	0.3	0.3	0.7	0.6
크라우드펀딩 ³⁾ (백억원)	0.7	0.8	0.9	0.5

주: 1) 1/4~3/4분기중
 2) 기간중 분기평균 취급액
 3) 기간중 분기평균 증감
 자료: 한국P2P금융협회, 크라우드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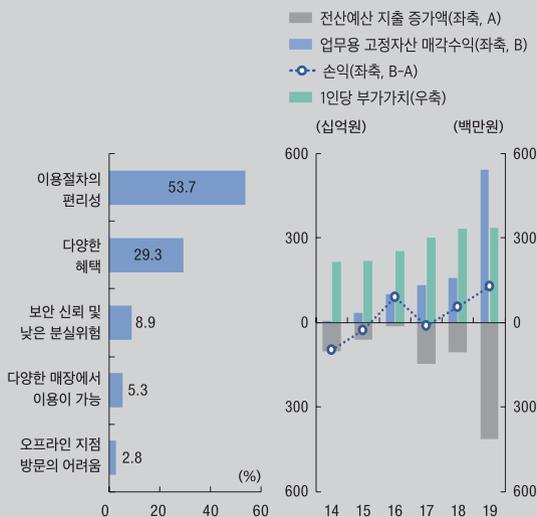
9) 2016년중 펀드 설정액이 0.1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19년중에는 2.0조원, 2020년 1~9월중에는 3.2조원이 늘어났다.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잠재리스크

비대면 금융거래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날수록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의 편리성과 다양성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비용 절감,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특히 은행의 경우 영업점 등 업무용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수익이 비대면 서비스 등과 관련한 전산예산 비용을 상회하고 있다.

모바일 금융거래 선호도¹⁾

업무용 고정자산 매각수익 및 전산예산²⁾ 비용



주: 1) 일반은행 고객 대상 모바일 뱅킹서비스 이용 이유 서베이 결과(20년 3월)

2) 전산 관련 자본예산, 기기 및 통신회선 이용료 등

자료: 한국은행,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금융정보추진협의회

하지만 비대면 금융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기존 금융산업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면서 다음과 같이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비대면 거래는 높은 IT 의존도로 인해 사이버·운영 리스크¹⁰⁾, 개인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등에 취약할 수 있다.

둘째, 비대면 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가계부실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비대면 방식으로 취급되는 P2P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일반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무담보·신용 대출의 경우 다중·취약차주 등의 대출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어 경기부진 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셋째, 핀테크·빅테크 기업 등이 직접 제공하는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금융시스템 내 비중이 커지고 있어 이들 기업과의 경쟁 심화는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¹¹⁾을 줄 수 있다. 금융기관들의 송금, 자산관리, 외환업무 등 수수료 기반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등 핵심업무에서도 영업기반이 잠식되어 수익이 감소¹²⁾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위험추구 강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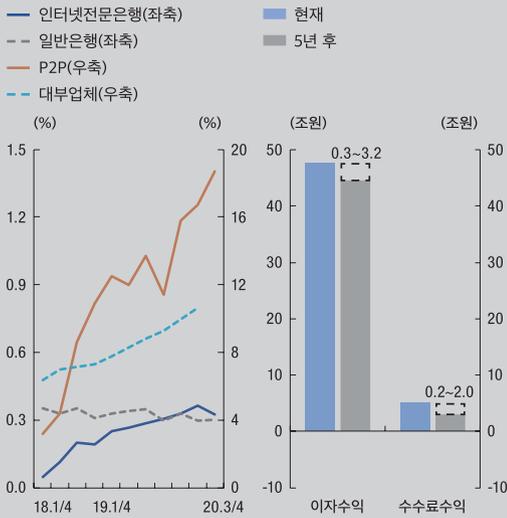
10) 자세한 내용은 <참고 7>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사이버리스크 대응현황 및 시사점」(96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IMF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결과보고서(20년 4월 발표)를 통해 향후 핀테크 발전으로 금융산업 내 경쟁이 심화될수록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자본조달비용이 증가하여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자본적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2) 경쟁 강도에 따라 핀테크 기업 영업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은행 영업규모가 감소하여 은행의 수익이 감소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경쟁관계가 10~100%일 때 5년 후 은행의 수익(이자+수수료)이 최소 0.5조원, 최대 5.2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한편 핀테크 기업의 이자 부문 성장률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및 P2P와 일반은행 간 대출 증가율 차이로, 수수료 부문은 최근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서비스(건수)와 일반은행의 전자금융거래(건수) 증가율 간 차이로 계산하였다.

P2P-인터넷전문은행
대출 연체율¹⁾

경쟁 심화시
은행의 수익 추정²⁾



주: 1) 기말 기준

2) 싱가포르통화청(MAS) 금융안정보고서(17년) 등을 참고하여 현재(19년) 대비 5년 후 일반은행의 수익을 추정

자료: 은행 업무보고서, 미드레이트,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시산

넷째, 금융시스템 내 상호연계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위기 발생시 관련 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에도 유념해야 한다. 핀테크 기업은 예금자 보호 및 부실자산 정리 등 금융안전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외부충격 발생시 대규모 고객자금 유출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기관으로 유동성리스크가 전염될 우려¹³⁾가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디지털금융 진전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대면 거래가 갖는 효익을 극대화하고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 산업의 변화, 핀테크 관련 국제논의 동향 및 주요국 대응사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위험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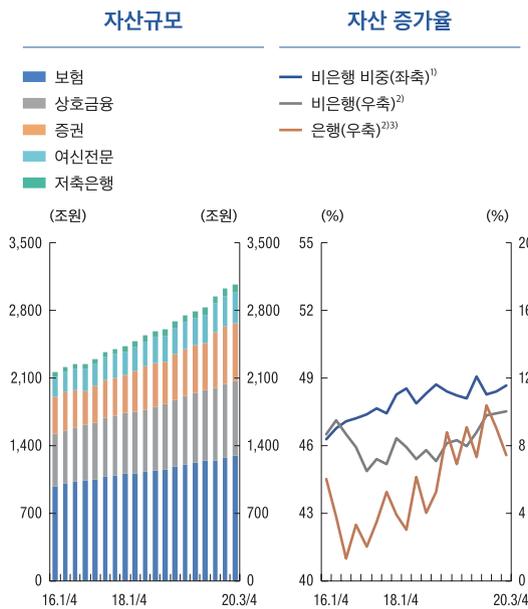
13) FSB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내 비중이 큰 상황에서 외부충격에 따른 지급불능사태 발생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Bigtech in finance: Market developments and potential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SB, 19년 12월).

2. 비은행금융기관

자산 성장세 지속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은 2020년 3/4분기말 기준 3,06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0% 늘어나며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금융권¹⁰⁾ 전체 총 자산(6,304조원)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분기말 48.7%로 전년 동기(48.1%)보다 0.6%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II-11).

그림 III-11.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 규모



주: 1) (비은행금융기관 자산) / (은행+비은행금융기관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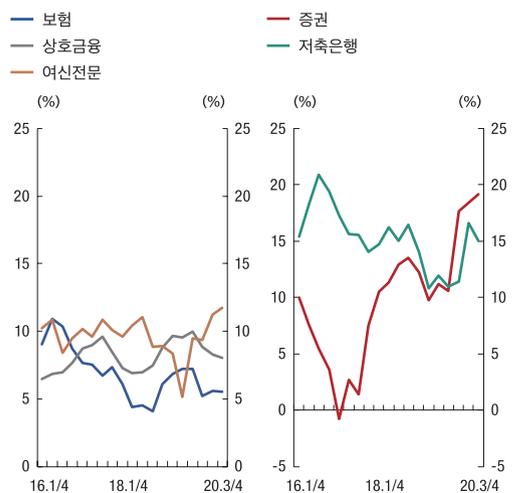
2) 전년동기대비

3) 일반은행 외에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업권별로 보면 2020년 3/4분기말 기준으로 증권회사가 전년동기대비 19.2% 증가하여 자산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금년 3월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진콜로 인해 외화유동성 부족을 겪은 증권회사는 외화예치금·증거금과 주식투자 관련 투자자예치금 등 현금성 자산이 크게 증가하였다.¹¹⁾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적 동기의 여유자금 운용, 사업다각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하였다.¹²⁾ 저축은행은 가계 및 기업 대출 모두 증가세가 확대¹³⁾ 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5.0% 늘어났다. 상호금융조합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¹⁴⁾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는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하는 데 그쳤다(그림 III-12).

그림 III-12.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 증가율¹⁾²⁾



주: 1) 전년동기대비

2) 증권회사는 미수금 제외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0)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을 포괄하며, 은행은 일반은행 외에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을 포함한다.

11)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식시장으로 대기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투자자예치금이 2020년 3/4분기말 전년동기대비 97.9% 증가하였으며, 주요국 증시 급락에 따른 ELS 관련 마진콜 발생으로 해외파생상품 관련 예치금·증거금이 47.0% 확대되었다.

12) 증권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코로나19 이후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는 등 자금조달운용에 변화가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 5> 「코로나19 이후 증권회사·여신사 자금조달운용 현황 및 시사점」(65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13) 저축은행은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이, 기업대출의 경우 금융·보험업 및 PF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관련 대출 동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4>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현황 및 시사점」(60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14) 상호금융조합의 기업대출 규모는 2020년 3/4분기말 19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5%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319조원으로 같은 기간중 1.7%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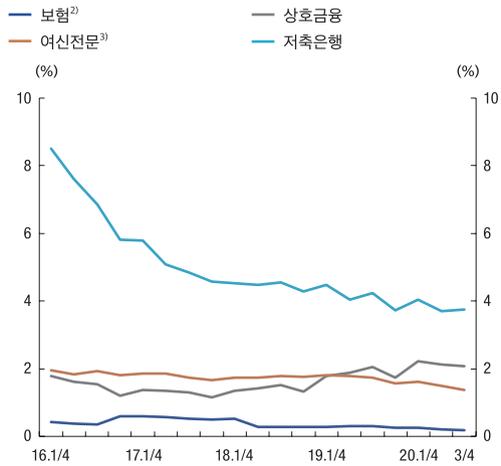
자산건전성 양호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대부분의 업권에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상호금융조합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모두 상승하면서 자산건전성이 저하되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0년 3/4분기말 각각 3.75%, 4.65%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49%포인트 및 0.45%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각각 1.38%, 1.49%로 각각 0.35%포인트 및 0.19%포인트 하락하였다. 보험회사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각각 0.20%, 0.15%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11%포인트 및 0.04%포인트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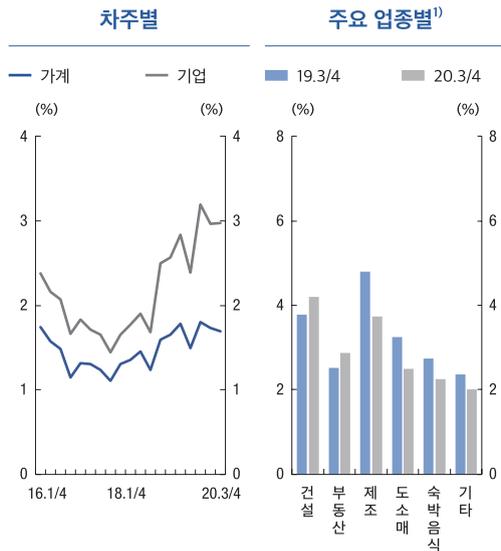
반면 상호금융조합¹⁵⁾의 2020년 3/4분기말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2.09%, 2.37%로 기업대출을 중심¹⁶⁾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03%포인트, 0.16%포인트 상승하였다. 주요 업종별로는 건설업·부동산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의 연체율이 높아졌다¹⁷⁾(그림 Ⅲ-13, 그림 Ⅲ-14, 그림 Ⅲ-15).

그림 Ⅲ-13. 비은행금융기관 연체율¹⁾



주: 1)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2) 보험약관대출 제외
3) 카드(판매신용 제외)·할부·리스자산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Ⅲ-14. 상호금융 대출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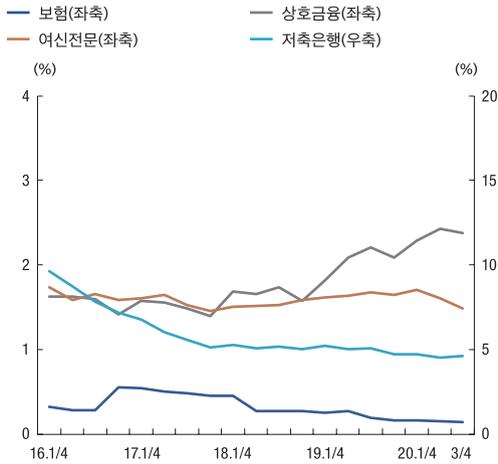
주: 1) 기업대출 기준, 새마을금고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5) 2020년 3/4분기말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연체율은 1.60%, 신탁은 3.33%, 새마을금고는 2.5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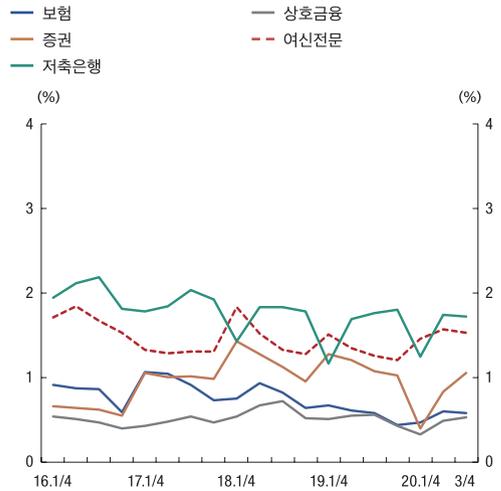
16) 2020년 3/4분기말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년동기대비 0.16%포인트(1.78% → 1.62%) 하락하였으나 기업대출은 0.14%포인트(2.83% → 2.97%) 상승하였다. 최근의 기업대출 건전성 저하 배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안정 상황」(20년 9월)의 <참고 5> 「상호금융 기업대출 건전성 현황 및 평가」(31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17)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제외) 기업대출의 주요 업종별 연체율은 건설업이 0.41%포인트(3.78% → 4.19%), 부동산업이 0.34%포인트(2.52% → 2.86%) 상승하였고, 제조업이 1.06%포인트(4.80% → 3.74%), 도소매업은 0.77%포인트(3.25% → 2.48%), 숙박음식업은 0.47%포인트(2.73% → 2.26%) 하락하였다.

그림 Ⅲ-15. 비은행금융기관 고정이하어신비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Ⅲ-16.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순이익률(ROA)¹⁾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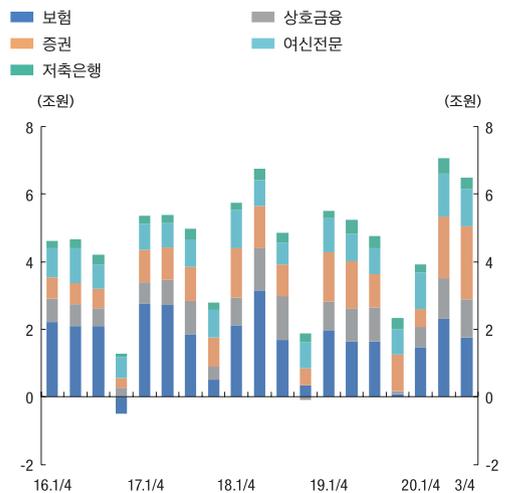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수익성 유지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업권별로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전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보험회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20년 1/4~3/4분기중 0.59%, 증권회사의 총자산순이익률은 1.06%¹⁸⁾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순이익률은 각각 1.72%, 0.53%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05%포인트, 0.03%포인트 하락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순이익률은 1.53%로 주로 카드사업 관련 비용 절감¹⁹⁾, 연체율 하락 등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0.27%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Ⅲ-16, 그림 Ⅲ-17).

그림 Ⅲ-17. 비은행금융기관 당기순이익¹⁾

주: 1) 분기중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8) 글로벌 주가지수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관련 손실이 크게 증가한 1/4분기 이후 주가 반등에 따른 유가증권 및 파생 관련 이익과 주식거래 활성화에 따른 수수료이익이 확대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나, 현금 및 예치금 등 수익률이 낮은 자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총자산순이익률 상승은 제한적이었다.

19)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여행 등 소비활동 위축 등으로 카드수익과 비용이 모두 감소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마케팅 및 카드모집비용 감소 등으로 카드비용(20년 1/4~3/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6.1%)이 카드수익(-0.2%)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다.

참고 4.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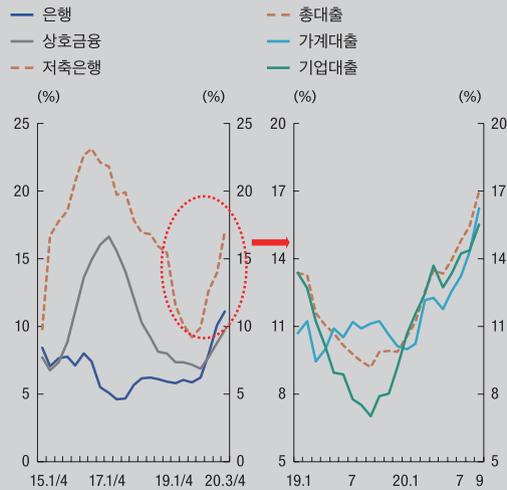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현황 및 시사점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은 업계 구조조정¹⁾이 마무리된 2015년 이후 여타 금융업권보다 높은 대출 증가율(15~19년중 연평균 16.7%, 은행 6.2%, 상호금융 10.3%)을 보였다. 2020년 9월말 저축은행 대출잔액은 73.2조원으로 구조조정 이전의 최대 수준(10년 5월말 65.5조원)을 10년만에 상회하였다. 저축은행 대출의 빠른 증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²⁾를 바탕으로 한 건조한 수신 증가에 기반한다. 저축은행 수신은 2015~19년중 연평균 15.3% 증가하여 여타 금융업권(은행 6.3%, 상호금융 8.3%)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금년 들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금융권의 대출 증가세가 확대(19년중 6.7% → 20년 9월말 10.1%)된 가운데 특히 저축은행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9.9% → 17.0%). 차주별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이하에서는 저축은행의 최근 대출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금융업권별 대출 증가율¹⁾

저축은행의 가계·기업 대출 증가율¹⁾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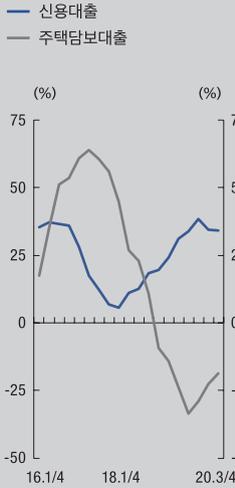
가계 : 중금리 신용대출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2020년 9월말 29.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은행 9.4%, 상호금융 -1.7%)하였으며, 특히 신용대출(18.6조원)이 34.1% 증가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위축³⁾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중금리 대출⁴⁾ 확대 방침⁵⁾에 따라 저축은행이 관련 대출 영업을 강화⁶⁾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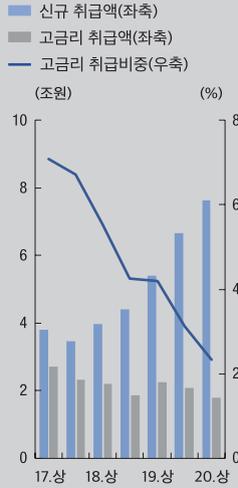
1) 저축은행 수는 PF대출 대규모 부실 등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2010년말 105개에서 2015년 1월말 79개까지 감소한 후 최근까지 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2015년 1월~2020년 9월중 저축은행 평균 수신금리(1년 정기예금)는 2.28%로 은행(1.70%) 및 상호금융(1.85%)에 비해 각각 58bp, 43bp 높은 수준이다.
3) 저축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2019년중 -33.6%, 2020년 9월말 -18.7%(전년동기대비)로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4)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로 중금리 대출의 인정 기준을 달리 정하였는데, 저축은행의 경우 가중평균금리 16% 이하(최고금리 19.5% 미만), 4등급 이하 차주에 대출 70% 이상 공급 등을 충족 시 중금리 대출로 간주한다.
5) 관련 규제상 유인책으로 중금리 대출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예외 인정(18년 10월), 고금리 대출(금리 20% 이상)에 대해 총당금 50% 추가 적립(17년 6월),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 산정 시 중금리 대출의 대출 가중치 150%로 확대(16년 9월) 등이 있다.
6)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중금리 신용대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외부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업체, 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 등과 업무 제휴하여 기존 신용평가시스템을 보완하였다.

르게 하락⁷⁾하면서 신규 신용대출 중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17년 상반기중 70.8% → 20년 상반기중 23.3%).

담보별 가계대출 증가율¹⁾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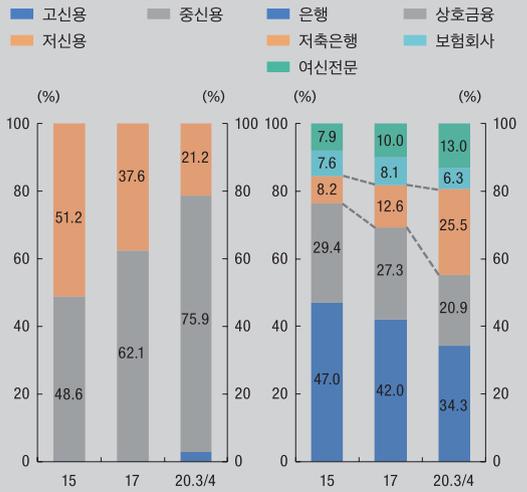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2) 반기중 신용대출 신규취급액 중에서 대출금리가 20% 이상인 대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중신용자 비중이 상승하였으며(15년말 48.6% → 20년 9월말 75.9%), 전체 중신용자 신용대출시장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점유율도 같은 기간중 3배 가량 크게 확대되었다(8.2% → 25.5%).

신용등급별 가계 신용대출¹⁾ 비중 업권별 중신용자 신용대출¹⁾ 비중



주: 1)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저축은행 규모별로는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이 가계 신용대출의 94.9%를 차지하며, 특히 대부계 및 외국계 대형 저축은행이 전체 신용대출 증가세를 견인⁸⁾하였다. 이들 대부·외국계 저축은행은 신용대출 비중(85.6%)이 크게 높고 BIS자기자본비율은 낮아⁹⁾ 손실흡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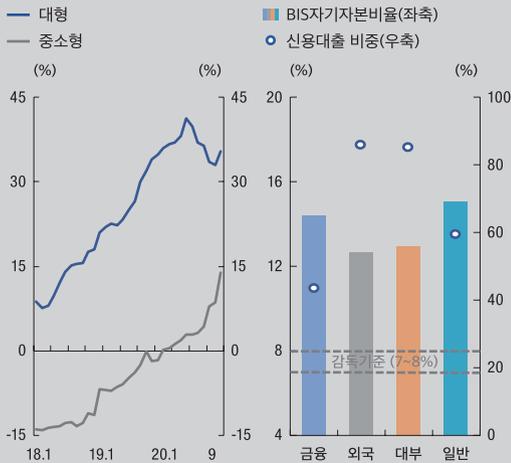
7) 2020년 9월중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16.8%로 최근 5년간 8.2%포인트 하락하였으며 같은 기간중 은행, 상호금융, 카드는 각각 1.5%포인트, 1.1%포인트, 1.6%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8) 전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에서 대형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9월말 86.2%이다. 2016년 1월~2020년 9월중 대부계 및 외국계 대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은 8.9조원 증가하여 같은 기간중 신용대출 증가액(12.1조원)의 73.2%를 차지한다.

9) 대부·외국계 대형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20년 9월말 12.8%로 여타 대형 저축은행(14.6%)이나 업계 평균(14.6%)에 비해 1.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자산규모별 가계 신용대출 증가율¹⁾

소유구조별 가계대출의 신용대출 비중 및 BIS비율²⁾



주: 1) 전년동기대비, 대형 저축은행은 2020년 9월말 자산규모 1조원 이상
 2) 2020년 9월말 기준, 일반계는 최대주주가 개인 및 비금융법인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편 2020년 9월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3.50%로 전년동기대비 0.43%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신용대출은 3.64%로 같은 기간중 0.65%포인트 하락하였다.

저축은행의 담보별 가계대출 연체율¹⁾

	2018년		2019년		2020년	
	3/4	4/4	1/4	2/4	3/4	3/4
가계대출 전체	4.65	3.92	3.58	3.83	3.41	3.50
신용대출	6.27	4.29	3.79	4.08	3.42	3.64
주택담보대출	1.76	2.92	3.04	3.25	2.86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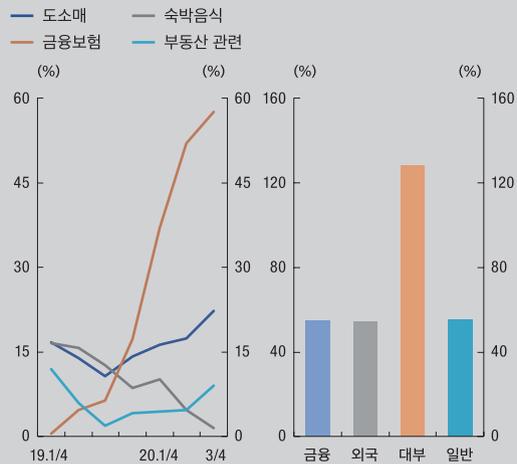
주: 1) 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업 :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PF 대출 증가

저축은행의 기업대출은 2020년 9월말 41.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대부업체 등 금융·보험업 대출¹⁰⁾이 2020년 9월말 전년동기대비 57.6% 급증하여 같은 기간중 기업대출 증가액(+5.5조원)의 절반 가량(46.7%)을 차지하였다. 특히 최대주주가 대부업 계열인 저축은행에서 금융·보험업 대출이 전년동기대비 128.1% 급증하였다. 대부업체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 저축은행은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에 대출하였는데, 담보로 설정한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권의 LTV 규제한도를 초과(20년 2월말)하였다.¹¹⁾ 이는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경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 업종별 기업대출 증가율¹⁾

저축은행 소유구조별 금융·보험업 대출 증가율²⁾



주: 1) 전년동기대비, 부동산 관련업은 부동산업 및 건설업 기준
 2) 2020년 9월말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0) 2020년 9월말 금융·보험업 대출잔액은 7.1조원으로 기업대출(41.1조원)의 17.2%를 차지한다.

11) 금융당국은 일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을 통한 금융권 LTV규제 우회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한 대부업체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의 경우 사실상 저축은행이 원주주에게 대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2020년 9월 2일 저축은행업 행정지도하였다.

또한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촉발한 바 있는 부동산PF 대출이 관련 규제 강화¹²⁾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9월말 PF대출 규모는 6.8조원으로 2011~14년중 대폭 감소¹³⁾하였다가 2015년 이후 연평균 23.1% 증가하였으며, 전체 대출 대비 PF대출 비중도 9.3%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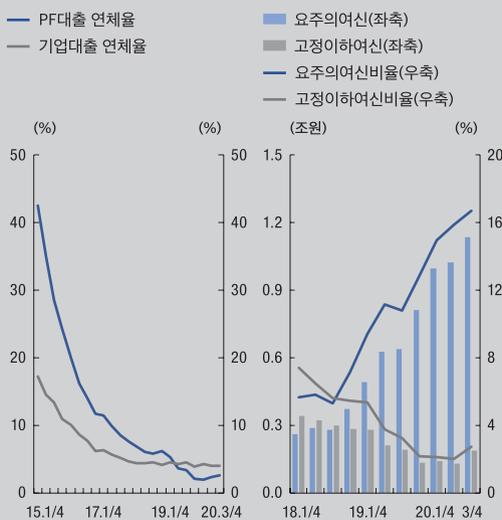
한편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0년 9월말 4.07%로 전년동기대비 0.51%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이 중에서 부동산PF 연체율은 2.56%로 같은 기간중 0.87%포인트 하락하였다. 다만, 부동산PF 여신 중에서 요주의여신이 2020년 9월말 1.1조원으로 2018년말(0.4조원) 이후 빠르게 증가¹⁴⁾함에 따라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격차 확대

지방 저축은행은 대출 증가세가 수도권 저축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¹⁵⁾이며 수익성, 건전성 등도 부진한 모습이다. 지방 저축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이 2020년 1~9월중 1.3%(연율)로 최근 수년간 하락한 반면, 연체율은 2018년 이후 상승 전환하였다.

지방 저축은행의 경영 부진은 지역경기 둔화에 주로 기인하는데, 특히 2018년 이후 기업대출 연체율이 부동산 관련 업종¹⁶⁾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4.8% → 6.3%). 지방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증가세 둔화 등으로 개선되었으나(16년말 14.2% → 20년 9월말 15.5%) 업체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며 지방 저축은행의 대부분은 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형 저축은행이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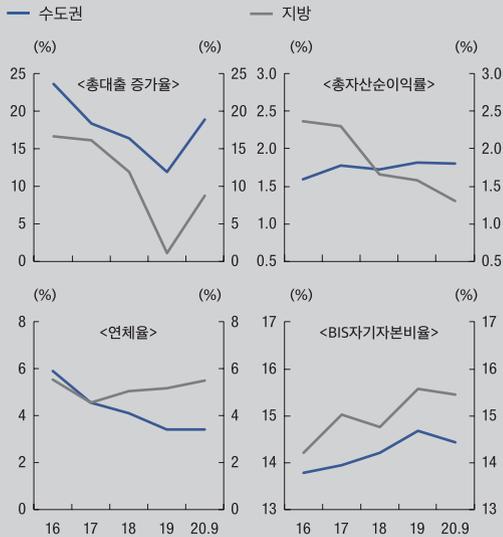
저축은행 기업대출 연체율¹⁾ 부동산PF 요주의여신비율¹⁾



주: 1) 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12) 과거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거치면서 총 여신의 PF여신 한도 축소(30% → 20%), 차주 자금으로 사업자금의 일정 비율(20%) 이상 조달 의무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사업성 평가결과 반영 등을 통해 부동산PF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다.
- 13) 저축은행의 PF대출은 2010년말 12.3조원에서 2014년말 2.1조원까지 감소하였다.
- 14) 부동산PF 총 여신의 요주의여신비율은 같은 기간중 7.2%에서 16.7%로 9.5%포인트 상승하였는데, 이는 일부 PF 사업장의 분양률 부진에 따른 사업성 평가등급 하향, 차주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15) 수도권 저축은행의 대출이 2020년 9월말 전년동기대비 18.9% 증가한 반면 지방 저축은행은 8.7% 증가에 그쳤으며, 지방 저축은행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말 20.8%에서 2020년 9월말 16.9%까지 하락하였다.
- 16) 2020년 9월말 저축은행 기업대출에서 부동산업 및 건설업 비중은 45.0%이며,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동 비중은 47.1%이다.
- 17) 2020년 9월말 지방 저축은행의 업체별 BIS자기자본비율은 최소 9.9%에서 최대 44.3%이며 자기자본 규모(평균 545억원)는 수도권 저축은행의 26.6% 수준이다.

지역별 저축은행 경영현황¹⁾



주: 1) 총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총자산순이익률은 누적 분기의 연율 환산, 연체율 및 BIS자기자본비율은 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있으므로 내부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PF 관련 익스포저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¹⁹⁾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요주의 여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부실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나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선제적인 자본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급이 가계부채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

시사점

그간 구조조정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저축은행의 대출이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이는 중·저신용 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연체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자본비율도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건전성도 양호하다. 특히 중금리 신용대출의 활성화는 저축은행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절감 등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향후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최근의 빠른 대출 증가세가 리스크 요인¹⁸⁾이 될 수

18) 저축은행 가계대출의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 기준) 비중은 2020년 6월말 23.8%로 은행(3.4%), 상호금융(5.3%), 보험회사(7.1%), 여신전문금융회사(13.3%)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경기 변화의 영향이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클 수 있다.

19) 2011년 2/4분기말 저축은행 부실화 사태 당시 PF 관련 익스포저(전체 대출 대비 비중)는 20.3%에 달하였다.

참고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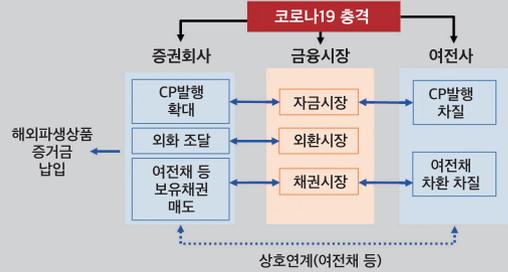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증권회사·여전사 자금조달운용 현황 및 시사점

금년 3월 코로나19 확산 시 금융기관 중에서도 증권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받은 충격이 두드러졌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 전후 증권회사 및 여전사의 자금조달운용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코로나19 확산과 증권회사·여전사의 충격 증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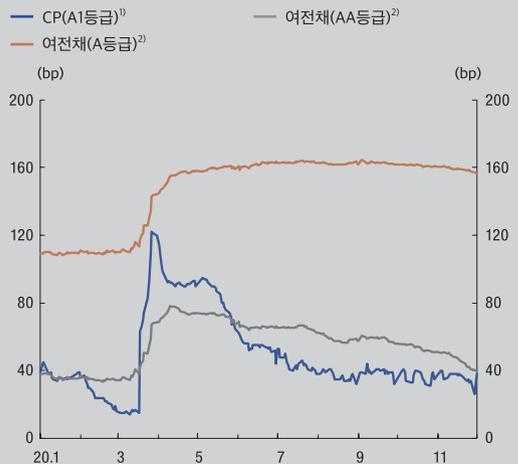
증권회사와 여전사는 시장성자금 의존도가 높은¹⁾ 금융기관으로서 유동성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또한 그간 양호한 금융시장 여건이 지속되면서 상황 악화 시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회사의 유동성리스크는 코로나19 확산 충격을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킨 주된 경로로 작용했다. 해외 주가 급락으로 ELS 관련 미 달러화 증거금 납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증권회사가 원화·외화자금 조달을 긴급하게 확대하면서 자금, 외환, 채권 시장으로 충격이 확산·증폭되었다.²⁾ 또한 증권회사의 여전사 발행 채권(이하 '여전채') 보유 확대³⁾로 증권회사와 여전사 간의 연계성이 높아진 가운데, 증권회사의 여전채 등 채권 매도 및 CP 발행 확대는 여전사의 유동성 상황을 악화시켰다.

코로나19에 따른 증권회사·여전사 충격 파급 경로



이후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정책대응으로 금융시장은 조기에 안정을 되찾았고 증권회사, 여전사의 유동성 사정도 크게 개선되었다. 다만 일부 중·저신용등급(A등급 이하) 여전사의 경우 신용스프레드가 3월 이후에도 높게 유지되는 등 자금조달에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CP-콜 스프레드 및 여전채 신용등급별 신용스프레드



주: 1) 콜금리 대비. 91일물 기준

2) 국고채 대비. 3년물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 2019년말 현재 총부채 대비 시장성자금 비중은 여전사 73.6%, 증권회사(투자자예수금 제외 기준) 20.6%로 여타 비은행금융기관(1% 내외) 대비 높은 수준이다.
- 한편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안전자산 선호와 현금 선호가 대두되면서 시장 불안이 발생했다. 주가 하락 및 신용스프레드 급등으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급격히 축소함에 따라 일부 MMF 및 회사채 펀드에서 환매요청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파생상품 증거금 납입(마진콜) 수요가 급증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이번 시장 불안이 투자펀드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금융시스템 내 영향력이 확대된 데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증권회사의 여전사에 대한 익스포저는 2015년말 23.2조원에서 2019년말 38.6조원으로 66.5% 증가하였으며, 여전사의 증권회사에 대한 익스포저는 2019년말 3.3조원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증권회사, 여전사의 자금조달운용 현황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충격을 겪은 이후에도 증권회사와 여전사는 견조한 자산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증권회사는 2020년 1~9월중 자산증가율(연율 기준, 이하 동일)이 31.5%로 여타 금융업권을 크게 상회하였다.

(증권회사 : 위험투자 및 시장성자금 의존도 축소)

자금운용 측면에서 증권회사는 현금성 자산이 크게 증가했다. 미 달러화 증거금 납입 등의 영향으로 외화예치금·증거금이 2020년 1~9월중 149.7% 증가하였으며, 국내외 주식시장 호조로 인한 주식투자자금 유입으로 고객예치금과 신용공여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그간 빠른 증가세를 보였던 외화증권, 투자펀드, 주식 등 위험자산⁴⁾ 투자는 코로나19 이후 투자 여건 악화 및 규제 강화 등으로 크게 위축되었다.⁵⁾ 채권 투자의 경우에도 국채 등 저위험 채권 투자 증가⁶⁾가 두드러졌다.

증권회사 관련 최근 주요 규제 강화

분야	주요 내용
RP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비율 ○ 최소증거금률(헤어컷) 적용
부동산P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회사의 PF채무보증 한도 설정 ○ 종투사의 PF대출 관련 혜택 폐지
파생결합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상환 기준 만기로 유동성비용 내실화 ○ 원금비보장형 관련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 ○ 외화자산 관련 헤지자산 분산투자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자본성 장기조달인 후순위채 발행⁷⁾이 늘어난 가운데,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성 자금조달 의존도⁸⁾가 감소하였다. 대표적인 시장성 자금조달인 기관간 RP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신성자금인 대고객 RP에 의한 자금조달이 확대되었다.⁹⁾ 한편 발행어음은 빠른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2020년 1~9월중 10.4% 감소(16~19년중 연평균 4.7% 증가)로 전환하였다.

증권회사 주요 자산·부채증가율

(%, 조원)

계정	2016~19년 ¹⁾	2020년 1~9월 ²⁾	2020년 9월 말잔
현금 및 예치금	4.8	77.3	116.1
(고객예치금)	5.3	118.5	60.2
(외화예치금·증거금)	-9.8	149.7	10.9
유가증권	9.0	10.9	342.8
(채권)	8.6	23.9	65.0
대출채권	16.6	21.0	56.6
(신용공여금)	11.1	34.2	33.7
(기업대출금)	25.8	4.9	22.9
자산 계	8.8	31.5	597.1
예수부채	10.1	97.4	82.2
(고객예수금)	7.9	107.2	77.7
차입부채	8.9	14.5	363.7
(단기차입) ³⁾	23.6	22.9	27.4
(RP매도)	5.0	27.8	147.1
(매도파생결합증권)	4.7	-10.4	104.2
(발행어음)	46.8	36.6	17.4
자본	7.7	10.0	66.4
부채·자본 계	8.8	31.5	597.1

주: 1) 연평균 2) 연율화 3) 롤, CP, 단기사채의 합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연합인포맥스

- 4) 위험자산은 신용·시장리스크 등을 수반하는 투자상품으로서 증권회사의 자기매매와 파생결합증권 운용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5) 외화증권, 투자펀드,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는 2016~19년중 높은 연평균 증가율(각각 42.4%, 35.9%, 19.9%)에서 2020년 1~9월중 감소(각각 -3.3%, -21.4%, -12.2%)로 반전했다.
- 6) 2020년 1~9월중 국채·지방채, 특수채, 금융채의 증가율(114.1%, 17.1%, 37.5%)이 2016~19년중 연평균 증가율(7.9%, 1.7%, 25.4%)을 상회했으며, 회사채는 18.8% 증가하여 2016~19년중 연평균 증가율 20.0%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7) 후순위채 발행잔액은 2020년 1~9월중 39.5% 증가하여 2016~19년중 연평균 5.9%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 8) 총부채 중 시장성 자금조달(후순위채 제외 증권채, 기관간 RP, 롤, CP, 단기사채의 합계)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2019년말 20.6%에서 2020년 9월말 18.4%로 감소했다.
- 9) 기관간 RP매도잔액은 2020년 1~9월중 0.5% 증가에 그쳐 2016~19년중 연평균 49.7% 증가율을 크게 하회한 반면, 대고객 RP매도잔액은 2016~19년중 연평균 2.1% 감소에서 2020년 1~9월중 40.2% 증가로 전환했다.

(여전사 : 현금성 자산 증가 및 단기조달 일부 확대)

자금운용 측면에서 여전사도 예비적 동기의 여유자금 운용을 크게 확대했다. 현금 및 예치금은 2020년 1~9월중 80.7% 증가하여 예년의 증가율(16~19년중 연평균 2.8%)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유가증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카드사는 주로 MMF 등 안정적인 수익증권이 증가하였으며 캐피탈사의 경우 투자수익 확보 목적의 유가증권 보유¹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간 여전사는 저금리,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기초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카드사는 카드사업 비중을 줄이고 할부금융·리스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¹¹⁾했다. 캐피탈사는 상대적으로 고수익·고위험 자산인 대출, 투자금융 영업을 강화¹²⁾했는데, 이러한 포트폴리오 조정은 운용자산의 만기를 장기화시켜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차입부채의 60% 내외를 차지하는 장기 여전채 발행이 예년보다 다소 둔화¹³⁾되었다. 카드채의 경우 예년 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중·저신용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이어지면서 캐피탈채 발행이 부진했다. 이에 대응하여 캐피탈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장기차입을 확대했으며, 특히 A등급 이하 캐피탈사는

단기자금조달도 다소 확대¹⁴⁾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전사 주요 자산·부채증가율

(%, 조원)

계 정	2016~19년 ¹⁾	2020년 1~9월 ²⁾	카드		2020년 9월 말잔
			카드	캐피탈	
현금 및 예치금	2.8	80.7	125.2	55.3	11.9
유가증권	17.5	27.5	47.9	19.6	24.2
대출채권	11.3	10.0	37.9	9.0	85.6
카드자산	7.3	3.1	3.1	-	104.6
할부금융·리스자산	10.4	9.2	24.6	6.5	75.2
자산 계	9.5	10.5	10.2	10.7	315.1
차입부채	11.1	10.1	8.7	11.0	229.0
(단기차입금)	-5.5	3.9	-11.4	6.7	12.7
(장기차입금)	12.4	24.2	6.1	45.7	28.1
(단기사채)	-11.3	45.8	73.3	22.4	3.5
(장기사채)	14.6	7.2	9.7	5.7	138.9
자본	6.3	7.6	4.7	10.8	55.1
부채·자본 계	9.5	10.5	10.2	10.7	315.1

주: 1) 연평균

2) 연율화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0) 대체투자 등에 투자하는 투자금융 사업이 확대되면서 캐피탈사의 유가증권은 2016~19년중 연평균 20.1%, 2020년 1~9월중 19.6% 증가하는 등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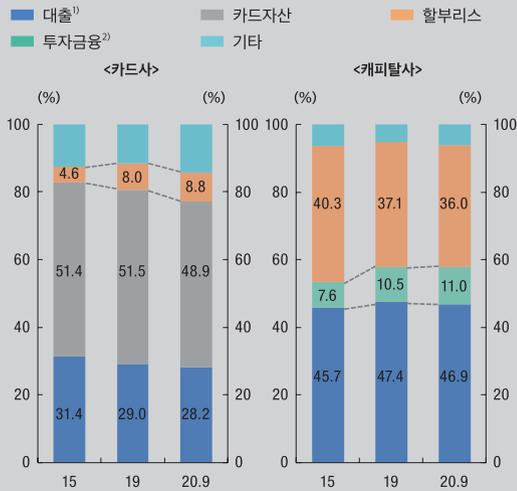
11) 카드자산은 2020년 1~9월중 3.1% 증가하면서 2016~19년중 연평균 증가율 7.3%를 하회한 반면, 할부금융·리스자산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말 4.6%에서 2020년 9월말 8.8%로 2배 가량 확대되었다.

12) 캐피탈사의 할부금융·리스자산 비중은 2015년말 40.3%에서 2020년 9월말 36.0%로 축소된 반면, 투자금융 및 대출자산은 동 기간중 53.3%에서 57.9%로 확대되었다.

13) 장기사채가 2020년 1~9월중 7.2% 증가하면서 2016~19년중 연평균 증가율 14.6%를 하회했다.

14) 장기채보다 만기 1년 내외의 단기자금 조달이 증가하면서 A+ 이하(선순위 회사채 기준) 캐피탈사는 단기조달비중(단기차입금 및 만기 1년 이내 도래 사채/차입부채)이 2020년 9월말 27.3%로 전년말 대비 2.6%포인트 상승(전체 여전사 0.9%포인트 상승)했다.

여전사 자산구성 변화



주: 1) 대출채권, 카드자산 중 카드론, 현금서비스 포함

2) 유가증권, 신기술금융자산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시사점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성 충격을 겪은 이후 증권회사와 여전사는 현금성 자산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유동성리스크 대응능력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도 코로나19 충격으로 리스크가 부각된 개별 부문을 중심으로 규제 강화를 추진 중¹⁵⁾이다.

그러나 일부 유동성 관리 개선과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와 여전사는 금융시장 의존도가 높은 영업모델 특성상 다양한 요인의 유동성 충격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비은행 금융중개 활동이 크게 발달한 미국 등의 경우 그간의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번 충격시 MMF, 회사채 투자펀드의 대규모 환매, 마진콜 발생 등의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면서 관련 금융기관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의 자금경색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증권회사, 여전사의 성장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잠재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부문별 리스크관리에서 전체 자금조달운용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권회사는 리스크가 부각된 부동산PF 및 파생결합증권은 물론,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여온 해외투자를 포함하여 보다 엄격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사는 사업다각화에 따른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확대 등의 리스크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한 자금조달계획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번 충격시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대규모 시장개입이 불가피하였으나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적인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위기시에도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5) 금융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20년 7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20년 7월)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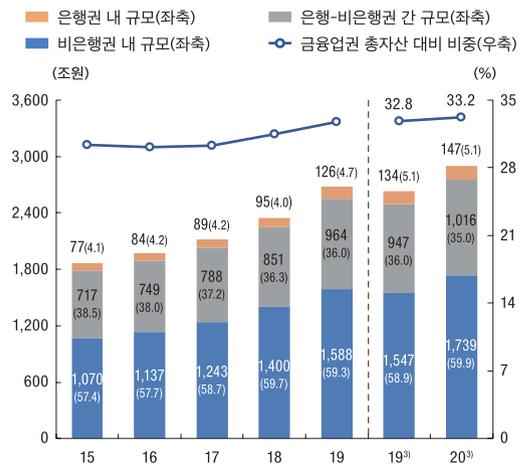
3. 상호연계성

상호거래 증가세 지속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²⁰⁾는 2020년 2/4분기말 2,90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4% 늘어났다.²¹⁾ 금융부문의 총자산(8,736조원, 자금순환통계 기준)에서 상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2/4분기말 32.8%에서 2020년 2/4분기말 33.2%로 0.4%포인트 상승하였다.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를 은행권 내, 은행·비은행권 간 및 비은행권 내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은행권 내 거래가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을 중심으로²²⁾ 전년동기대비 12.4%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은행권 내 거래는 9.9%, 은행·비은행권 간 거래는 7.2% 증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 상호거래에서 비은행권 내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2/4분기말 58.9%에서 2020년 2/4분기말 59.9%로 높아진 반면, 은행·비은행권 간 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중 36.0%에서 35.0%로 낮아졌다. 한편, 은행권 내 거래 비중은 전년동기(5.1%)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그림 III-18).

그림 III-18. 금융기관-업권 간 상호거래 현황¹⁾²⁾



주: 1) 상호거래 규모는 자금순환통계 기말 기준

2) () 내는 전체 상호거래 규모 대비 비중

3) 각 연도 2/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업권별로 보면 국내은행, 증권, 신탁 및 투자펀드가 업권간 상호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 2/4분기말 현재 국내은행·신탁 간 상호거래 규모가 231.8조원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국내은행·증권(193.6조원), 보험·투자펀드(182.2조원), 증권·신탁(166.4조원)의 순으로 나타났다²³⁾(그림 III-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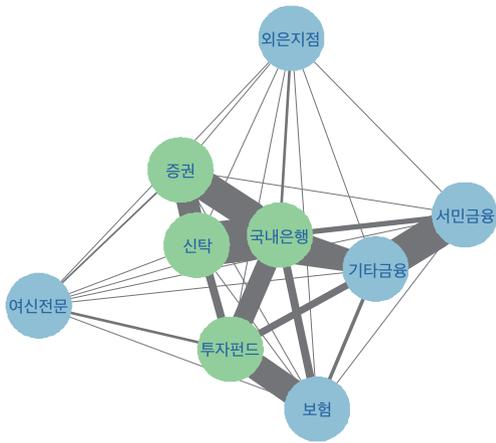
20) 자금순환통계의 금융자산부채 잔액표, 현금 및 예금 명세서, 차입금 명세서, 유가증권 보유명세서 등 주요 조사표를 활용하여 예금, 대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된 48개 금융상품과 19개 개별은행, 34개 금융업권 및 9개 기타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금융안정 현안 분석> 「III. 은행시스템 상호연계성 분석 및 횡단면 시스템 리스크 측정」(114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21)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규모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17년 2/4분기말 6.5% → 2018년 2/4분기말 8.0% → 2019년 2/4분기말 14.0% → 2020년 2/4분기말 10.4%이다.

22) 비은행권 내 상호거래 규모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액(191.8조원) 중 증권업권 내 상호거래 증가폭(44.2조원)이 가장 컸으며, 이는 개인의 주식 및 공모주 청약 자금 유입 등으로 고객예탁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19년 2/4분기말 24.7조원 → 20년 2/4분기말 46.3조원) 자금 운용이 커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3) 2020년 2/4분기말 현재 상호거래 규모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액은 증권업권 내 44.2조원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국내은행·증권(27.6조원), 보험·투자펀드(23.7조원), 국내은행·투자펀드(23.2조원), 증권·신탁(13.7조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9. 금융업권 간 상호연계 구조¹⁾²⁾³⁾⁴⁾



주: 1) ●은 상호거래 규모 기준 상위 4개 업권
 2)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 기법을 활용한 상호연계 구조로서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중앙성, 집중도, 선 굵기 등이 크게 나타남
 3) 신한은 은행·증권·보험회사의 신탁계정, 서민금융은 새마을금고·신탁·저축은행 등, 기타금융은 각 서민금융기관 중앙화·공적금융기관·지주회사 등
 4) 2020년 2/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업권 간 상품별 상호거래 현황을 보면 주로 예금 및 채권을 통해 상호거래가 이루어졌다. 2020년 2/4분기말 현재 예금 및 채권을 통한 상호거래 비중은 각각 23.4% 및 22.2%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6%포인트, 0.7%포인트 상승하였다.²⁴⁾ 반면 주식을 통한 상호거래 비중은 19.7%로 0.5%포인트 하락하였다(표 III-1).

표 III-1. 금융업권 간 상품별 상호거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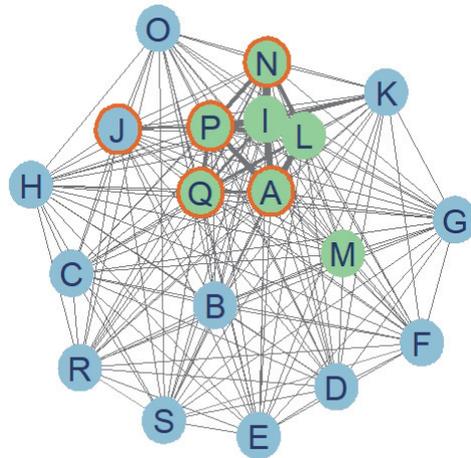
(조원, %, %p)

상품	2019년 2/4분기말		2020년 2/4분기말		B-A
	규모	비중(A)	규모	비중(B)	
예금	599.2	22.8	680.0	23.4	0.6
채권	566.3	21.5	643.0	22.2	0.7
주식 ¹⁾	529.9	20.2	570.6	19.7	-0.5
대출	133.2	5.1	147.1	5.1	0.0
RP	122.9	4.7	140.7	4.8	0.1
파생	68.7	2.6	80.4	2.8	0.2

주: 1) 주식에는 투자펀드지분, 추가연계증권(ELS) 등이 포함
 자료: 한국은행

한편 국내은행 간 상호연계 구조를 보면 일부 시중 및 특수 은행을 중심으로 연계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20).

그림 III-20. 국내은행 간 상호연계 구조¹⁾²⁾³⁾



주: 1)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 기법을 활용한 상호연계 구조로서 은행간 상호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중앙성, 집중도, 선 굵기 등이 크게 나타남
 2) ○은 D-SIB, ●은 상호거래 기준 상위 7개 은행
 3) 2020년 2/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24) 주로 고객예탁금 증가에 따라 증권업권의 예금과 채권 운용액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상품별로는 채권이 전체 국내은행 간 상호거래에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하여 전년 동기대비 상승폭(6.7%포인트)도 가장 컸다.²⁵⁾ 반면 대출 비중은 18.7%로 전년동기대비 0.8%포인트 하락하였다(표 III-2).

표 III-2. 국내은행 간 상품별 상호거래 규모

(조원, %, %p)

상품	2019년 2/4분기말		2020년 2/4분기말		B-A
	규모	비중(A)	규모	비중(B)	
채권	71.7	53.5	88.7	60.2	6.7
대출	26.2	19.5	27.6	18.7	-0.8
파생	5.9	4.4	6.8	4.6	0.2
예금	6.8	5.1	4.7	3.2	-1.9
주식	4.4	3.3	4.0	2.7	-0.6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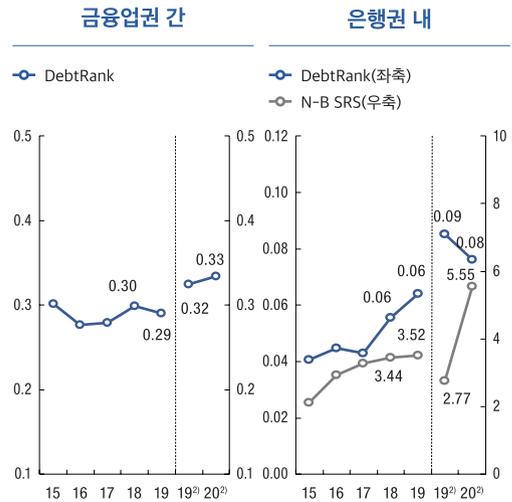
부실전염 리스크 증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구조를 토대로 부실전염 및 집중도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부실전염 리스크가 증가한 반면 집중도 리스크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부실전염 리스크 지표인 DebtRank²⁶⁾의 경우 금융업권 간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은행권 내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염리스크 총량 지표인 은행권 내 N-B SRS²⁷⁾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은행채 스프레드 확대²⁸⁾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그림 III-21).

그림 III-21. 부실전염 리스크¹⁾



주: 1) 기말 기준

2) 각 연도 2/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25)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금융지원 확대로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채 발행액이 큰 폭으로 증가(19년중 6.7조원 → 20년 상반기중 27.9조원, 순발행액 기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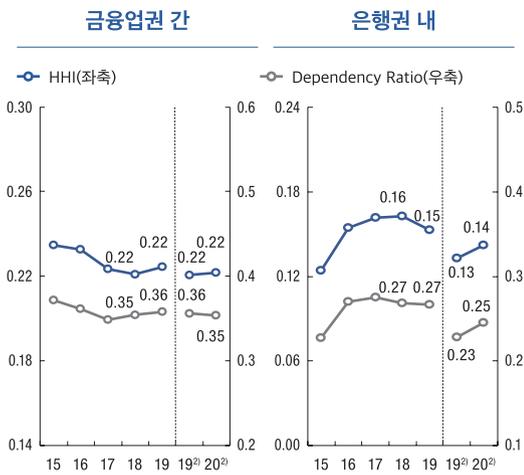
26) 특정 업권(은행)의 도산에 따른 충격이 거래상대방에게 상호거래 익스포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손실 합계가 전체 금융(은행)권 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업권(은행)별로 계산하고 이를 단순 평균한 값이다. DebtRank 0.05는 특정 업권(은행)의 도산에 따른 손실이 평균적으로 금융(은행) 전체 운용자산 대비 5%의 손실을 초래함을 의미한다(Battiston et al., "DebtRank: Too Central to Fail? Financial Networks, the Fed and Systemic Risk", 2012).

27) Network-Based Systemic Risk Scoring는 특정 은행의 도산 확률(은행채 스프레드로 추정)이 여타 은행과의 상호거래 익스포저를 통해 확대되어 나타나는 리스크 총량으로서 거래관계에 있는 두 은행의 부도확률과 상호거래 규모를 곱한 값을 모든 거래조합에 대해 산출 후 합산한 값의 제곱근으로 정의한다(Das, "Matrix Metrics: Network-Based Systemic Risk Scoring", 2015).

28) 2020년 2/4분기중 은행채(AAA, 3년) 평균 스프레드(국고채 3년물 대비)는 29.4bp로 전년동기(15.4bp)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집중도 리스크를 나타내는 HHI지수²⁹⁾와 단일 거래상대방 의존율(Dependency Ratio)³⁰⁾은 금융업권 간에서 전년동기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은행권 내에서는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III-22).

그림 III-22. 집중도 리스크¹⁾



주: 1) 기말 기준

2) 각 연도 2/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29) 각 업권(은행) 단위로 여타 업권(은행)과의 거래비중 제곱 합을 산출한 후 가중평균한 값으로,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한다.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비중과 가중치는 자금융용 거래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30) 각 업권(은행) 단위로 거래 규모가 가장 큰 업권(은행)과의 거래비중을 산출한 후 가중평균한 값으로,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한다.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비중과 가중치는 자금융용 거래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IV. 자본유출입

2020년 1~11월중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주식 자금은 순유출된 반면, 채권자금은 순유입되었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금년 9월까지 국내외 코로나19 전개양상 등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유출되었으나 10월 이후에는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유입세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 채권자금은 1~7월중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등에 따라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입되었다가 9월 이후에는 차익거래유인 축소, 만기상환 규모 확대 등으로 소폭의 유출세를 나타냈다.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순투자 규모는 축소되었다. 주식은 일반정부, 기타금융기관 및 개인이 순투자를 견인하였으나, 채권은 글로벌 저금리 기조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투자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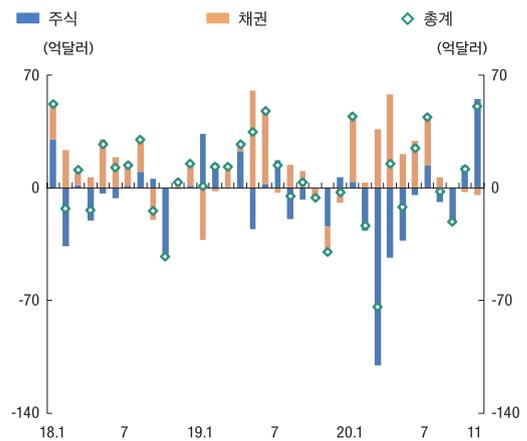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증가세 지속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¹⁾는 2020년 1~11월중 58억달러(주식 -161억달러, 채권 219억달러) 순유입되었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연초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 등에 따른 대규모 유출²⁾이 진정된 이후 주요국의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유출 규모는 축소되었다. 10월 이후에는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전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국내 경제지

표 개선, 주가 상승 및 원화 강세 등으로 유입되고 있다.

외국인 채권자금은 1~7월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 등으로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입되었다. 그러나 8월부터 공공자금의 유입이 둔화된 가운데 9월 이후에는 차익거래유인 축소³⁾ 등에 따른 민간자금의 유입 부진, 만기상환 규모 확대⁴⁾ 등으로 외국인 채권자금은 소폭의 유출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IV-1).

그림 IV-1.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증감¹⁾



주: 1)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투자주체별로는 주식자금은 글로벌 펀드 등 민간자금이, 채권자금의 경우 공공자금이 유출입 변동을 주도하였다(그림 IV-2, 그림 IV-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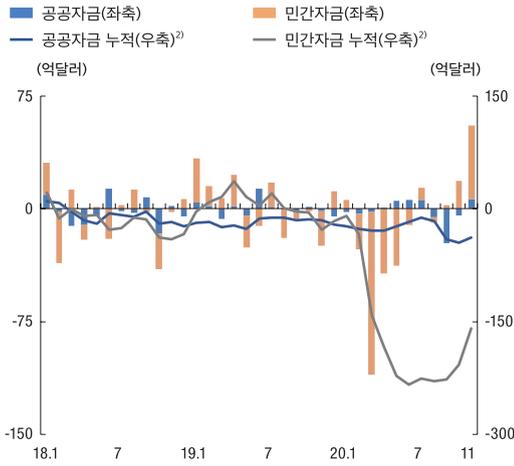
1) 주식은 상장주식(KOSPI·KOSDAQ)의 장내·외 거래 및 기업공개(IPO)를 포함하며(단, ETF·ELW·ETN 등 제외), 채권은 상장채권의 장내·외 거래 기준(RP거래 및 만기도래분 반영)이다.

2) 특히 3월중 주식자금 유출 규모는 110.4억달러로 2007년 8월 유출 규모(-99.9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3) 차익거래유인(3개월물 기준, 기간중 일평균)은 8월 50bp에서 9월 44.8bp, 10월 45.5bp, 11월 35.9bp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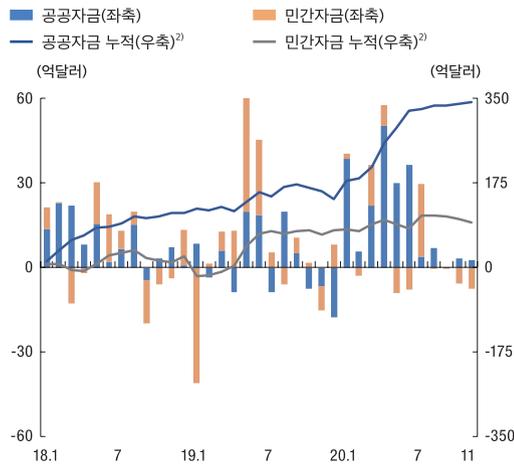
4) 2020년 9~11월중 월평균 만기상환 규모는 45억달러 수준이다(20년 1~8월중 평균 28억달러).

그림 IV-2. 투자주체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증감¹⁾



주: 1)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2) 2018년 1월 이후 월별 순유입액의 누적 합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V-3. 투자주체별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증감¹⁾



주: 1)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2) 2018년 1월 이후 월별 순유입액의 누적 합계
 자료: 한국은행

2020년 11월말 외국인 주식투자 잔액은 675조 원으로 시가총액⁵⁾의 3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말(33.8%)보다 2.1%포인트 하락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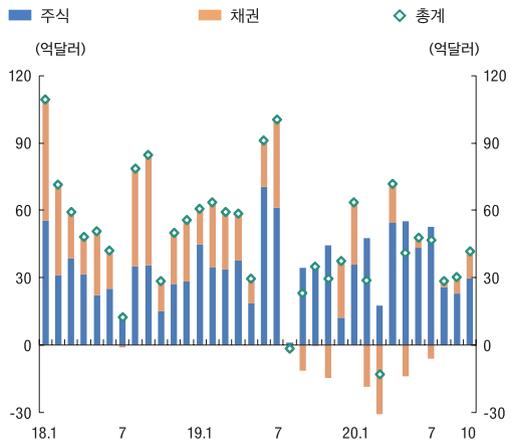
준이다. 한편 외국인 채권투자 잔액은 150조원으로 전체 상장채권잔액 대비 비중은 6.7%이며 전년말(6.2%)보다 0.5%포인트 상승하였다.

향후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강화 등이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가폭 축소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2020년 1~10월중 386억달러(주식 384억달러, 채권 2억달러) 증가하여 전년동기(519억달러)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133억달러)되었다(그림 IV-4). 한편 2020년 9월말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잔액은 6,326억달러이며, 이 중 주식은 3,978억달러, 채권은 2,349억달러를 차지하였다.

그림 IV-4.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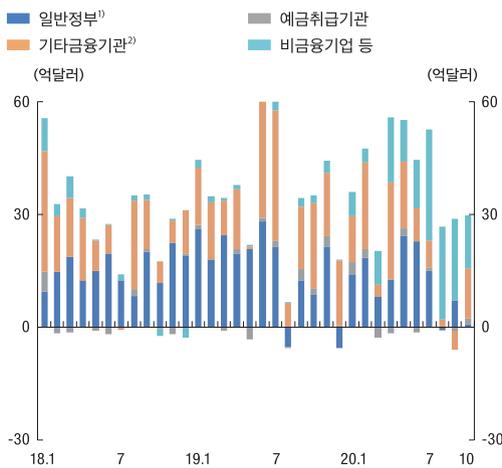


주: 1) '+'는 순투자, '-'는 순회수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5)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합계 기준이다.

투자주체별로 보면, 주식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반정부(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와 기타금융기관(자산운용회사 등)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7월 이후에는 개인의 해외주식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비금융기업(개인, 민간기업 등)이 증가세를 견인하였다(그림 IV-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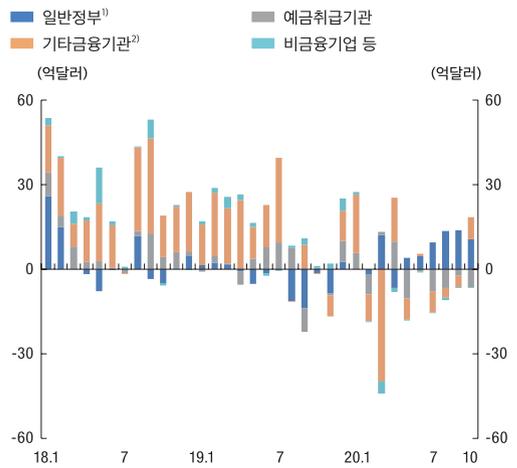
그림 IV-5. 거주자 해외 주식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주: 1)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
2)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자료: 한국은행

채권은 글로벌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수익률 저하 등으로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전체 해외채권투자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그림 IV-6).

그림 IV-6. 거주자 해외 채권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주: 1)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
2)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자료: 한국은행

향후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방향⁶⁾에 따라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개인의 해외주식투자도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 등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6) 「2021~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해외주식투자 비중을 2020년말 22.3%에서 2021년말 25.1%로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2025년말에는 35% 내외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채권투자 비중의 경우 2020년말 5.5%에서 2021년말 7.0%, 2025년말에는 10% 내외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원력

Ⅰ. 금융기관	79
Ⅱ. 대외지급능력	90
Ⅲ. 금융시장인프라	93

1. 금융기관

일반은행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바젤Ⅲ 개편안 조기 도입으로 상승하였다. 자금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율은 하락하였으나 모든 은행이 규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대부분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비율이 상승하였으며,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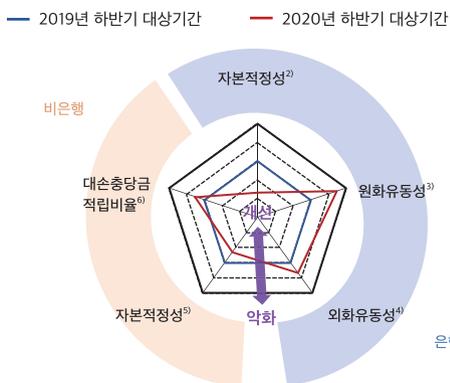
향후 실물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대출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노력을 지속하여 안정적인 수준의 복원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그림 I-1).

1. 은행

손실흡수능력 양호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바젤Ⅲ 개편안 조기 도입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하였다.¹⁾ 총자본비율은 2020년 3/4분기말 17.24%로 전년말(15.89%)보다 1.35%포인트, 보통주자본비율도 14.40%로 1.24%포인트 상승하였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의 총자본비율이 2020년 규제기준(10.5%, D-SIB²⁾ 11.5%, 인터넷전문은행(8.625%)을 크게 상회하였다. 예상손실에 대한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132.6%로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으로 전년말(116.2%) 대비 16.4%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2).

그림 I-1. 금융기관 복원력 지표 변화 지도¹⁾



주: 1) 2019년말 대비 2020년 3/4분기말(은행 원화유동성, 외화유동성은 20년 10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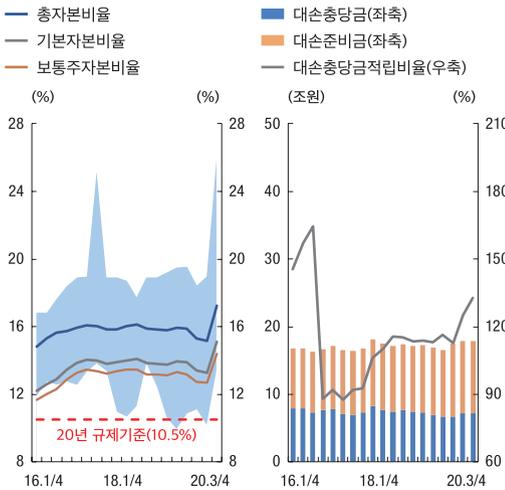
- 2)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 3)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4) 외화 LCR
5) 비은행 업권별 자본적정성 비율을 총자산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
6) 증권회사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 정부는 금융지원 확대에 따른 자본비율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바젤Ⅲ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2022년 1월에서 2020년 6월로 앞당겨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개편안을 도입하지 않은 일반은행(인터넷전문은행 제외)의 경우 총자본비율이 전년말 대비 0.55~1.35%포인트 하락한 반면, 개편안을 도입한 일반은행(20년 6월말 2개, 20년 9월말 7개)은 0.93~3.78%포인트 상승하였다.

2)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로 신한은행(신한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농협지주) 및 우리은행(우리지주)이 해당한다.

그림 1-2. 일반은행 바젤Ⅲ 기준 자본비율¹⁾²⁾³⁾⁴⁾ 및 대손충당금적립비율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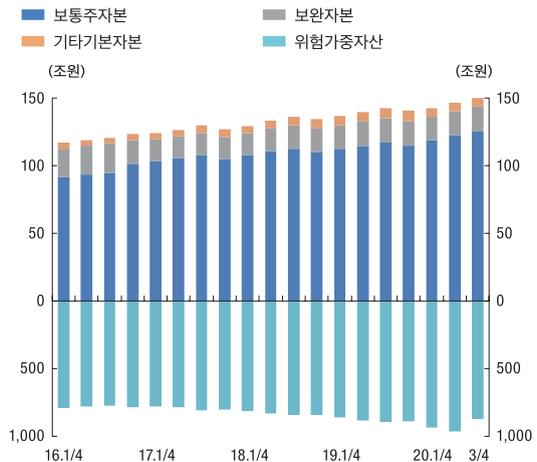
- 주: 1) 기말 기준
- 2)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어선. 2016년 3/4분기까지는 대손충당금에 대손준비금 포함, 그 이후에는 보통주자본에 대손준비금 포함
- 3) 2020년 규제기준: 보통주자본비율 7%,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D-SIB의 경우 각각 8%, 9.5%, 11.5%)
- 4)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총자본비율 분포를 나타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변동요인을 보면, 금년 상반기중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신용공급이 증가하면서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2020년 9월부터는 다수 은행이 바젤Ⅲ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안을 조기 도입함에 따라 신용리스크가 크게 감소하고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였다³⁾(그림 I-3). 이러한 자기자본비율 상승은 은행들의 자체적인 손실 대응능력 개선

보다는 제도 개편에 기인한 효과이므로, 일반은행은 향후 기업실적 부진 장기화 등에 따른 신용리스크 증가⁴⁾에 대한 대비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그림 1-3. 자기자본비율 변동요인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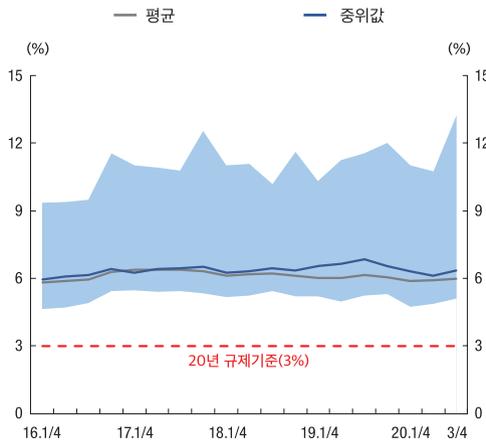


- 주: 1) 기말 기준
- 2) 2016년 4/4분기 이후 보통주자본에 대손준비금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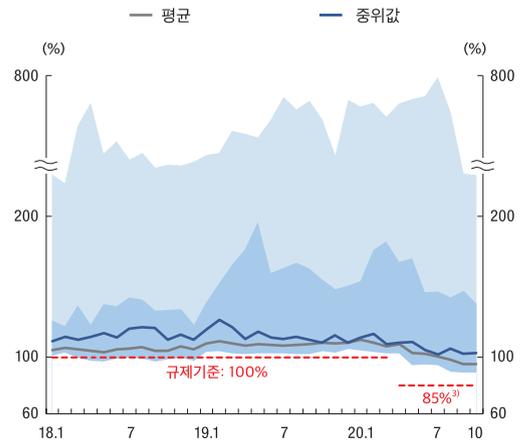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일반은행의 레버리지비율⁵⁾은 2020년 3/4분기 말 6.00%로 전년말(6.05%) 대비 0.05%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가계 및 기업 대출이 확대되면서 총익스포저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이 규제기준(3%)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그림 I-4).

- 3) 일반은행의 평균 위험가중치는 2019년말 50.9%에서 2020년 6월말 52.1%로 상승한 후 9월말 46.6%로 하락하였다. 이는 2020년 9월말부터 3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등 7개 일반은행이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도입하면서 기업대출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한 데 주로 기인한다. 이에 따라 총자산 증가가 자기자본비율을 하락(-1.06%포인트)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에도 평균 위험가중치 하락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상승 효과(+1.38%포인트)가 이를 상회하면서 자기자본비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이익잉여금 증가,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자본확충에 따른 총자본 증가(9.1조원)도 자기자본비율 상승에 기여(+1.03%포인트)하였다.
- 4)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실물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금년중 크게 확대된 기업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각종 금융 지원조치 종료 시 중소기업 실적 부진 우려가 부각되면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기업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6> 「코로나19 이후 국내은행의 신용리스크 변동 및 시사점」(83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 5) 레버리지비율은 「은행업감독규정」상 단순기본자본비율을 의미하며, 은행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유사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비율은 총익스포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가중자산에 기반한 최저자기자본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4분기부터 보조지표로 공식된 후 2018년부터 동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용되었다.

그림 I -4. 일반은행 레버리지비율¹⁾²⁾³⁾

주: 1) 기본자본(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총익스포저. 기말 기준
 2) 2017년까지는 보조지표로 공시, 2018년부터 규제 시행
 3)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레버리지비율 분포를 나타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그림 I -5. 일반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¹⁾²⁾

주: 1) 고유동성자산/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월 평잔 기준
 2)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LCR 분포이며 진한 음영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경우를 나타냄
 3) 2020년 4월~2021년 3월중 한시적 적용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유동성 대응능력 대체로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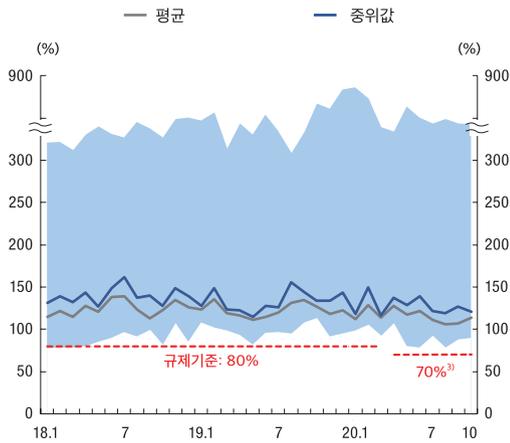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2020년 10월말 95.0%로 전년말(110.4%) 대비 15.4%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예비자금 용도의 법인예금이 증가하면서 은행의 순현금유출액 규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⁶⁾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들이 규제기준(100% → 20년 4월~21년 3월중 한시적으로 85% 적용)을 상회하고 있다⁷⁾(그림 I -5).

외화 LCR⁸⁾은 2020년 10월말 114.2%로 전년말(122.7%) 대비 8.5%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외화 기업예금 등 비영업적 예금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모든 은행들이 규제기준(80% → 20년 4월~21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70% 적용)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 -6).

6) 순현금유출액은 특정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30일간 예상되는 현금유출액 합계에서 현금유입액 합계를 차감한 값으로 정의된다. 현금유출액은 예금 등 부채 잔액에 부채 유형별 예상 이탈률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비금융기업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무담보부 도매자금조달의 경우 40~100%의 높은 이탈률이 적용된다. 금년 1~10월중 일반은행의 기업자유예금(+38.1조원) 등 법인예금이 증가하면서 현금유출액이 확대되고 LCR이 하락하였다.

7)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기업예금 증가 등에 따른 여유자금으로 고유동성자산 확대보다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적극적인 신용공급 기능 수행에 주력하면서 LCR이 바젤Ⅲ 권고기준(100%)을 하회하고 있다.

8) 외화 LCR은 바젤Ⅲ 규제는 아니지만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실물 부문에 안정적으로 외화를 공급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2017년 1월부터 공식 규제로 도입되었다. 수출입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화부채 규모가 작은 일부 지방은행(광주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은행에 적용되고 있으며, 규제비율은 2017년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되어 2019년 최종 규제기준(일반은행 80%)에 도달하였다. 한편 감독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은행이 보유 중인 고유동성자산을 위기대응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외화 LCR 규제비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하였다.

그림 1-6. 일반은행 외화 LCR¹⁾²⁾

주: 1) 고유동성 외화자산/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 월 평잔 기준
 2)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외화 LCR 분포를 나타냄
 3) 2020년 4월~2021년 3월중 한시적 적용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장기적 측면에서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⁹⁾(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2020년 3/4분기말 110.1%로 모든 은행들이 규제기준(100%)을 충족하였다(표 1-1).

표 1-1. 일반은행 NSFR¹⁾²⁾

(%)

	2018년	2019년				2020년		
		1/4	2/4	3/4	4/4	1/4	2/4	3/4
평균	113.0	112.1	111.2	111.2	113.5	110.7	110.6	110.1
중위값	111.9	111.2	110.3	108.3	111.3	111.9	110.1	109.4

주: 1) 가용안정자금조달금액/필요안정자금조달금액. 기말 기준
 2) 2020년 규제기준은 100%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9) NSFR은 은행들이 단기 도매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하여 장기 운용자산의 일정 부분을 안정적인 부채 및 자본으로 조달하도록 규제한다. NSFR은 2018년 1월부터 국내은행에 도입되었다(인터넷전문은행은 20년부터 적용).

참고 6.

코로나19 이후 국내은행의 신용리스크 변동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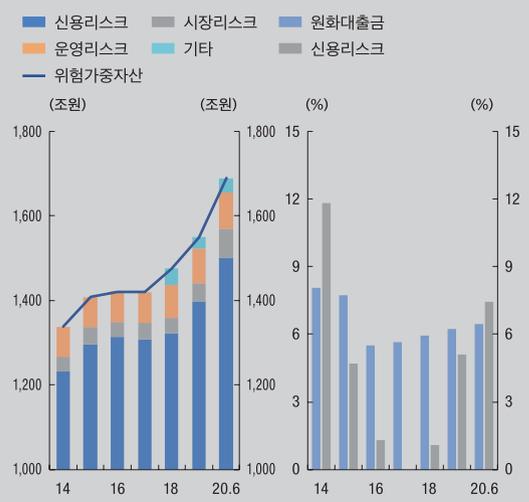
국내은행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금년중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신용공급이 급증하였다. 은행 신용 익스포저가 확대된 상황에서, 실물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은행의 신용리스크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은행의 신용리스크 변동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국내은행 위험가중자산 동향

2020년 6월말 국내은행 위험가중자산¹⁾은 전년말 대비 139.4조원 늘어나 바젤Ⅲ 도입 이후 반기 기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였다. 구성 요소별로 보면 시장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이 각각 25.4조원, 2.5조원 늘어난 데 그친 반면 신용리스크는 103.7조원 증가하였다. 이러한 신용리스크의 큰 폭 증가는 상반기중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원화대출금이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신용리스크가 원화대출금에 비해 빠르게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신용리스크의 변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험가중자산 구성 변화 대출 및 신용리스크 증가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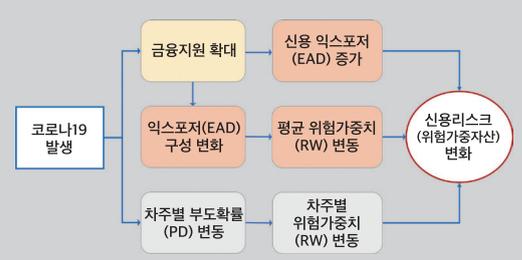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2020년 6월은 전년말 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신용리스크 변동 현황

은행의 신용리스크는 총신용익스포저²⁾ 변동, 익스포저 구성 변화, 차주별 부도확률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19 이후 은행의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은 총신용익스포저를 증가시키는 한편 평균 위험가중치를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코로나19가 신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1) 국내은행은 신용·시장·운영 리스크를 반영하여 위험가중자산(RWA: Risk Weighted Asset)을 산출한다. 2020년 6월말 현재 전체 위험가중자산은 1,688.4조원으로 전년말(1,549.0조원) 대비 9.0% 증가하였으며, 이 중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1,500.3조원)이 8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이하 '신용리스크')은 은행의 신용 익스포저에 차주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하 '위험가중치')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2) 총신용익스포저는 크게 대출 익스포저와 금융상품·해외투자 익스포저로 구분되는데, 이하에서는 주로 대출 익스포저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출 익스포저는 예상치 못한 신용 손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출 자산 등 난외항목 뿐 아니라 미사용한도 등 난외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난외항목의 경우 익스포저 산출 시 20~50%의 신용환산률 등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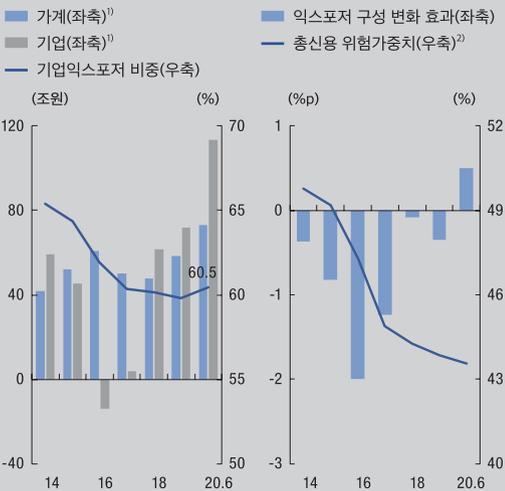
우선 코로나19 이후 신용공급이 총신용익스포저 변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상반기중 원화대출금이 전년말 대비 109.1조원(6.4%) 늘어나면서 총신용익스포저도 254.1조원(8.0%) 증가하였다. 차주별로는 기업대출(+81.3조원)이 가계대출(+27.3조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대출 익스포저 중에서 기업 비중이 2019년말 59.8%에서 2020년 6월말 60.5%로 상승하였다.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은³⁾ 기업익스포저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2014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였던 총신용익스포저 평균 위험가중치의 하락세도 둔화되었다.⁴⁾

기업규모별 평균 위험가중치를 보면 대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위험가중치가 상승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은 하락세를 지속하였는데 이는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 조치가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차주의 신용등급 분포⁵⁾가 개선된 데 주로 기인한다. 여기에 2020년 6월부터 바젤Ⅲ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이 조기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의 위험가중치가 하향 조정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⁶⁾

차주별 익스포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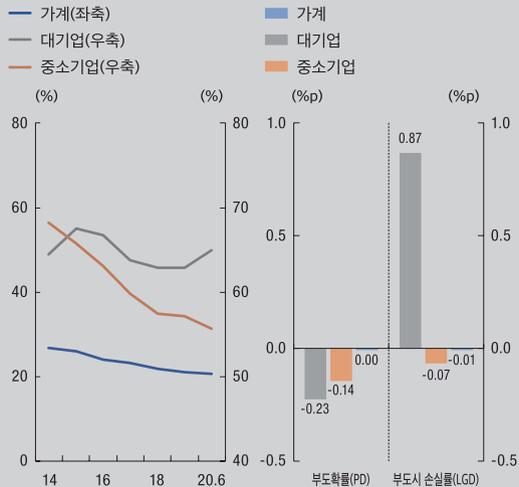
평균 위험가중치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2) 전년동기대비. 2020년 6월은 전년말 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차주별¹⁾ 위험가중치

차주별¹⁾²⁾ PD³⁾ 및 LGD³⁾



주: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및 기타 소매(중소기업) 익스포저를, 가계는 주거용주택담보 및 기타 소매(개인) 익스포저를 포함
2)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12개) 대상
3) 은행별·신용등급별 부도확률(PD) 및 부도시 손실률(LGD)의 가중평균이며, 2019년말 대비 2020년 6월 증감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3) 기업대출은 담보·보증대출 비중(20년 6월말 기준 66.4%)이 가계(75.5%)보다 낮다. 또한 신용대출 중 기업대출은 신용용차주 비중(20년 7월말 기준 63.7%)이, 가계대출은 고신용차주(68.9%) 비중이 높아 기업대출에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 4) 2014년 이후 저금리 기조 지속, 담보·보증대출 등 안전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총신용익스포저의 평균 위험가중치는 꾸준히 하락하였다. 개별자산 위험가중치 하락 효과(-0.7%포인트)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 비중 확대 등에 따른 대출 익스포저 평균 위험가중치 상승 효과(+0.5%포인트)로 전체 위험가중치 하락세가 둔화되었다.
- 5)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에 대해 기존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익스포저 중 투자등급(7등급) 미만 비중이 전년말 대비 3.7%포인트 하락하였다.
- 6)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부문 규제 유연화 방안(4월 16일)」의 일환으로 바젤Ⅲ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2022년 1월에서 2020년 6월로 앞당겨 도입하기로 하였다. 동 개편안은 무등급 중소기업대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표준방법), 기업대출 부도시 손실률 하향 조정(내부등급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각 은행별 준비 상황에 따라 2020년 6월말에는 2개 은행이 9월말에는 9개 은행이 바젤Ⅲ 개편안을 적용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4개 은행이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의 신용위험 부각시 국내은행 신용리스크 변동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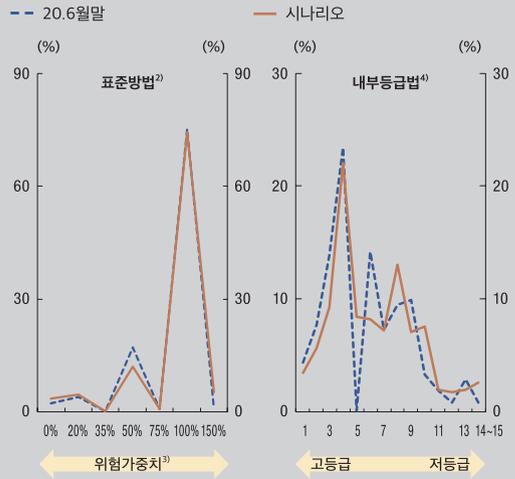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실물경기 부진이 장기화 될 경우 금년중 크게 확대된 기업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 될 경우 기업실적 부진 우려가 부각되며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나아가 기업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기업의 신용등급 분포가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채 부실 우려가 가장 컸던 2015년 말 수준⁷⁾으로 악화되는 경우 은행 신용리스크가 얼마나 변동하는지 시산해 보았다.

참고로 차주별 위험가중치(RW)는 개별 은행의 리스크관리 역량 등에 따라 표준방법⁸⁾ 또는 내부등급법⁹⁾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표준방법은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에 따라 차주별로 위험가중치를 차등하여 적용한다. 내부등급법의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별 부도확률(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활용한 자체 모형을 통해 차주별 위험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여기에서는 각 은행이 사용하는 위험가중치 산정방식(표준방법 5개 은행, 내부등급법 12개 은행)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신용리스크 변동을 추정하였다.

대기업 신용위험 부각시 시나리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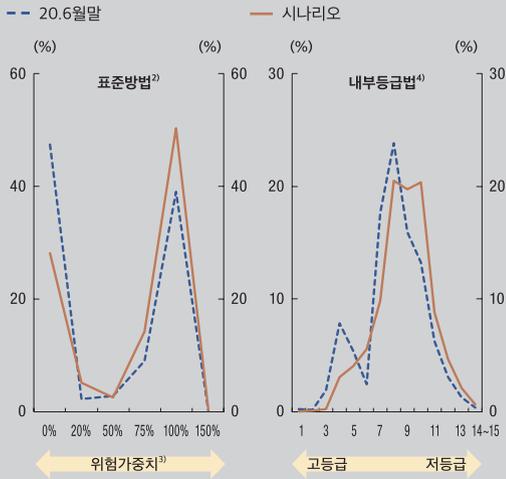
- 주: 1) 2015년 12월말 당시의 대기업 신용등급 분포 가정
 - 2) 표준방법 적용 은행(5개) 기준
 - 3) 신용등급에 따라 20%, 50%, 75%, 100%, 150%의 가중치를 적용
 - 4)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12개) 기준
-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7) 2015년은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기업부채에 대한 부실 우려가 높았던 시기다. 2015년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정비하여신비율은 각각 4.05%, 1.64%로 2020년 6월말(각각 1.34%, 0.83%)보다 2.71%포인트, 0.81%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8) 표준방법 적용 시 신용등급에 따라 20~1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나 정부보증 대출의 경우 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보증 등 금융지원이 지속되는 경우 0% 가중치를 적용받는 익스포저 비중이 현 수준(47.4%) 정도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정부보증 등이 종료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015년말 비중(28.0%)을 적용하였다.

9) 내부등급법을 적용받는 은행에 대해 신용등급별 부도확률(PD) 및 부도시 손실률(LGD)을 고정한 상태에서 신용등급별 익스포저 분포가 변동하였을 때 위험가중자산 변화를 시산하였다. 한편 기업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부도확률(PD)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대 신용손실 증가를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액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손비용 상승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져 추가적인 자기자본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본 분석에서 해당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신용위험 부각시 시나리오¹⁾



- 주: 1) 2015년 12월말 당시의 중소기업 신용등급 분포 가정
 2) 표준방법 적용 은행(5개) 기준
 3) 중소법인·도매형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20%, 50%, 75%, 100%, 150%를, 무등급 중소기업은 100%, 소매형 개인사업자는 75%의 가중치를 적용
 4)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12개)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시산결과 대기업의 경우 신용등급 조정에 따라 신용리스크가 0.1%(2.0조원) 증가하여 국내은행(17개) 총자본비율을 0.02%포인트 하락시키는 데 그쳤다.¹⁰⁾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리스크가 3.4%(56.9조원) 증가하면서 국내은행(17개) 총자본비율을 총 0.47%포인트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종합하면 기업의 신용위험이 부각되어 신용등급 분

포가 2015년말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대기업대출보다는 중소기업대출의 신용리스크가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¹²⁾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실적이 부진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은행 자본적정성 평가에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과소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¹⁾

(조원, %p)

	대기업		중소기업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BIS 총자본비율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BIS 총자본비율
국내은행 (17개)	+2.0 (+0.1%)	-0.02	+56.9 (+3.4%)	-0.47
내부등급법 (12개)	-2.7 (-1.5%)	+0.03	+46.4 (+3.1%)	-0.44
표준방법 (5개)	+4.7 (+4.0%)	-0.43	+10.4 (+6.6%)	-0.92

- 주: 1) 2020년 6월말 대비 변동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시사점

국내은행은 그간 가계대출, 담보·보증대출 등 저위험대출 중심의 리스크관리로 규제비용을 큰 폭 상회하는 자본적정성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용을 공급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은행 신용리스크가 불가피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 다만 향후 원활한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10) 표준방법 적용 은행(5개)의 경우 총신용리스크는 4.7조원(4.0%) 확대되고 총자본비율(5개 은행 평균)은 0.43%포인트 하락하였다. 반면 내부등급법을 적용받는 은행(12개)의 총신용리스크는 2.7조원(1.5%) 감소하여 총자본비율(12개 은행 평균)이 0.0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1) 표준방법 적용 은행(5개)의 경우 평균 위험가중치가 15.8%포인트 증가하여 총신용리스크는 10.4조원(6.6%) 확대되고 총자본비율(5개 은행 평균)은 0.92%포인트 하락하였다. 내부등급법을 적용받는 은행(12개)은 중소기업 가중평균 부도확률(PD)이 1.32%포인트 상승하고 평균 위험가중치(RW)는 6.21%포인트 증가한 결과 총신용리스크는 46.4조원(3.1%) 증가하고 총자본비율(12개 은행 평균)이 0.44%포인트 하락하였다.

12) 2020년 9월말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액은 대기업 189.5조원, 중소기업 819.0조원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약 4배 수준이다.

우선 기업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과거 2015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총자산 대비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의 경우에는 금년 중 금융지원 조치 등으로 신용등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차주의 신용위험이 실제보다 작게 인식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자본적정성 규제를 완화한 결과, 실물부문 지원을 위한 은행의 대출여력은 확충되었지만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위기대응능력은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¹³⁾

국내은행은 앞으로 이러한 점들에 유의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실물부문 지원과정에서 소진한 자본 및 유동성을 확충하는 등 복원력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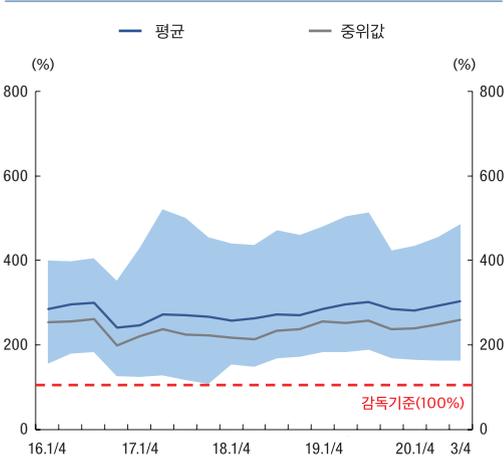
13) 정부는 중소기업 등 특정 차주에 대한 위험가중치 축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바젤III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조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는 평균 1.91%포인트인 것으로 추정된다. IMF(20년 10월)는 코로나19 이후 은행의 신용공급여력 확충을 위한 주요국 정책당국의 대응이 자기자본비율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우 은행의 취약성과 손실흡수능력을 저하시키는 상충관계(trade-off)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2.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 양호

생명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위험 기준 자기자본비율¹⁰⁾(RBC비율)은 2020년 3/4분기말 303.5%¹¹⁾로 전년말(284.6%)에 비해 18.9%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7).

그림 I-7. 생명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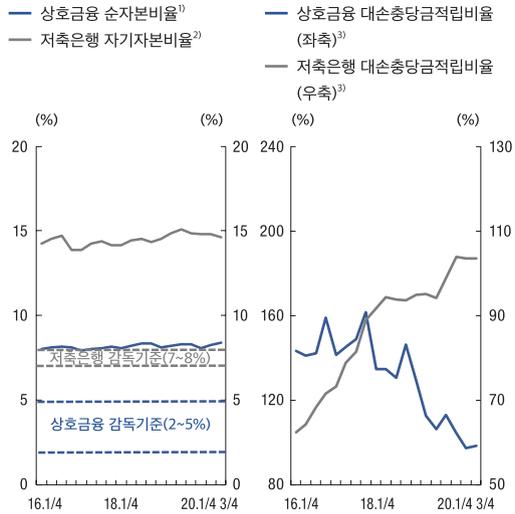


주: 1)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음영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업체별 RBC비율의 최대치 및 최소치를 표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은 2020년 3/4분기말 8.4%로 전년말(8.3%)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98.5%로 고정이하여신 증가 등에 따라 전년말(113.1%) 대비 14.6%포인트 하락하였다.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20년 3/4분기말 14.6%로 전년말(14.8%)에 비해 0.2%포인트 하락¹²⁾하였으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103.6%)은 전년말(98.9%) 대비 4.7%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8).

그림 I-8.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복원력 지표



주: 1) 감독기준 2%(새마을금고 4%, 농협 5%)
2)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감독기준 7%(자산 1조원 이상은 8%)
3)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대출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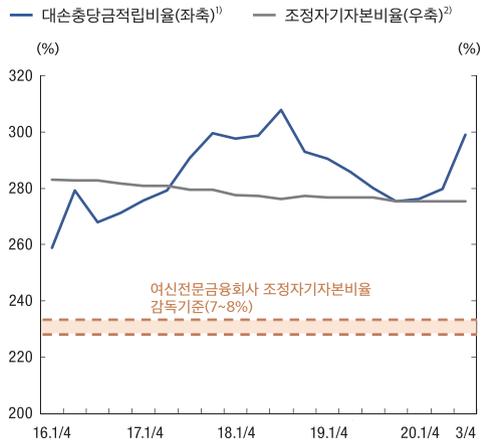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20년 3/4분기말 18.8%로 전년말과 동일하였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20년 3/4분기말 298.9%로 전년말(275.2%) 대비 23.7%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9).

10)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isk-Based Capital Ratio)은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분모인 요구자본은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및 운영위험액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다.

11) 2020년 3/4분기말 손해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47.7%로 전년말 대비 6.6%포인트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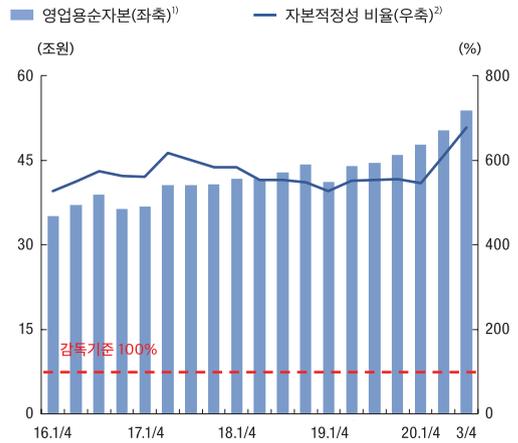
12) 2020년 3/4분기말 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은 72.7조원으로 최근 대출 증가율 상승 등으로 전년말 대비 13.3% 증가하여 동기간중 자기자본 증가율(11.6%)을 소폭 상회하였다.

그림 I-9. 여신전문금융회사 복원력 지표



주: 1)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총채권 기준)
 2) 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 감독기준 7%(신용카드사 8%)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I-10. 증권회사 복원력 지표



주: 1) 순재산액에서 유형자산 등 차감, 후순위채 등 가산
 2) (영업용순자산 - 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증권회사의 순자산비율은 주식위탁매매 수익 증가와 후순위채 발행 확대¹³⁾ 등으로 2020년 3/4분기말 677.3%로 전년말(555.9%) 대비 121.4%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10).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에 비해 취약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금융기관별로 자본비율 편차¹⁴⁾도 크므로, 향후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본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13) 2020년 1/4~3/4분기중 후순위채 발행 잔액 증가율은 39.5%(연율)로 2016~19년중 연평균 증가율 5.9%를 크게 상회하였다.

14) 2020년 3/4분기말 비은행 금융업권별 자본적정성 비율 범위는 상호금융조합(농협) 5.0~20.4%, 보험회사(자산규모 1조원 이상, 이하 동일) 162.5~486.4%, 저축은행 10.5~18.0%, 여신전문금융회사 11.9~32.9%, 증권회사 225.6~2,032.1%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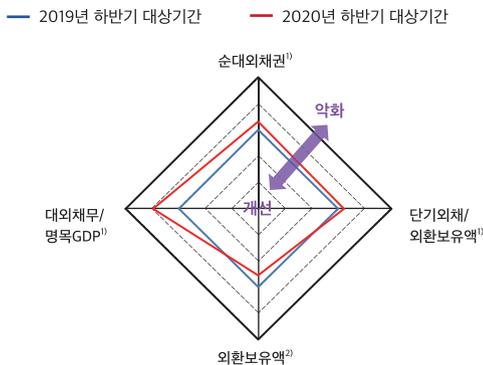
II. 대외지급능력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저하되었으나 이후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순대외채권은 대외채무가 대외채권에 비해 크게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다. 다만 대외채무 증가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확대에 기인하고 있어 외채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이 상승하고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소폭 하락하였다.

외환보유액은 2020년 11월말 4,363.8억달러로 큰 폭 증가하였으며, 2020년 3/4분기말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II-1).

그림 II-1. 대외지급능력 지표 변화 지도



주: 1) 2019년 3/4분기말 대비 2020년 3/4분기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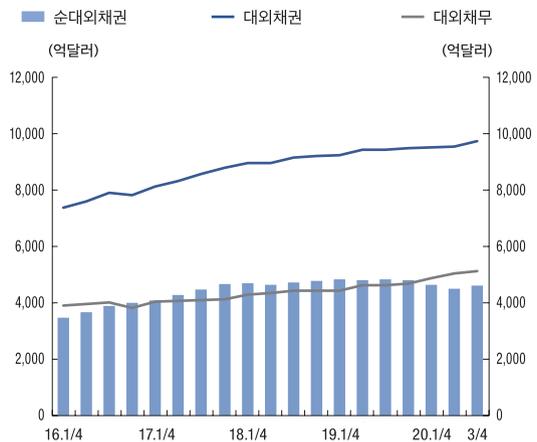
2) 2019년 12월말 대비 2020년 11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자료: 한국은행

순대외채권 소폭 감소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2020년 3/4분기말 4,614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207억달러) 감소하였다. 다만 전기대비로는 증가로 전환하였다(그림 II-2).

그림 II-2. 순대외채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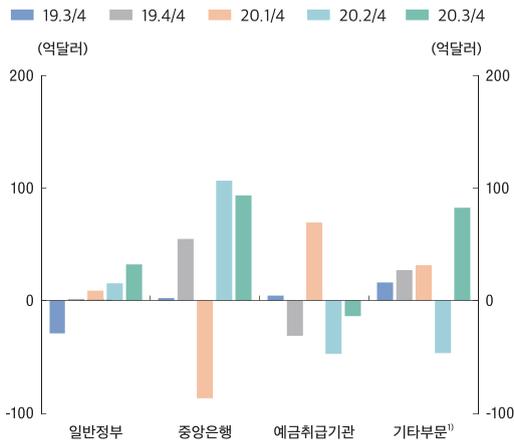
주: 1) 분기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권은 2020년 3/4분기말 9,724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2%(+301억달러)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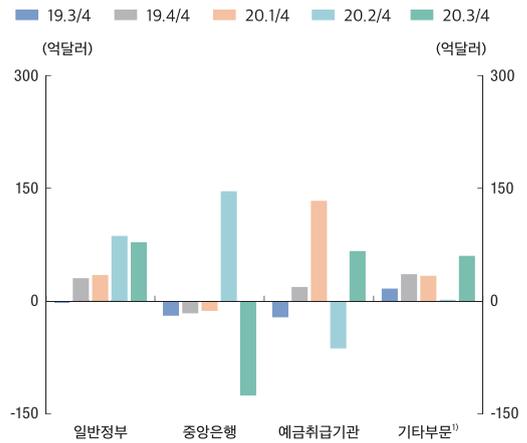
금년 2/4~3/4분기중 대외채권 변동(+223억달러)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부와 기타부문이 각각 48억달러, 36억달러 증가하였다. 중앙은행도 외환보유액이 큰 폭 늘어나면서 200억달러 증가하였다. 반면 예금취급기관은 외화에 치금 감소 등으로 61억달러 감소하였다(그림 II-3).

그림 II-3. 부문별 대외채권 증감



주: 1)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4. 부문별 대외채무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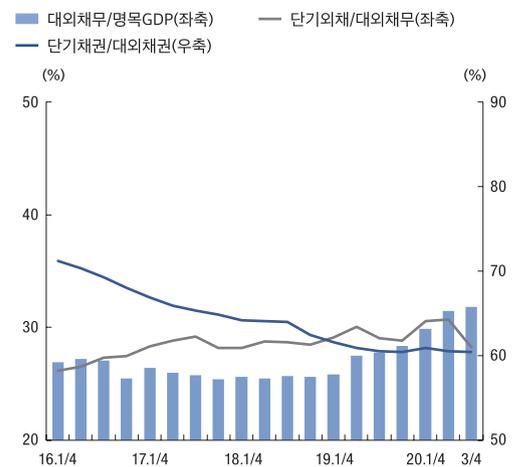
주: 1)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무는 2020년 3/4분기말 5,11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0%(+508억달러) 증가하였다.

금년 2/4~3/4분기중 대외채무 변동(+251억달러)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등으로 165억달러 증가하였다. 중앙은행은 한미 통화스왑 자금 조달에 따라 2/4분기중 대외채무가 큰 폭 증가하였다가 동자금이 상환되면서 3/4분기중 감소하였다.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부문은 각각 3억달러, 62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II-4).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2020년 3/4분기말 31.8%로 전년동기(27.8%) 대비 상승하였다.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8.2%로 전년동기(29.0%) 대비 하락하였다. 대외채권 대비 단기채권 비중은 60.4%로 전년동기(60.5%)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그림 II-5).

그림 II-5. 단기 대외채무·채권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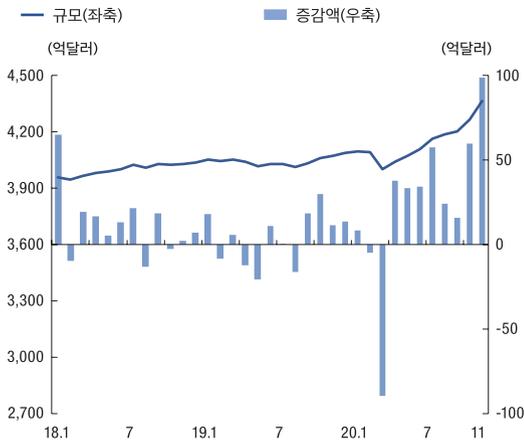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큰 폭 증가

2020년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전년말 대비 275.6억달러 증가한 4,363.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최근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유로화·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그림 I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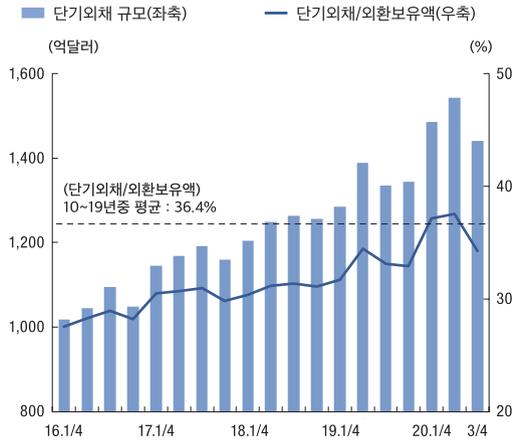
그림 II-6. 외환보유액 규모 및 증감액¹⁾



주: 1) 규모는 월말, 증감액은 월중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20년 3/4분기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4.3%로 전년동기(33.1%) 대비 1.2%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예년 평균(10~19년 평균 36.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그림 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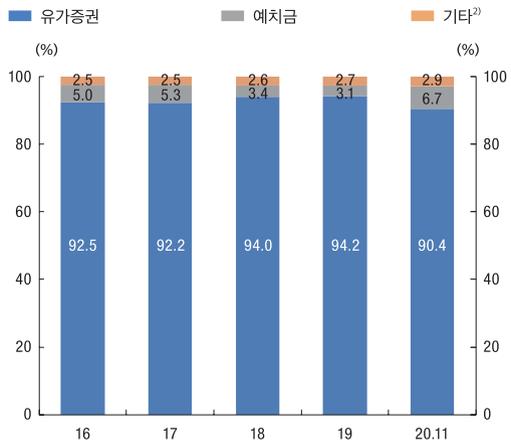
그림 II-7.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¹⁾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2020년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의 구성을 보면 유가증권(90.4%) 및 예치금(6.7%)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은 국채, 정부기관채, 자산유동화채 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II-8).

그림 II-8. 외환보유액 구성¹⁾



주: 1) 연월말 기준
2) 금, SDR 등
자료: 한국은행

III. 금융시장인프라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편 결제방식 개선, 결제계좌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5년여에 걸친 구축작업을 거쳐 2020년 10월 12일에 가동되었다. 이를 통해 결제시스템 안전성과 결제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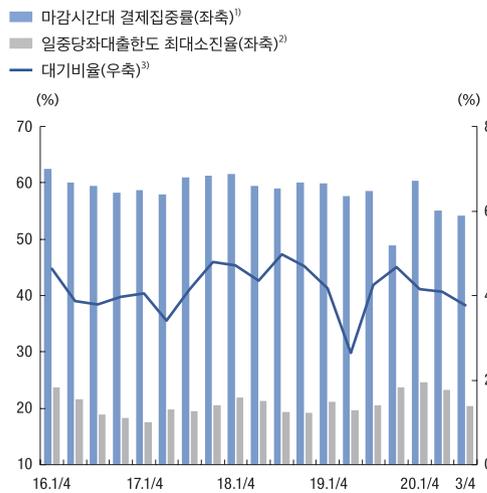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¹⁾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은금융망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를 최종 결제하는 한은금융망의 일평균 결제액은 2020년 3/4분기중 403.9조원으로 지난해(369.9조원)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며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수준을 나타내는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 및 자금이체시 대기비율은 2020년 3/4분기중 각각 20.4%, 3.8%로 대체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체 결제금액 중 마감시간대(16:00~17:30) 결제 비중은 3/4분기중 54.2%로 전년동기(58.6%) 대비 하락하였다(그림 I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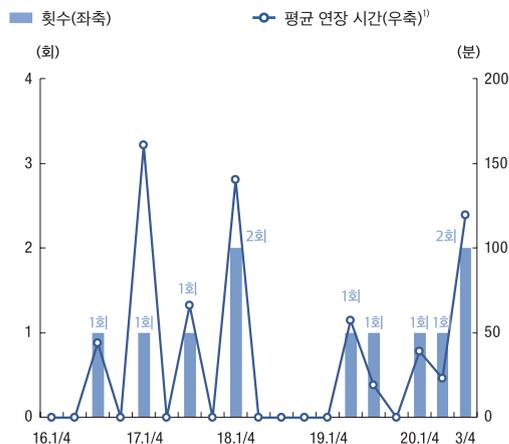
그림 III-1.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지표



주: 1) 해당 기간중 16시 이후 결제금액/총결제금액
 2)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3) 참가기관들의 대기금액/총결제금액(유동성절감을 위한 대기 제외)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은금융망 마감시각 연장은 2020년 3/4분기중 2회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준마감일 RP 매입 입찰 실시 등에 따른 것이다(그림 III-2).

그림 III-2.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현황



주: 1) 해당 기간 총 연장시간/연장횟수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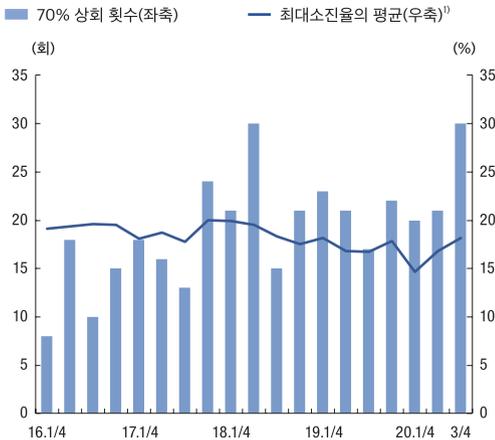
1)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실시 확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사이버공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7>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사이버리스크 대응현황 및 시사점」(96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액은 2020년 3/4분기중 82.4조원으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증가 등으로 지난해(69.4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가운데 관련 결제리스크는 대체로 원활히 관리되었다.

소액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지표를 보면 차액결제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²⁾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3/4분기중 30회로 공모주 청약 및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이체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17회)에 비해 증가하였다. 순이체한도 소진율 평균은 2020년 3/4분기중 18.2%로 전년동기(16.8%)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에서 양호하게 관리되었다(그림 III-3).

그림 III-3.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 1) 해당 기간중 참가기관별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증권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규모는 확대 흐름을 이어 가는 가운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동 시스템의 일평균 결제액은 2020년 3/4분기중 191.2조원으로 기관간RP 거래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186.4조원)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장내주식, 장내국채 및 장외 주식기관투자자 거래는 2020년 3/4분기중 모두 기준시한(16:00, 17:00, 16:50) 이전에 결제가 완료되었다(표 I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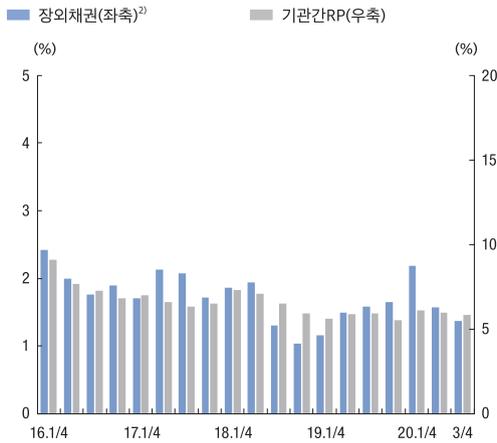
표 III-1.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비중

	기준시한 ¹⁾	납부비중(%)				
		2019년		2020년		
		3/4	4/4	1/4	2/4	3/4
장내주식	16:00	-	-	-	-	-
장내국채	17:00	-	-	-	-	-
장외 주식 기관투자자	16:50	-	0.0002	-	-	-

주: 1) 결제지연손해금 부과 기준
자료: 한국은행

장외채권 및 기관간RP 거래의 경우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분리결제의 비중이 2020년 3/4분기중 각각 1.4% 및 5.8%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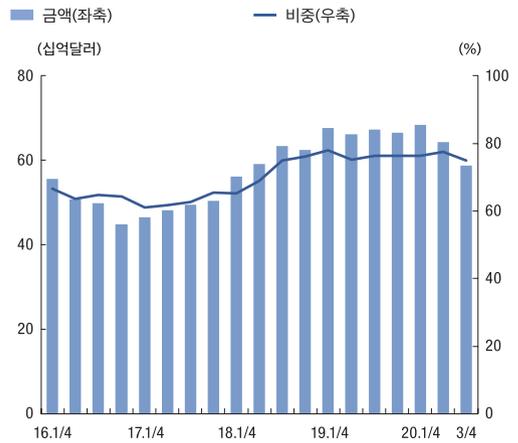
2)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수취인에 대한 지급은 즉시 이루어지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익영업일 지정시점(11:00)에 결제되므로 금융기관 간 신용공여가 발생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리스크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참가기관들이 미결제순이체액의 상한, 즉 순이체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Ⅲ-4. 분리결제 비중¹⁾

주: 1) 장외채권 및 기관간RP 거래 결제금액 중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결제금액 비중

2) 연쇄결제 차감 후 최종결제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그림 Ⅲ-5. CLS시스템 이용 금액¹⁾ 및 비중²⁾

주: 1) 분기중 일평균

2) 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자료: 한국은행

외환결제시스템³⁾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 시스템)⁴⁾의 결제액은 2020년 3/4분기중 일평균 587.7억달러로 지난해(669.0억달러)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이 2020년 3/4분기중 74.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외환거래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Ⅲ-5).

3) 외환결제는 은행간 환거래 네트워크,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결제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에 중점을 두었다.

4)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의 근본적 발생 원인이 되는 각 국가간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00~12:00)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한다. CLS는 동 시간대에 각 통화별 중앙은행에 개설된 결제회원은행과 CLS은행 계좌간 실제 자금이체(자금 납입 및 지급)가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결제됨을 의미한다. 현재 18개 CLS 결제통화국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포함)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고 7.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사이버 리스크 대응현황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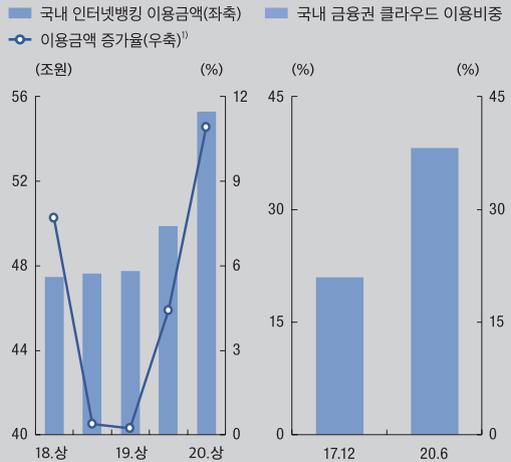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실시 확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사이버공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리스크¹⁾는 주요 데이터 손실로 인한 금융거래 안정성 저하,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손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안정에 영향²⁾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관심³⁾이 높아졌으며, 각국 금융감독당국은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사이버리스크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코로나19 이후 사이버리스크 관련 현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거래 선호, 재택근무 실시 등으로 인해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금융의 디지털화 및 제3자⁴⁾ 서비스 이용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금년중 온라인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전자결

제,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대출신청 등의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아울러 제3자 서비스 이용이 재택근무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등으로 더욱 늘어났다.⁶⁾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²⁾



주: 1) 전기대비
 2) 주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등) 110개사 대상 이용현황 조사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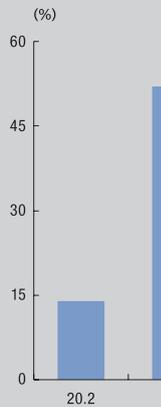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부문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욱 확산되었다. 세계적으로 보면 금년초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를 키워드로 한 악성의 심 메일 등 사이버공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 1)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IT시스템 장애로 인한 금융손실(financial loss), 운영장애(disruption) 또는 평판 손실(reputational damage)을 초래하는 리스크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Financial Stability Review", 호주중앙은행, 18년 등).
- 2) 영란은행은 사이버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의 특성(외부 충격에 의해 촉발, 점진적 누증, 금융시스템 전부 또는 일부에 영향, 기간 간 상호연계성에 의해 파급 및 확대, 금융부문 신뢰도 저하에 따른 시장참가자 행태변화가 충격을 확대, 금융서비스 공급 실패에 따른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 등)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Quarterly Bulletin", 영란은행, 18년 4/4분기).
- 3) 캐나다 중앙은행, ECB 등은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이버리스크 중대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FPC)는 코로나19 이후 운영복원력 증진을 위한 두 가지 우선순위로 사이버부문과 지급결제를 언급하였다.
- 4)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컨설턴트 등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외부기관을 의미한다.
- 5) 글로벌 현황을 보면 McKinsey의 유럽 소비자 대상 서베이 결과 코로나19 이후 은행(banking) 부문에서 디지털 서비스 이용률(77%)이 가장 높았으며 이 중 23%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은행 부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글로벌 현황을 보면 글로벌 보안소프트웨어기업 McAfee의 보안플랫폼 이용기업(약 3천만 개) 데이터를 토대로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클라우드 사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1월 대비 4월중 전산업 평균은 50%, 금융서비스부문은 36% 증가하였다.

났다. 국내 금융부문에서도 마스크 판매 위장, WHO 사칭 기부 요청 등의 형태로 악성코드나 피싱사이트를 유포하는 코로나19 관련 악성의심 메일이 일평균 1,500여건(3월 15일~4월 30일중)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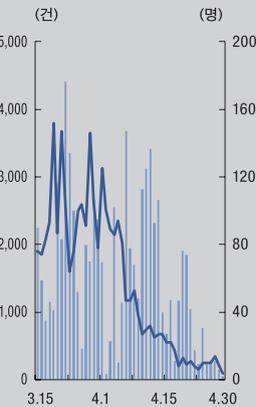
글로벌 금융부문 사이버공격¹⁾

■ 금융부문 공격비중



국내 금융부문 코로나19 관련 악성의심 메일²⁾

■ 악성의심 메일 탐지건수(좌축)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우축)



주: 1) VMware Carbon Black 보안플랫폼 데이터 분석 결과 전체 사이버공격에서 금융서비스부문에 대한 공격이 차지하는 비중
2) 금융보안원 금융보안관제센터에서 탐지한 악성의심 메일 건수
자료: 금융보안원, VMware Carbon Black, 보건복지부

사이버공격은 금융기관 시스템 정보 및 금융이용자 정보 유출, 자금 편취 등의 피해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나 국내의 경우 심각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국내의 사이버리스크 발생 사례

지역	사건 개요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짜 증권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이용자에게 조작된 주가를 보여주고 추가 투자금액을 입금하도록 하여 자금을 편취(20년 11월) 국내 핀테크 기업(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1,000만원 상당의 부정결제 발생(20년 6~9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사기범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20년 4월)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대상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American Bank System(ABS)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금융기관 및 이용고객 정보가 유출(20년 10월) 미국 인터넷은행 Dave에서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이버사고로 고객정보가 일부 유출(20년 7월)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국제청을 사칭한 가짜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여 자금을 편취(20년 6월) 영국에서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한 사기가 2019년중 0.6조원에 달하였음(19년)

자료: 금융감독원, 각국 중앙은행 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 대응현황

주요국 및 국제기구는 코로나19 이후 사이버리스크에 대응하여 사이버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사이버복원력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주요국 금융감독당국과 국제기구는 금융기관의 사이버복원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먼저 팬데믹 상황에서의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미국 연방금융기관감사협의회⁷⁾(FFIEC)는 제3자와의 협력 및 임직원 교육 등의 운영장애 예방프로그램, 확산단계별 전략, BCP 테스트 프로그램 마련과

7)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통공사(FDIC), 전국신용협동조합감독청(NCUA), 통화감독청(OCC),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및 주 연락위원회(SLC)로 구성되어 있다.

재택근무를 비롯한 내부절차 및 시스템 준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팬데믹 BCP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련 지배구조와 사전·사후 대응 및 복구 방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최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환경으로 인해 사이버사고에 유의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강조하며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사고 대응 및 복구 가이드라인을 발표⁸⁾하였다. 특히 담당 조직 구조와 책임 명확화 등 지배구조 측면에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ECB는 재택근무와 사이버공격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 IT 인프라 역량을 점검하고 고객 및 금융기관 대상의 금융사기 리스크를 평가할 것을 금융기관에 권고하였다.

FSB 금융기관 사이버사고 대응 및 복구(CIRR) 모범규준⁹⁾

부 문	주요 내용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RR 관련 이사회, 고위 경영진, 부서의 역할·책임 명확화 및 합리적 보고체계 형성 CIRR 활동을 위한 충분한 예산 배정
계획·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나리오 기반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제3자 서비스 제공자, 기술 솔루션 판매사 등 공급체인 전반에 걸친 리스크관리
분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사이버사고의 심각성, 영향, 원인 파악
완화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유형별 적합한 억제책을 적용 핵심운영기능에 대한 업무지속조치
복원·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 승인된 복원절차에 따라 데이터, 시스템 등을 복구
협업·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내부 및 감독당국에 적시 보고 국가간 협업, 미디어 활동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유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사고 사후분석, 모의 훈련 등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CIRR 역량을 개선

주: 1) 7개 부문 49개 방안으로 구성
자료: FSB

한편 금융기관의 대응상황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미국 금융감독당국은 공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CAMELS)의 경영관리 적정성 항목에 코로나19 이후 사이버보안 관련 조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보 공유⁹⁾)

주요국은 금융감독당국 및 민간 금융인프라 운영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사이버리스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ECB가 의장을 맡고 있는 유로존 사이버복원력이사회(ECRB)는 핵심 금융인프라 운영기관과 사이버보안 유관기관 간 정보교환을 위한 이니셔티브¹⁰⁾

8) "Effective Practices for Cyber Incident Response and Recovery", FSB, 2020년 10월

9)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수행되어 온 국가간 정보공유 이니셔티브로는 지역내 그룹 및 포럼이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ASEAN이 일본과 협업하여 사이버역량 개발 프로젝트(19년)를 시작하였고 ASEAN-싱가포르 사이버보안센터(19년)를 설립하였다.

10) 유럽지역의 중앙은행, 청산소, 증권거래소, 지급결제시스템 제공자, 유로폴(Europol)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IISI-EU)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캐나다 중앙은행 주도로 창설된 금융부문 복원력 그룹¹¹⁾(CFRG)은 코로나19 이후 격주로 회의를 가지며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사이버리스크 테스트)

일부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에 사이버리스크 관련 테스트를 권고하였다.

ECB는 금융기관의 핵심 기능 및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 시뮬레이션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비상황을 점검하는 TIBER-EU¹²⁾(Threat Intelligence-Based Ethical Red-teaming)에 은행의 참여를 권고¹³⁾하였다. 동 테스트에 참여한 은행은 실제와 유사한 사이버공격을 받게 되며 예방, 탐지, 대응능력을 평가받는다.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더욱 확산될 디지털금융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이버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BCP 수립·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재택근무 관련 보안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이버보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BCP나 가이드라인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의 일부로 반영되는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¹⁴⁾ 수행 시 코로나19 이후 운영환경 변화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리스크 대응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반영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전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감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금융기관은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금융보안과 관련 내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충분한 수준의 IT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간 리스크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국제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1) 캐나다 중앙은행, 재무부, 금융감독원과 캐나다의 시스템적 중요은행 및 지정된 캐나다 금융시장인프라(지급·결제·청산 시스템 등)로 구성된 금융부문의 운영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이다.

12) ECB가 마련(18년)한 TIBER-EU 테스트는 사전에 알지 못하고 대응능력을 테스트 받는 금융기관 인력(blue team), 금융기관에 발생 가능한 위협을 점검하는 위협 인텔리전스 제공업체, 사이버 공격자를 모방하여 금융기관의 주요기능을 약화시키는 공격 시뮬레이션 수행 업체(red team), 금융기관내 테스트 수행을 알고 있는 소규모 인력(white team)과 테스트 수행 감독 책임을 부여 받은 금융당국내 관련 팀(TIBER cyber team)의 참여로 진행된다.

13) "Are Banks Cyber-proof in the Digital World?", ECB, 2020년 10월

14) IT 보안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결과는 경영실태평가의 경영관리 또는 위험관리 항목 평가비중(각각 15%)의 최소 20% 이상으로 반영되고 있다.

금융안정 현안 분석

Ⅰ. 최근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	103
Ⅱ. 코로나19 장기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114
Ⅲ. 경기회복 지연과 금융불균형 조정의 부문별 영향 분석	124

1. 최근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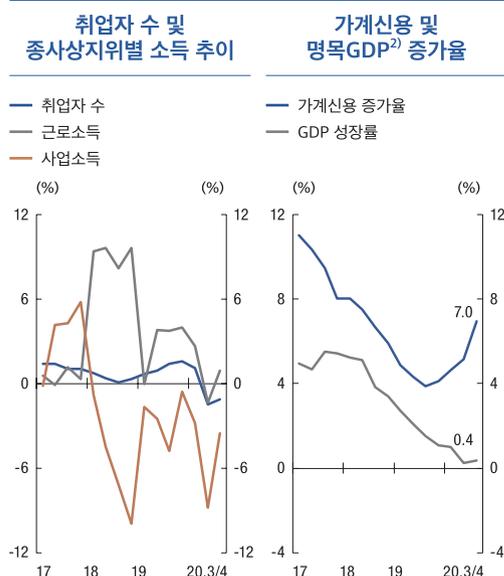
1. 검토 배경
2. 가계부채 현황
3.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4. 종합 평가

1. 검토 배경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과 자영업의 매출 감소 등으로 가계의 소득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2020년 3/4분기중 취업자 수는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하였다.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0.9% 늘어나 전년(2.8%)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의 영향으로 3.5% 감소하였다(그림 I-1). 이에 반해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2020년 3/4분기말 1,682.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 늘어나 지난해 말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계부채 상황 변화는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가계의 소득여건 악화 및 부채 증가세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가계부채DB 등을 이용하여 살펴 보았다.

그림 I-1. 가계의 소득여건 및 부채 증가율¹⁾



주: 1) 전년동기대비

2)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의 합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2. 가계부채 현황

가. 소득수준별¹⁾ 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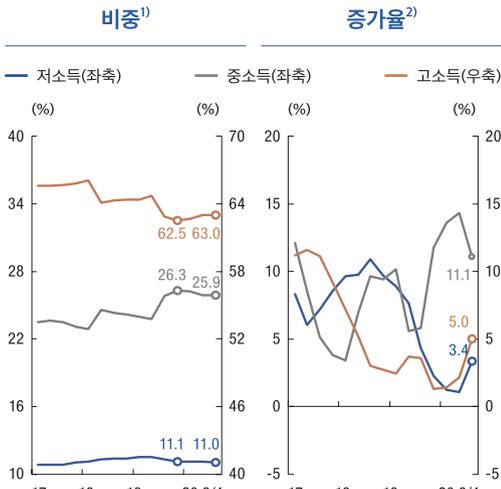
고소득 및 중소득 차주의 부채 비중이 2020년 3/4분기말 각각 63.0%, 25.9%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고소득 차주 비중은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중소득 차주 비중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금년 들어서는 고소득 차주의 비중이 소폭(+0.5%포인트) 상승하였다. 저소득 차주의 부채 비중은 11.0%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2).

중소득 차주의 부채 비중 상승은 2018년 이후 중소득 차주의 부채 증가세가 고소득 및 저소득 차주에 비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차주

1) 고소득은 소득 상위 30%, 저소득은 하위 30%이며 그 중간 40%는 중소득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가계부채DB 상의 차주 소득정보는 증빙소득 또는 신용조회회사(NICE)의 소득 추정치이다.

당 평균 부채액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소득 차주의 부채 비중 상승은 중소득 차주 수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1-1).

그림 1-2. 소득수준별 부채



주: 1) 전체 부채액 대비 소득수준별 부채액 비중
 2) 전년동기대비(2분기 이동평균)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표 1-1. 차주 소득수준별 평균 부채보유액¹⁾

	2017	2018	2019	2020.3/4
저소득	4,481	4,741	5,142	5,414
중소득	5,145	5,350	5,556	5,819
고소득	11,585	12,050	12,396	12,845

주: 1)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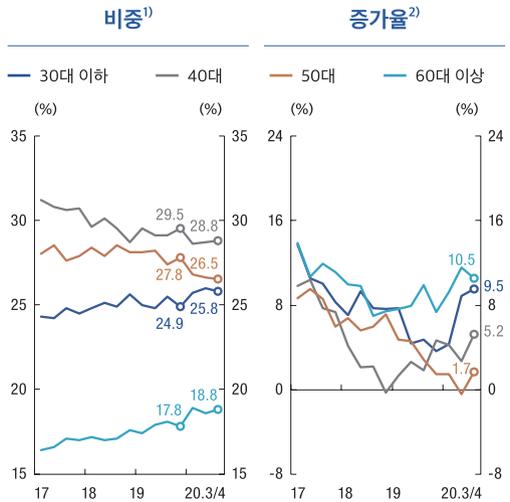
나. 연령대별 부채 비중

연령대별 부채 비중은 40대가 28.8%로 가장 높으나 추세적으로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반면 3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의 비중은 이들의 부채

증가율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높아 점차 상승하고 있다(그림 1-3).

한편 평균 부채보유액을 보면 30대 이하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60대 이상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 1-2). 30대 이하의 경우 주택관련대출 등을 중심으로 한 1인당 부채규모의 확대²⁾가, 60대 이상은 고령화에 따른 차주수 증가가 해당 연령층 부채 비중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1-3. 연령대별 부채



주: 1) 전체 부채액 대비 연령대별 부채액 비중
 2) 전년동기대비(2분기 이동평균)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표 1-2. 차주 연령대별 평균 부채보유액¹⁾

	2017	2018	2019	2020.3/4
30대 이하	5,801	6,174	6,427	7,020
40대	9,081	9,435	9,687	10,169
50대	9,272	9,400	9,476	9,773
60대 이상	8,346	8,406	8,484	8,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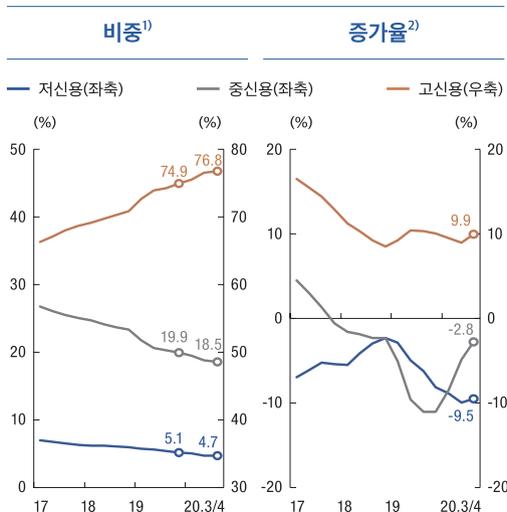
주: 1)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2) 30대 이하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참고 1> 「최근 청년층의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22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 신용등급별³⁾ 부채 비중

고신용 차주의 부채 비중이 2020년 3/4분기말 7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중신용 및 저신용 차주의 비중은 각각 18.5%, 4.7%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중·저신용 차주의 총부채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고신용 차주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I-4). 이는 그간의 가계대출 연체율 하락, 정부의 개인신용회복 지원노력⁴⁾,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차주의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온 현상을 반영하는 한편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가 고신용 차주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4. 신용등급별 부채



주: 1) 전체 부채액 대비 신용등급별 부채액 비중

2) 전년동기대비(2분기 이동평균)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표 I-3. 차주 신용등급별 평균 부채보유액¹⁾

(만원)

	2017	2018	2019	2020.3/4
저신용	3,607	3,665	3,622	3,645
중신용	6,646	6,647	6,284	6,451
고신용	9,635	9,894	10,180	10,593

주: 1)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라. 신규차주

2020년 1/4~3/4분기중 신규차주는 전체 차주의 6.7%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부채 비중은 금년중 3.7%로 지난해(3.3%)보다 소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신규차주의 평균 대출규모가 지난해보다 커진 데 기인한다⁵⁾(그림 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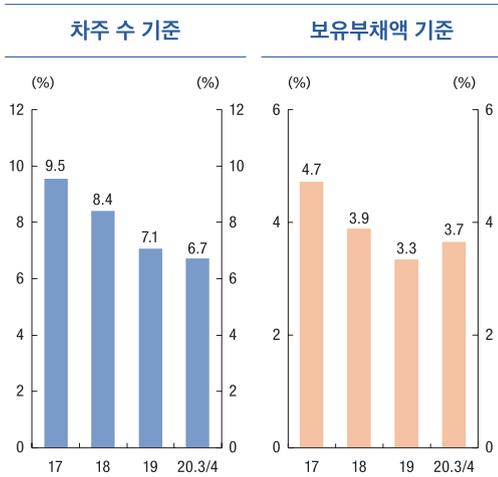
신규차주의 연령대별 구성을 보면 2020년 1/4~3/4분기중 30대 이하의 비중이 58.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여타 연령층 차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이들이 보유한 부채의 비중도 30대 이하가 55.3%로 가장 컸다(그림 I-6). 특히 30대 이하의 평균 대출액이 타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표 I-4). 이는 청년층이 취직 등으로 생애 최초 대출이 많은 데다 최근 들어 주택구입 증가 등으로 대출규모도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고신용은 신용 1~3등급, 중신용은 4~6등급, 저신용은 7~10등급으로 구분하였다.

4)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출범(13년 3월) 이후 채무조정 및 전환대출(고금리 → 저금리) 등을 통해 개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차주의 신용평가요소에서 부정적 정보 활용을 줄이고 우량정보의 활용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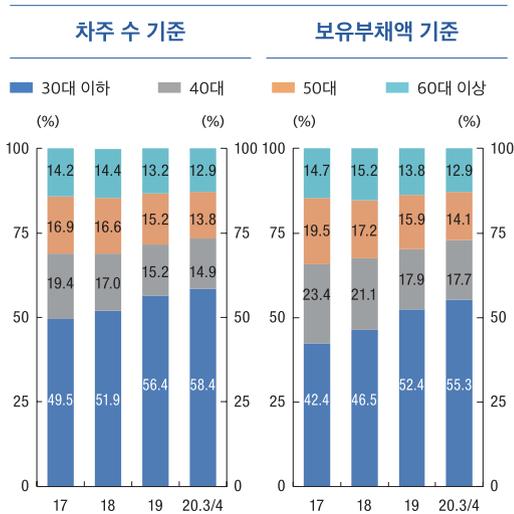
5) 신규차주의 평균 대출액: 2017년 3,856만원 → 2018년 3,723만원 → 2019년 3,909만원 → 2020년 1/4~3/4분기중 4,584만원

그림 1-5. 신규차주 비중¹⁾



주: 1) 전체 차주 수 및 부채액 대비 신규차주 수 및 부채액 비중(연도별 평균)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그림 1-6. 신규차주 연령대별 비중¹⁾



주: 1) 전체 신규차주 수 및 부채액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표 1-4. 신규차주 연령대별 평균 부채보유액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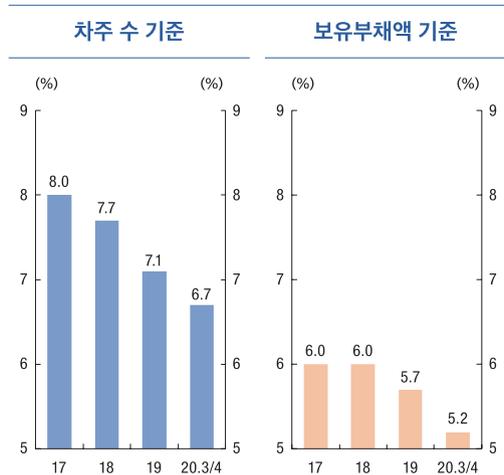
	2017	2018	2019	2020.3/4
30대 이하	3,307	3,333	3,632	4,355
40대	4,656	4,618	4,614	5,393
50대	4,445	3,845	4,087	4,677
60대 이상	3,978	3,928	4,074	4,601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마. 취약차주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어서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차주(취약차주)는 2020년 3/4분기말 전체 차주 중 6.7%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취약차주의 부채 비중은 전체 가계부채의 5.2%로 낮아졌다(그림 1-7). 그동안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취약차주 비중이 낮아진 것은 차주의 신용등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저신용 차주 비중이 낮아져 온 현상과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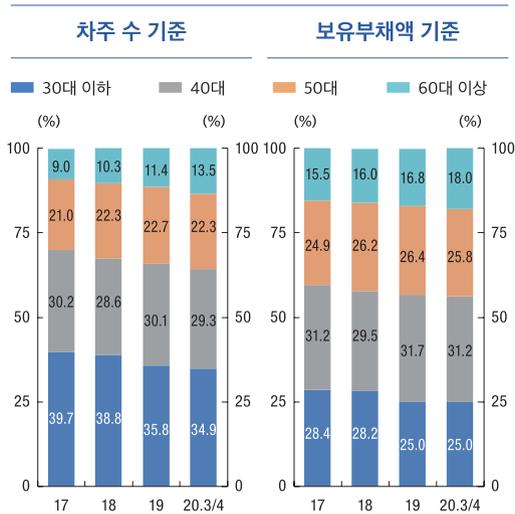
그림 1-7. 취약차주 비중¹⁾



주: 1) 전체 차주 및 부채액 대비 취약차주 수 및 부채총액 비중.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취약차주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차주 수 기준으로는 30대 이하가 34.9%로 가장 높았으나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 반면 60대 이상은 완만히 상승하고 있다. 소득기반이 취약한 60대 이상의 취약차주가 보유한 부채의 비중은 18.0%로 여타 연령층에 비해 낮지만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I-8).

그림 I-8. 취약차주의 연령대별 비중¹⁾



주: 1) 전체 취약차주 수 및 부채액 대비 비중.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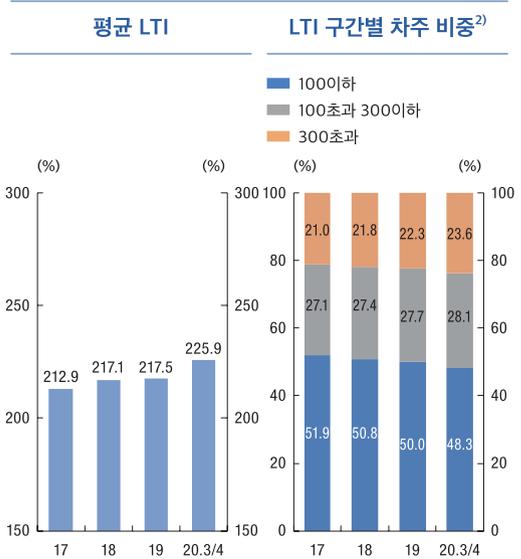
3.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이하에서는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 Loan to Income),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및 연체율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

전체 차주의 평균 LTI는 2020년 3/4분기말 225.9%로 지난해 말보다 상승(+8.4%포인트)하여 대체로 채무상환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LTI 구간별 비중을 보면 100% 이하 구간은 48.3%로 소폭 하락한 반면 300% 초과 구간은 23.6%로 전년말보다 1.3%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9).

그림 I-9. 전체 차주 LTI¹⁾



주: 1) 전체 차주 부채 합계 / 전체 차주 소득 합계. 기말 기준

2) 전체 차주 수 대비 비중. 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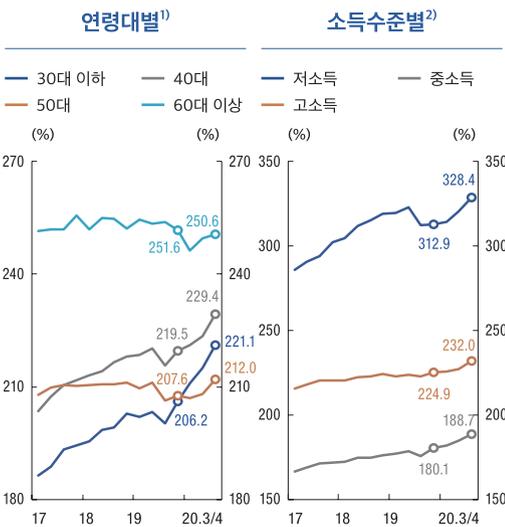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연령대별) 60대 이상의 LTI가 250.6%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30대 이하 및 40대의 LTI가 빠르게 상승하였다. 30대 이하는 221.1%로 전년말 대비 14.9%포인트 상승하였고 40대는 229.4%로 9.9%포인트 높아졌다(그림 I-10). 이는 금년 들어 30대 이하 및 40대의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데 기인한다.⁶⁾

6) 2020년 3/4분기 평균 소득은 30대 이하 및 40대의 경우 전년말 대비 각각 1.8%, 0.4% 증가한 데 반해 부채 증가율은 각각 9.2%, 5.0%로 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소득수준별) 저소득 차주의 LTI가 328.4%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전년말 대비 상승폭도 15.5%포인트로 가장 컸다. 중소득 차주는 전년말 대비 8.6%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188.7%)을 나타내었으며 고소득 차주(232.0%)는 7.1%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10).

그림 I-10. 차주 특성별 평균 L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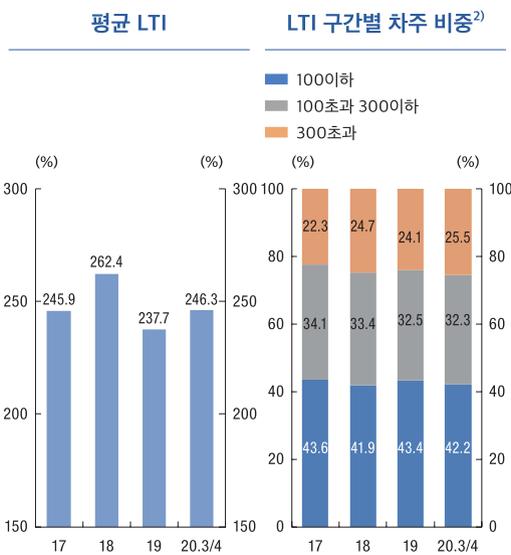
주: 1) 연령대별 차주 부채 합계 / 연령대별 차주 소득 합계
 2) 소득수준별 차주 부채 합계 / 소득수준별 차주 소득 합계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취약차주)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인 취약차주의 LTI는 2020년 3/4분기 246.3%로 전년말보다 소폭 높아졌으나 저소득층의 LTI(328.4%)보다 낮은 수준이다(그림 I-11). 이는 저신용인 다중채무자의 LTI(142.8%)가 차입제한 등으로 저소득층의 LTI(328.4%)보다 크게 낮은 데다 전체 취약차주에서 이들 차

주가 차지하는 비중(52.9%)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한다.

한편 취약차주의 LTI 구간별 차주 수 비중을 보면 300% 초과 차주의 비중이 25.5%로 소폭(+1.4%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11).

그림 I-11. 취약차주 LTI¹⁾



주: 1) 취약차주 부채 합계 / 취약차주 소득 합계. 기말 기준
 2) 전체 취약차주 수 대비 비중.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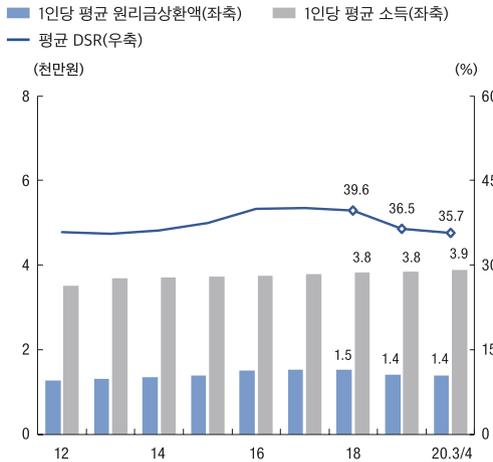
(DSR 수준)

전체 차주의 평균 DSR은 2020년 3/4분기 35.7%로 2018년말(39.6%) 이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I-12). 차주의 평균 LTI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DSR이 낮아

7)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금융위, 17년 11월)」 등 DSR 관련 규제 시행 등을 계기로 규제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표준방식을 이용하여 DSR을 시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자지급액은 해당 기간의 실제 대출금리를 원금잔액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원금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기 정보를 감안하여 분할상환액을 추산하되 만기 정보가 없는 경우 15년,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 분할상환하고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납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진 것은 동 기간중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다 만기전 원금상환부담이 없는 전세자금대출⁸⁾이 크게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장기화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¹⁰⁾

그림 I -12. DSR¹⁾ 추이



주: 1) 전체 차주 원리금상환액 합계 / 전체 차주 소득 합계.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실제로 2018년 DSR 대비 2020년 3/4분기 DSR 하락폭(-3.9%포인트)에 대한 기여도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대출원금 증가가 3.6%포인트로 DSR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평균만기 장기화, 평균 대출금리 하락 및 소득 증가의 기여도는 각각 -3.6%포인트, -1.9%포인트 및 -2.1%포인트로 나타났다(표 I -5).

표 I -5. DSR 변동요인 분해

	DSR	대출 원금	평균 만기 ¹⁾	대출 금리	소득
변화 ²⁾	-3.9%p	+10.0%	+12.9%	-0.7%p	+5.7%
기여도 (%p)	-3.9	+3.6	-3.6	-1.9	-2.1

주: 1) 대출원금/원금상환액으로 추정된 수치로 개별 대출의 만기 변화 및 전체 대출 중 개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음

2) 2018년말 대비 2020년 3/4분기말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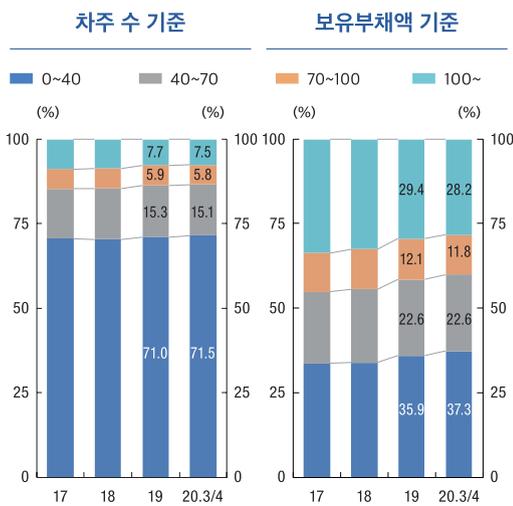
한편 차주의 DSR 수준별 분포를 보면 2020년 3/4분기말 DSR이 40% 이하로 비교적 상환부담이 작은 차주가 전체의 71.5%를 차지한 가운데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이들이 보유한 부채 비중은 전체의 37.3%로 차주 수 비중보다 낮지만 상승세는 유지하였다. 반면 채무상환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인식되는 DSR 70% 초과 차주(고 DSR 차주)의 부채 비중은 40.1%로 나타나 차주 수 비중(13.4%)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DSR이 높은 차주일수록 보유 부채 규모가 크을 시사한다(그림 I -13).

8) 연도별 전세자금대출 비중 : 2017년말 4.5% → 2018년말 5.9% → 2019년말 7.7% → 2020년 3/4분기말 9.2%

9) 연도별 주담대 평균만기 : 2017년말 18.1년 → 2018년말 19.1년 → 2019년말 20.5년 → 2020년 3/4분기말 21.3년

10) 한편 BIS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가구 기준 우리나라의 DSR 수준은 2020년 2/4분기말 12.6%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북유럽(노르웨이 15.9%, 네덜란드 14.8%) 및 호주(14.2%)보다는 낮으나 미국(7.5%), 일본(7.2%) 등 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그림 I-13. DSR 수준별 분포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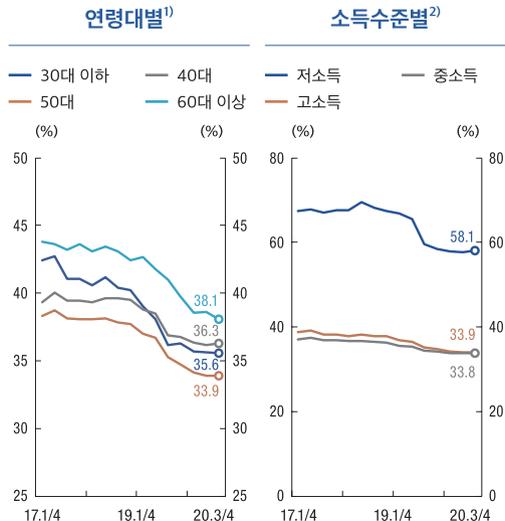


주: 1) 전체 차주 수 및 부채액 대비 비중.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연령대별 DSR) 전 연령층의 DSR이 2018년 이후 점차 낮아진 가운데, 은퇴자가 많은 60대 이상 차주의 DSR이 38.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 차주의 DSR은 33.9%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30대 이하의 경우 LTI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DSR은 소폭 하락하였다(그림 I-14). 이는 전술한 DSR 하락 요인 이외에 30대 이하 차주의 경우 비교적 금리수준이 낮은 은행권 대출비중¹⁾이 높은 데다 이자만 납입하는 전세자금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0대 이하의 주택관련대출 중 전세자금대출 비중은 33.7%로 여타 연령층(10.1%)을 크게 상회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소득수준별 DSR) 저소득 차주의 평균 DSR이 2020년 3/4분기 58.1%로 나타나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및 중소득 차주는 각각 평균 DSR이 33.9% 및 33.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 평균을 하회하였다(그림 I-14). 한편 저소득 차주의 DSR은 2018년까지 거의 70%에 근접하였으나 이후 중·고소득 차주에 비해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컸던 데 힘입어 상당폭 낮아졌다.²⁾

그림 I-14. 차주 특성별 평균 DS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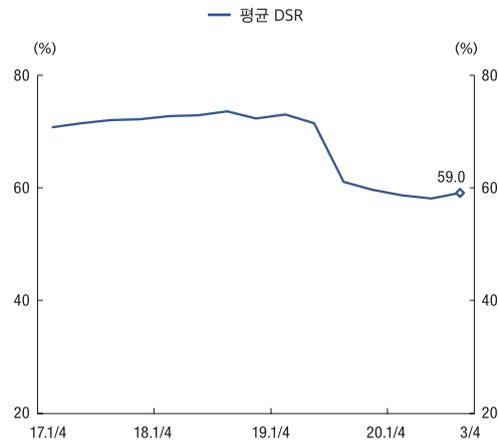
주: 1) 연령대별 원리금상환액 합계 / 연령대별 소득 합계
 2) 소득수준별 원리금상환액 합계 / 소득수준별 소득 합계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취약차주의 DSR) 취약차주의 DSR은 2020년 3/4분기중 59.0%로 전체 평균(35.7%)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다만 2018년 3/4분기중 73.6%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상당폭 낮아졌는데

1) 연령대별 가계대출 중 은행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대 이하의 경우 2020년 3/4분기말 70.3%로 여타 연령층(55.4%)보다 높다.
 2) 2018년 대비 2020년 평균 소득 증가율을 보면 저소득 차주가 10.7%로 고소득 3.3% 및 중소득 1.8%를 크게 상회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중 신용회복대상자들의 소득 추정치를 새롭게 반영하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9년 2/4분기까지는 신용회복대상자들의 소득은 '0'으로 간주).

이는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이용도가 높은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큰 폭 하락한 가운데 2019년 6월부터 제2금융권에 DSR 규제가 도입¹³⁾되면서 이들 차주의 대출 접근성이 낮아진 데 일부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그림 I-15).

그림 I-15. 취약차주 평균 DSR¹⁾



주: 1) 취약차주 원리금상환액 합계 / 취약차주 소득 합계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DSR 70% 초과 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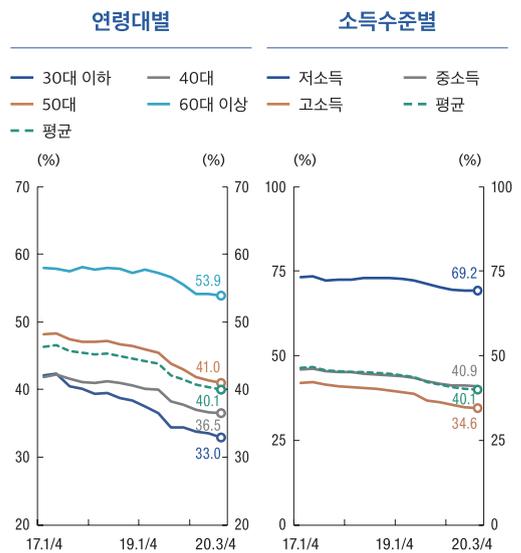
소득 대비 채무상환부담 정도가 매우 큰 DSR 70% 초과 차주의 부채 비중은 2020년 3/4분기 말 40.1%로 전년말(41.5%)보다 소폭 낮아졌다.

(연령대별 고 DSR) 60대 이상에서 DSR 70% 초과 차주의 부채 비중이 53.9%로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여타 연령대도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상당수의 차주가 높은 상환부담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전 연령대에 걸쳐 DSR 70% 초과 차주의 부채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모습은 긍정적이다¹⁴⁾(그림 I-16).

(소득수준별 고 DSR) 저소득층의 경우 DSR 70% 초과 차주의 부채 비중은 2020년 3/4분기 69.2%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층 부채 대부분을 채무상환부담이 큰 차주가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소득 및 중소득층의 경우에도 DSR 70% 초과 차주의 부채보유 비중은 각각 34.6%, 40.9%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I-16).

그림 I-16. 고 DSR¹⁾ 차주의 부채 비중



주: 1) DSR 70% 초과 차주가 보유한 부채의 비중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13)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17년 10월)에 따라 DSR 규제가 2018년 10월말부터 은행권에서 먼저 도입된 이후 비은행권에서도 2019년 6월부터 관리지표로 시행되었다.

14) 일반적으로 소득에 비해 부채상환부담(DSR)이 크더라도 금융 및 실물 자산 보유가 많을 경우 실질적인 부채상환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DSR 70% 초과 가구의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7.9%로 보유자산을 고려한 부채상환능력은 양호한 편이다(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이용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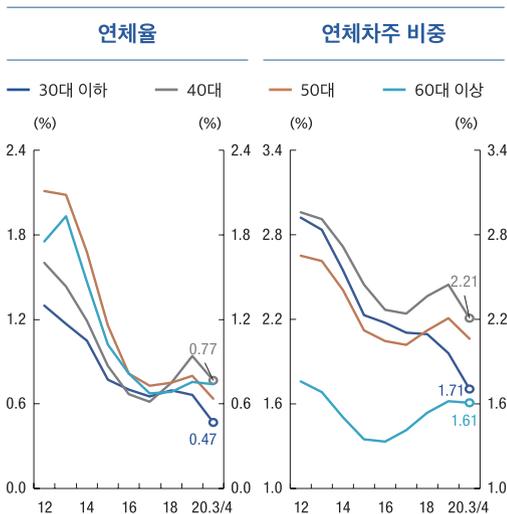
다. 연체율

차주의 연체율은 2012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 2017년부터 횡보 내지 소폭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40대의 경우 2017년 0.6% 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2020년 3/4분기말 0.7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50대 및 60대 이상의 연체율도 2017년 이후 대체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30대 이하는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0.47%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그림 I-17).

한편 각 연령대 내에서 연체차주의 비중을 보면 40대가 2.21%로 가장 높은 가운데 30대 이하는 1.71%로 그간의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연체차주 비중이 1.61%로 가장 낮지만 최근 4~5년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I-17).

그림 I-17. 차주의 연령대별 연체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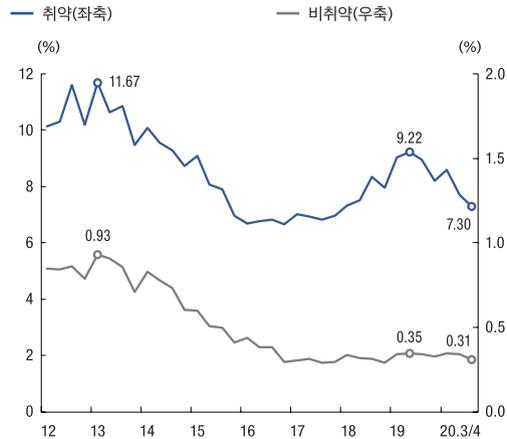


주: 1)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상 집계된 연체액, 연체기간, 가계대출 포괄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 유의(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취약차주) 2020년 3/4분기말 취약차주의 평균 연체율은 7.30%로 비취약차주(0.31%)보다 크게 높았다. 다만 2019년 중반(9.22%) 이후 연체율이 상당폭 하락하는 모습이다(그림 I-18).

그림 I-18. 취약차주의 연체율



주: 1)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4. 종합 평가

금년 들어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차주의 LTI가 30대 및 저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DSR은 대출의 평균만기 장기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차주의 부채 증가와 소득여건 악화에 따른 채무상환 능력 저하가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커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일부 차주의 상승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최근과 같은 빠른 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면서 가계 부문의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채무상환부담이 매우 큰 DSR 70% 초과 차주가 전체 부채의 4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과 60대 이상의 경우 DSR 70% 초과 차주가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DSR 하락의 주된 요인이 되었던 금리 하락, 평균 대출 만기 장기화¹⁵⁾ 등의 영향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소득 증가세를 크게 상회하는 한 DSR은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¹⁶⁾ 뿐만 아니라 DSR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완만하나마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 코로나19에 대응한 원리금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공급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의 영향으로 가계의 부실위험이 이연되고 있는 점,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부실위험이 큰 신용대출¹⁷⁾의 가파른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거시건전성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15) 가계대출의 평균만기는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금융당국의 대출구조 개선 노력에 힘입어 점차 길어졌으며(12년 6.6년 → 20년 3/4분기 8.0년, 한국은행 시산), 은행의 분할상환 주담대 비중(19년말 52% 내외 추정)이 목표수준(20년말 57.0%)에 근접하였다.

16) 향후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금리가 상승할 경우의 평균 DSR을 시산해보면(여타 조건은 현재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 ① 2020년 3/4분기 가계부채와 소득 증가율(7.0%, 0.3%)이 향후 1년간 지속될 경우 DSR은 현재의 35.7%에서 38.1%로 상승하고 ② 여기에 금리가 100bp 상승하는 경우를 추가할 경우 DSR은 40.5%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17) 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은 2020년 3/4분기말 0.37%로 주담대 연체율(0.16%)의 약 두 배 수준이며, 비은행의 경우도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연체율이 1.98%로 주담대 연체율(1.16%)을 큰 폭 상회하고 있다.

II. 코로나19 장기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1. 검토 배경
2.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사정
3. 향후 전망 및 잠재리스크
4. 종합 평가

1.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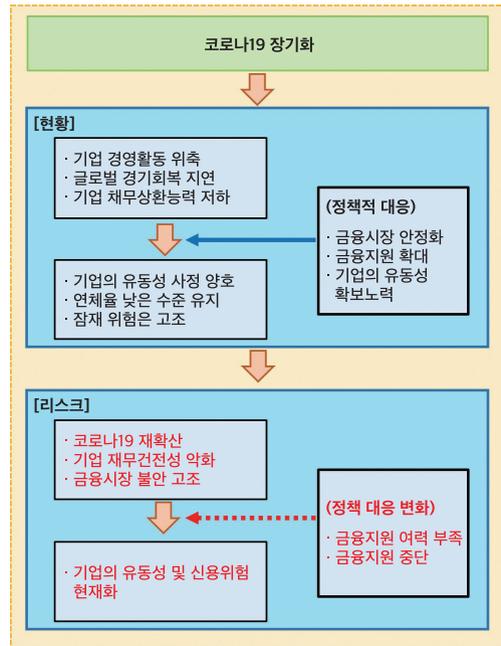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기업¹⁾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면서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통화정책의 완화적 운용,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을 통한 금융지원²⁾,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연체율이 낮은 수준³⁾을 나타내는 등 기업 부실 위험이 현재화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부진할 경우 국내외 실물충격으로 국내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되고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이 더욱 증대될 수 있다. 또한 내년 3월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중 일부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경영활동 및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경우에도 국내외 경기회복 및 기업 경영활동 정상화 시점이나 경로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유동성 및 신용 위험의 현재화 가능성 등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등의 정책대응 지속여부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그림 II-1).

그림 II-1. 코로나19 충격 및 잠재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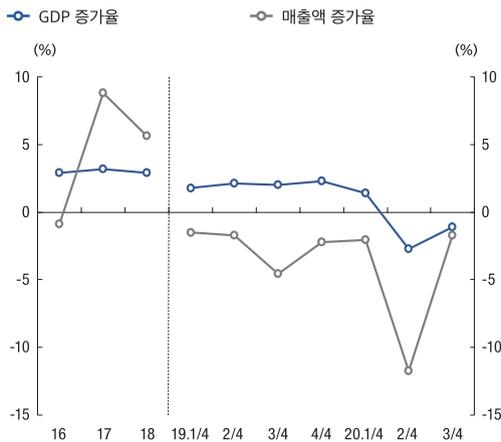
1) 국내 상장기업 2,013개 및 비상장기업 중 분기별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기업 285개 등 총 2,298개 기업(대기업 1,219개, 중소기업 1,079개)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기업의 2019년 매출액은 전체 법인기업의 40.4%를 차지한다.
 2) 코로나19 이후(20년 2월 7일~11월 6일) 금융권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대출 104.5조원, 만기연장 137.7조원 등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정책당국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15.8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였다.
 3) 국내은행의 2020년 9월말 기업대출 연체율(0.37%,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준)은 2007년 통계편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사정

가. 재무건전성

금년중 기업의 매출액은 1/4분기에 예년 수준을 나타냈으나 2/4분기 들어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큰 폭(-11.7%) 감소하였다. 다만 3/4분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였다⁴⁾(그림 II-2).

그림 II-2. 매출액 및 GDP 증가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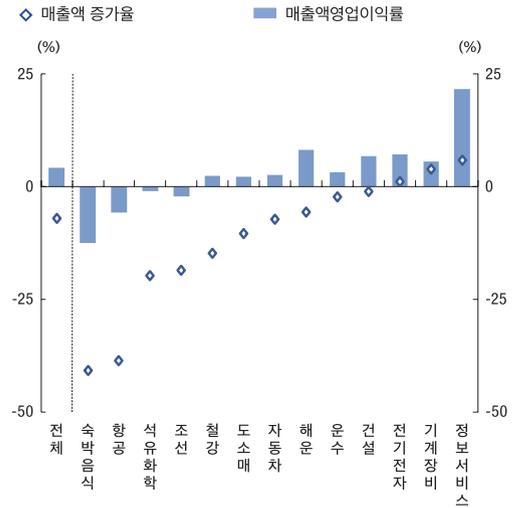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KIS-Value

금년 상반기중 매출액을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숙박음식(전년동기대비 -40.7%), 항공(-38.7%), 석유화학(-19.8%), 조선(-18.6%) 등의 매출액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정보서비스(+5.9%), 기계장비(+3.9%), 전기전자(+1.1%) 등의 업종에서는 소비행태 변화⁵⁾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그림 II-3).

그림 II-3.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¹⁾²⁾ 및 영업이익률¹⁾



주: 1) 2020년 상반기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KIS-Value

(과거 위기사례와의 비교)

한편 최근 기업의 재무건전성 저하 정도를 과거 위기사례와 비교⁶⁾해 보면 매출충격이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중 매출액 증가율(-7.0%)은 1996년 이후 최저 수준⁷⁾으로 과거 위기시(외환위기 -2.8%, 글로벌 금융위기 -2.4%)를 크게 하회하였다. 이

4) 금년 3/4분기 매출액 증가율은 자료 입수가 가능한 국내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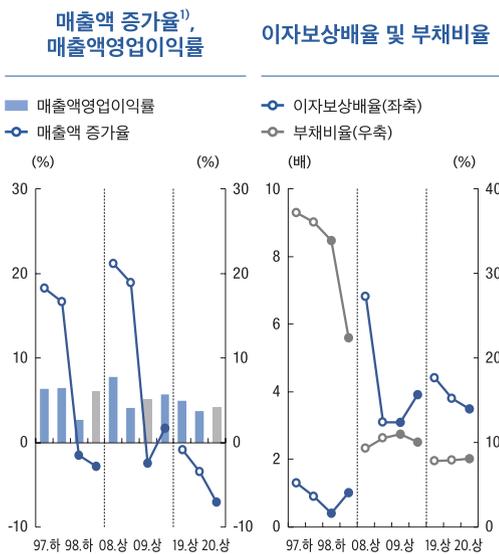
5)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이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근무, 학업, 문화, 레저 등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모하는 '홈코노미' 현상이 확산되면서 관련 스마트기기 소비가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등으로 비대면 소비도 활성화되었다.

6) 재무지표별로 금년 상반기와 과거 위기시 매출이 저하된 시기(98년 하반기~99년 상반기, 09년 상반기~하반기)의 최저값과 비교하였다. 다만,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의 계절성(영업비용 상당부분을 연말에 일시 계상함에 따라 하반기 이익이 상반기보다 작음) 등을 고려하여 금년 상반기를 99년 상반기 및 09년 상반기와 비교하였다.

7) 코스닥시장이 출범한 1996년 이후 시점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한편, 2002년 하반기(-7.8%) 및 2003년 상반기(-9.1%)의 매출액 감소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것은 종합상사의 회계처리변경에 주로 기인한다.

에 따라 매출액영업이익률(4.2%)도 외환위기(6.1%), 금융위기(5.1%)에 비해 낮았지만, 전년 동기대비 하락폭(-0.8%포인트)은 매출액 감소폭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다(외환위기 -3.7%포인트, 금융위기 -2.7%포인트). 또한, 이자보상배율 및 부채비율(3.5배, 81.1%)은 외환위기(1.0배, 339.2%) 및 금융위기(3.1배, 109.8%)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⁸⁾(그림 II-4).

그림 II-4. 과거 위기사례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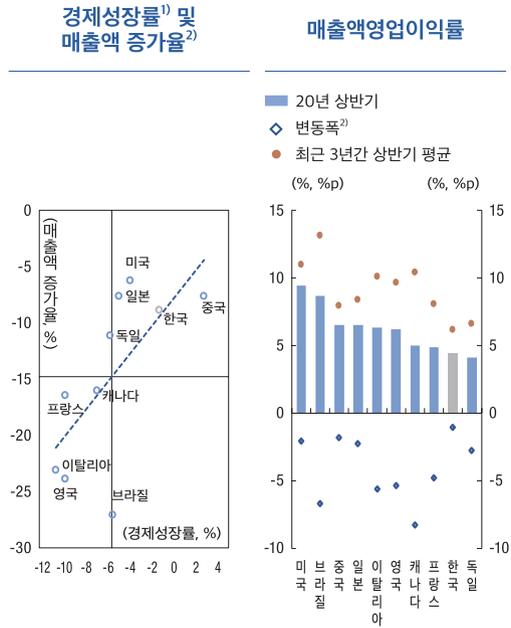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KIS-Value

(주요국과의 비교)

주요국과 비교⁹⁾해도 기업 재무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성장률(IMF 전망치, 금년중 -1.9%)이 주요국(평균 -5.9%)에 비해 하락폭이 작아 실물경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

운데, 매출액 감소폭(-8.9%)도 주요국(-14.8%)보다 작았다. 매출액영업이익률(4.4%)의 경우 주요국(6.2%)보다 낮았지만 매출액영업이익률 하락폭(전년동기대비 -1.1%포인트)도 주요국(-4.1%포인트)에 비해 작았다(그림 II-5).

그림 II-5. 주요국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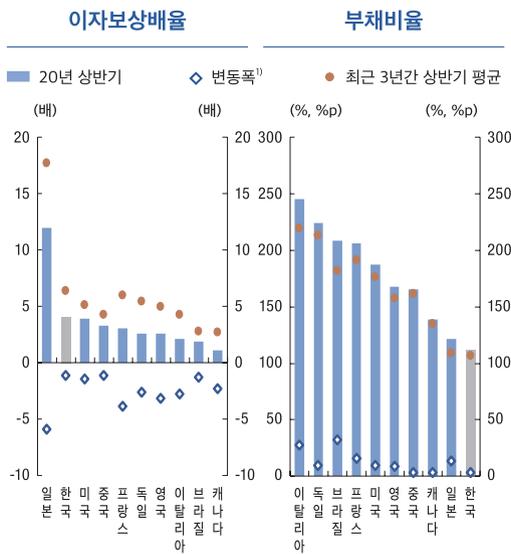


주: 1) IMF의 2020년중 전망치
2) 전년동기대비
자료: S&P Capital IQ

또한, 이자보상배율(4.0배)이 대부분의 국가보다 높았으며, 부채비율(111.7%)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그림 II-6).

8) 금년 상반기중 큰 폭의 매출충격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것은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 온 데다 한국은행 및 정부가 신속히 정책대응을 추진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9)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금년 상반기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비교를 위해 각국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재무지표가 앞의 분석에서와 다른 값을 보인다.

그림 II-6. 주요국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S&P Capital I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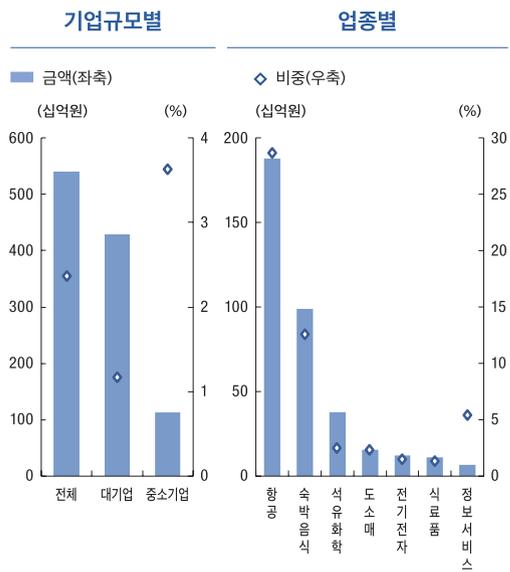
나. 유동성 사정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기업 유동성 사정은 정책당국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자금지원 대책 등에 힘입어 대체로 양호하였다. 2020년 상반기중 기업의 유동성 부족규모¹⁰⁾는 0.5조원, 유동성 부족기업 수 비중은 2.4%로 2019년 상반기중 0.2조원(1.4%)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다만 정부의 지원대책 등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유동성 부족규모가 4.9조원(5.8%)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¹¹⁾된다.

한편 상반기중 유동성 부족규모(0.5조원)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전체 유동성 부족의

79.3%를 차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항공(0.2조원), 숙박음식(0.1조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I-7).

그림 II-7. 유동성 부족규모 및 부족기업 수 비중¹⁾



주: 1) 2020년 상반기 기준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산

3. 향후 전망 및 잠재리스크

가. 업황 전망 및 시나리오 설정

한국은행 및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주요산업 전망 등을 기초로 내년도 매출액 증가율을 추정해 보았다. 글로벌 경기회복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하지만 코로나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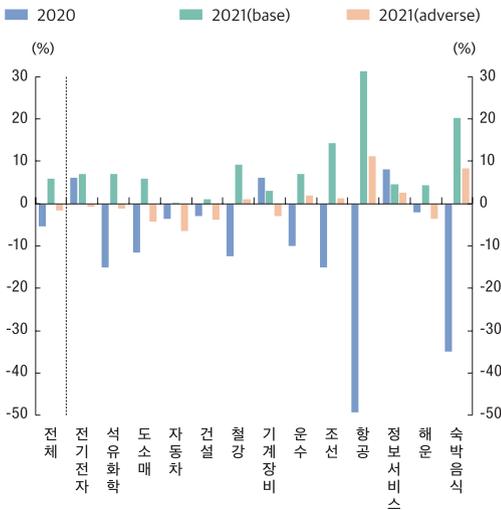
10) 영업이익을 포함한 유동자산 규모가 해당기간중 부채상환필요액보다 적은 경우를 유동성 부족 상황으로 간주하였다. 유동성 부족규모(SL)는 아래 산식을 통해 추정했으며, 유동화율은 그간의 비현금유동자산의 회전율을, 유동부채 차환율은 대출 만기연장률, 회사채 순발행 등을 반영해 각각 90% 내외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SL = ∑_t현금성자산 + (채고자산 + 매출채권) × 유동화율 + 영업손익 - 유동부채 × (1 - 차환율)

11) 금융지원 등이 없었을 경우의 유동화율 및 차환율은 매출충격 및 신용경계감 상승에 따른 유동화 및 부채차환 애로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각각 5%포인트 및 20%포인트(업종별) 하락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내년도 기업 매출액은 증가(5.8%)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정보서비스 등은 양호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감소폭이 컸던 항공업, 숙박음식업 등도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II-8).

그림 II-8.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 전망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사

향후 코로나19 장기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 유동성 및 신용 위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위의 매출액 전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기업 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21년중 매출액 증가율 5.8%)되는 상황을 기본(base) 시나리오로, 기업 실적 개선이 지연되면서 금년 3/4분기 수

준의 매출액 증가율¹²⁾(-1.7%)이 지속되는 상황을 비관적(adverse)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또한 각 시나리오별로 금융지원이 지속(금융지원액¹³⁾ 0% 회수)되는 경우와 종료(금융지원액 100% 회수)되는 경우를 각각 설정하였다(표 II-1).

표 II-1. 시나리오 설정

	매출액 증가율	금융지원액 회수율
기본	5.8%	0%
		100%
비관적	-1.7%	0%
		100%

나. 재무건전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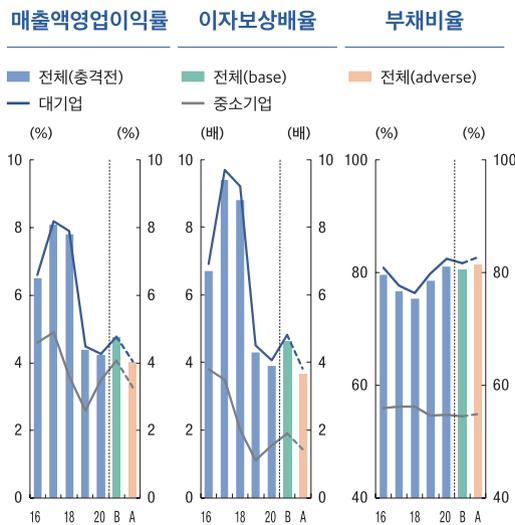
내년중 기업의 매출액 변동에 따른 재무건전성¹⁴⁾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기본 상황 하에서는 대체로 개선되겠지만 비관적 상황 하에서는 금년보다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기본 상황 하에서는 4.8%로 상승(20년 4.2%^e 대비 +0.6%포인트)하겠으나 비관적 상황 하에서는 4.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보상배율과 부채비율도 기본 상황 하에서는 4.6배 및 80.3%로 금년의 이자보상배율 3.9배 및 부채비율 81.1%보다 개선되겠으나 비관적 상황 하에서는 3.7배 및 81.3%로 금년보다 다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관적 상황 하에서의 기업 이자보상배율(3.7배)은 글로벌 금융위기시(09년 3.8

12) 자료 입수가 가능한 국내 상장기업 기준 매출액 증가율을 활용하였다.
 13) 금융지원액은 '중·저신용등급 기업의 2020년중 차입금(사채 포함) 증감액(추정) - 2019년중 차입금 증감액'으로 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신용등급 기업의 경우 별도의 금융지원 없이도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중·저신용등급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금년중 금융지원액 규모는 약 60조원에 이른다.
 14) 정부의 금융지원 종료 여부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자상환유예 조치 종료 등은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연중 이자유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20년 2월 7일~8월 21일중 394억원)되는 데다 분석대상 기업들이 이자상환유예를 신청한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배)와 비슷하나 외환위기시(98년 0.6배)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그림 II-9).

그림 II-9. 시나리오별 기업 재무건전성 지표 변화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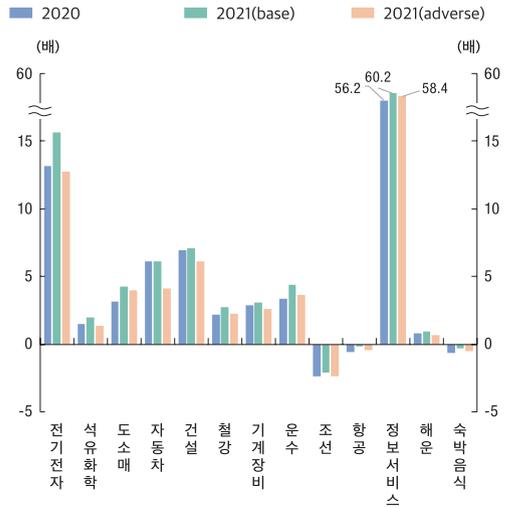


주: 1) 2020년 연간 데이터는 기업의 2020년 3/4분기 실적을 토대로 추정
2) B(A)는 2021년의 base(adverse) 시나리오를 의미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산

(업종별 전망)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자보상배율의 경우 기본 상황에서도 조선(-2.0배), 숙박음식(-0.3배), 항공(-0.2배) 등 일부 업종이 매우 악화되어 영업 적자에 처하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적 상황에서는 이들 업종에 더해 해운(0.7배)도 추가적으로 이자상환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전자, 정보서비스 등은 비대면 활동의 보편화 등으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이자상환능력이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II-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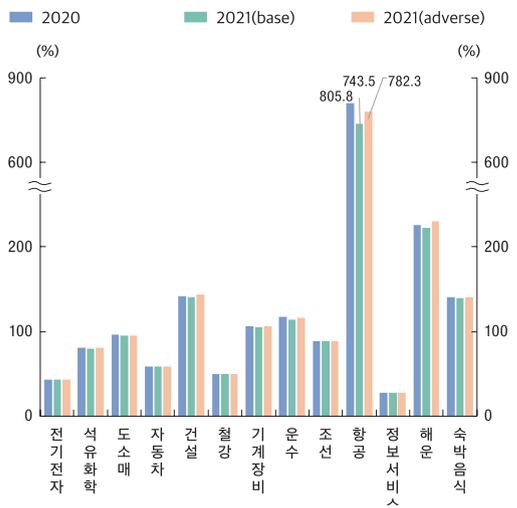
그림 II-10.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변화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산

부채비율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이 2020년 수준에서 소폭 등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공⁵⁾의 경우 시나리오별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변동하면서 부채비율의 등락이 매우 큰 모습을 보였다(그림 II-11).

그림 II-11. 업종별 부채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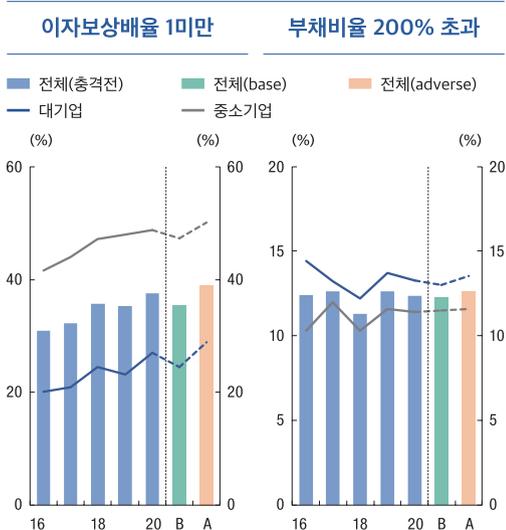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산

15)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자금지원 계획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취약기업)

한편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및 부채비율 200% 초과(과다부채) 기업 비중도 비관적 상황 하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은 2020년 37.5%에서 기본 상황 하에서 35.5%로 낮아졌으나 비관적 상황 하에서는 39.1%로 높아졌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시(08년 32.7%)보다는 높으나 외환위기시(98년 41.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과다부채 기업 비중도 금년 12.4%에서 기본 상황 하에서 12.3%로 낮아지는 반면 비관적 상황 하에서는 12.6%로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II-12).

그림 II-12. 재무건전성 취약기업 비중¹⁾ 변화²⁾



주: 1) 분석대상 기업 대비 이자보상배율 1미만(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 비중

2) B(A)는 2021년의 base(adverse) 시나리오를 의미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산

다. 유동성 및 신용 위험

(유동성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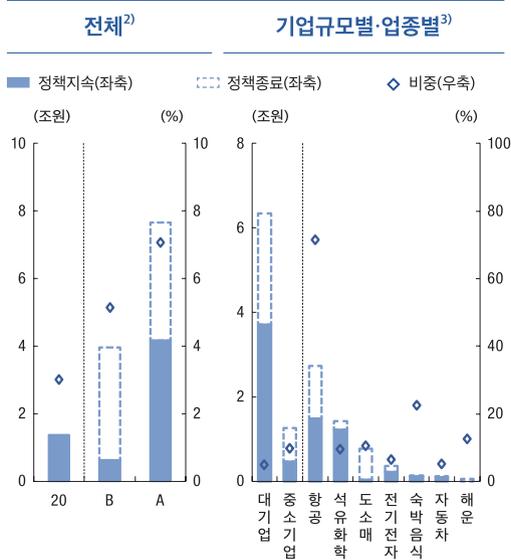
내년중 기업의 유동성 사정을 살펴보면 금융지원액의 회수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원이 연장된 경우, 유동성 부족규모¹⁶⁾는 기본 상황 하에서 0.6조원으로 금년(1.4조원)보다 줄어들고 비관적 상황 하에서는 4.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지원액이 전액 회수될 시에는 유동성 부족규모가 기본 상황 하에서 4.0조원, 비관적 상황 하에서 7.7조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유동성 부족기업 수 비중도 금년 3.0%에서 각각 5.1% 및 7.0%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관적 상황 하에서 금융지원액이 전액 회수될 경우에는, 유동성 부족(7.7조원)의 대부분이 대기업(6.3조원)에서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항공(2.7조원), 석유화학(1.4조원), 도소매(0.7조원) 등에서 유동성 부족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성 부족기업 수 비중은 대기업(4.8%)보다 중소기업(9.6%)이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항공(71.4%) 및 숙박음식(22.2%)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그림 II-13).

16) 시나리오별 유동성 부족규모(SL_scenario)는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추정하였다. 유동화율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동부채(회수되는 금융지원금 제외)에 대한 차환율은 업종별 매출충격 등을 반영하여 시나리오별로 조정하였다.

$$SL_scenario = \sum_{i=1}^n | \text{현금성자산}_i + (\text{재고자산} + \text{매출채권})_i \times \text{유동화율} + \text{영업손익}_i - (\text{유동부채}_i - \text{금융지원금}_i) \times (1 - \text{차환율}) - \text{금융지원금}_i \times \text{회수율} |$$

그림 II-13. 시나리오별 유동성 부족규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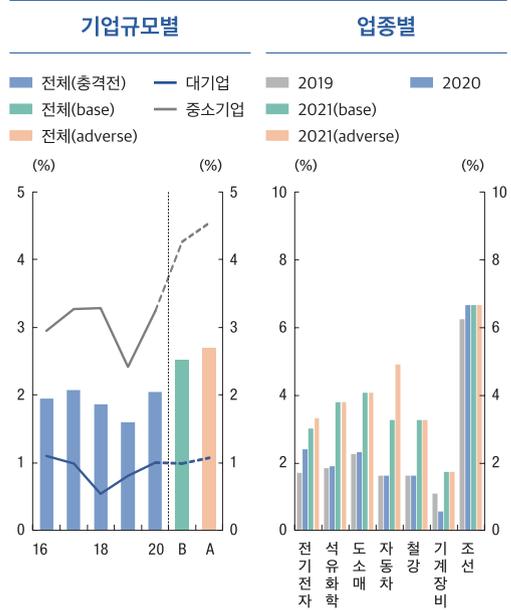


주: 1) 2021년중 기준
 2) B(A)는 2021년의 base(adverse) 시나리오를 의미하며, 부족기업 수 비중은 해당 시나리오에서 금융지원이 중단된 경우
 3) adverse 시나리오 하에서 금융지원이 중단된 경우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산

(신용위험)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자본잠식¹⁷⁾ 기업 수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금년중 2.0%에서 내년에는 모든 시나리오(기본 상황 2.5%, 비관적 상황 2.7%) 하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서, 업종별로는 조선, 자동차 및 도소매 등에서 자본잠식 기업 수 비중이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II-14).

그림 II-14. 시나리오별 자본잠식 기업 수¹⁾ 비중 변화



주: 1) B(A)는 2021년의 base(adverse) 시나리오를 의미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산

한편 주요 재무지표 전망을 토대로 2021년중 부도확률¹⁸⁾을 추정해 보면 기본 상황(1.38%) 하에서는 2020년(1.41%)보다 소폭 낮아지나 비관적 상황(1.59%)에서는 큰 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적 상황 하에서의 부도확률(1.59%)은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나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08년 1.64%) 및 외환위기(98년 1.79%)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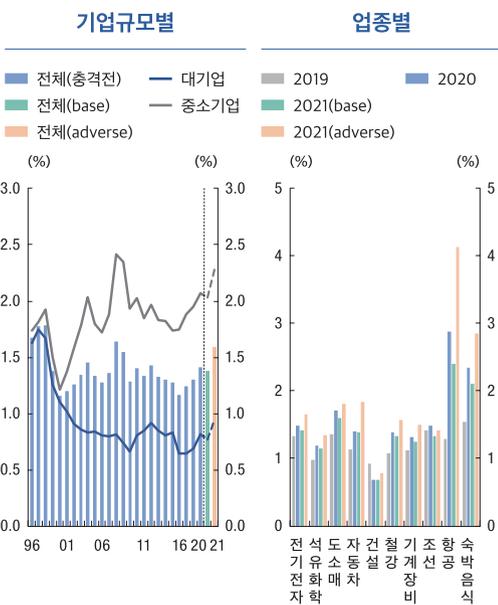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비관적 상황 하에서 부도확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7) 2016~19년의 경우 해당연도말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2020~21년에는 전연도말 순자산에 해당연도의 영업이익을 더한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자본잠식으로 간주하였다.

18) 1년 후 부도 발생 여부를 종속변수로, 당해년도 주요 재무지표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기업이 “향후 1년 내에 부도에 직면할 확률(부도확률)”을 로짓 모형을 이용, 추정·예측하였다. 부도는 KIS-Value 데이터 상 폐업, 지급불능(총자산<총부채) 등으로 기업이 실질적 채무불이행에 이른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외생변수로는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이익잉여금/총자산), 유동성((유동자산-유동부채)/총자산), 안정성(자기자본/총자산, 차입금의존도), 채무상환능력(이자보상배율 1미만 여부, 한계기업 여부, 부채비율 200% 초과 여부), 투자 효율성(매출액/총자산), 기업규모(로그총자산) 등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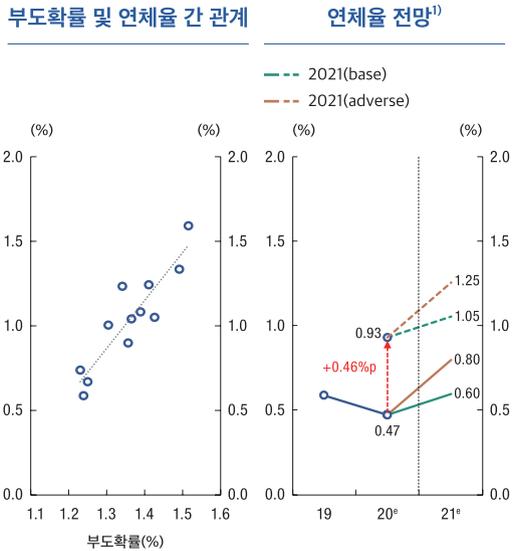
자동차, 항공, 숙박음식 등이 매출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그림 II-15).

그림 II-15. 시나리오별 부도확률¹⁾ 추이 및 전망



주: 1) 개별 기업 부도확률의 평균 기준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산

그림 II-16. 부도확률 및 기업대출 연체율



주: 1) 실선(점선)은 금융지원이 지속(종료)되는 상황을 나타냄
자료: KIS-Value, 은행 업무보고서

4. 종합 평가

기업의 부도확률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연체율 수준을 추정해 보면, 기업 부도확률과 연체율 간의 상관 관계¹⁹⁾를 고려할 때 금년중 비교적 낮은 연체율(0.47%, 20년중 평균)이 금융지원 조치 등이 없었다면 0.93%까지 상승(+0.46% 포인트²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내년 중에는 비관적 상황 하에서 금융지원 조치가 유지되는 경우 0.80%, 지원조치가 종료되는 경우 1.25%까지 상승할 수 있다(그림 II-16).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정책적 지원,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 등에 힘입어 아직까지는 부실위험이 현재화되지 않고 있다. 내년중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경우에는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진정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글로벌 생산 및 교역구조의 복구 지원 등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 부도확률의 정의(향후 1년 이내 부도가 발생 할 확률)를 고려하여 2007~19년중 부도확률((t-2)기, (t-1)기 및 t기 값의 평균)과 연체율(t기)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0.90으로 매우 높으며, 부도확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경우 연체율이 0.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기업대출 연체율과 부도확률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기초로 추정한 금년 연체율(0.93%)과 실제 금년 연체율(0.47%) 간의 차이(0.46%포인트)를 금융지원에 따른 정책효과로 간주하였다.

기업 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도 금융지원 조치가 중단될 경우에는 유동성 부족규모가 4.0조원에 달하고 적지 않은 수(5.1%)의 기업이 유동성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 실적개선이 지연되는 비관적 상황에서 금융지원액이 모두 회수되면 유동성 부족규모가 7.7조원(유동성 부족기업 수 비중 7.0%)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낮은 자본잠식 기업의 비중은 금년중 2.0%에서 기본 상황 하에서는 2.5%, 비관적 상황 하에서는 2.7%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상을 감안할 때, 금융지원 조치를 전면 종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크다. 아울러 신용경계감이 강화될 경우 기업의 유동성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자본잠식기업도 늘어나는 등 누적된 신용위험이 기업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완화적 금융지원 조치가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자칫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향후 금융지원 조치는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업황 개선속도 등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한편 장기 존속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Ⅲ. 경기회복 지연과 금융불균형 조정의 부문별 영향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1. 검토 배경
2. 최근 신용위험 평가 현황
3. 리스크 파급경로 및 시나리오
4. 부문별 영향 점검
5. 종합 평가

1.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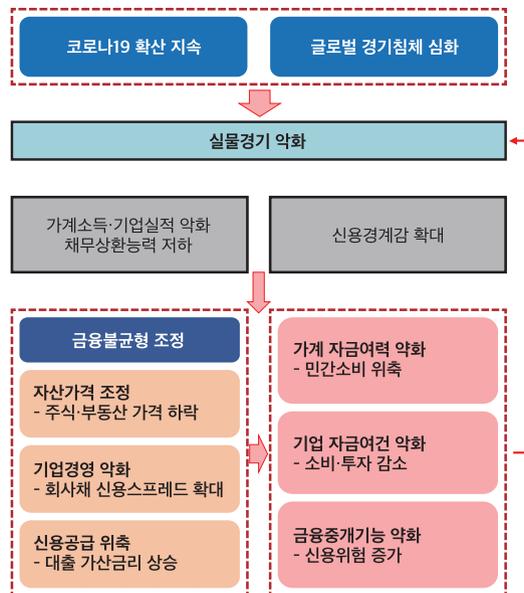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직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금융 시장은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빠르게 안정되었다. 그러나 실물경기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높은 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실물과 금융 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¹⁾

이러한 금융불균형²⁾의 누증은 향후 대내외 충격 발생시 자산가격 하락, 디레버리징 등을 통해 시스템적 혼란(systemic disruption)을 야기하고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물경기 부진이 이어질 경우 가계소득 및 기업매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경제주체들의 채무상환능력도 저하되면서 금융시장에서 신용경계감이 높아지게 된다. 회

사채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은행 가산금리도 높아지는 등 금융시장에서의 신용위험 평가가 달라질 경우 자산가격 급락, 신용공급 위축 등으로 금융불균형 상황이 빠르게 조정된다. 이 같은 금융불균형 조정 과정은 재차 실물경기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 신용경색을 확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그림 Ⅲ-1).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금융시장에서의 신용위험 평가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경기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용위험 재평가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급격히 조정되는 스트레스 상황이 가계, 기업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았다.

그림 Ⅲ-1. 급격한 금융불균형 조정의 파급경로



1) IMF는 높은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위험선호가 강화되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Bridge to Recovery", 20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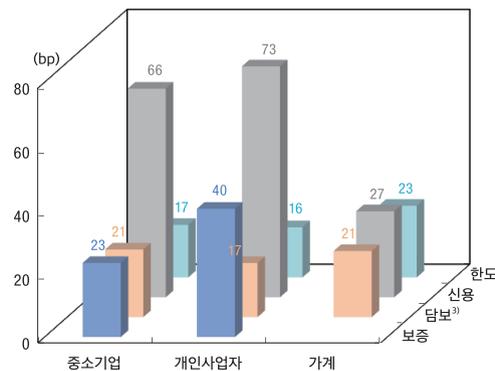
2) FSB 등에 의하면, 금융불균형은 급격한 신용축적, 자산가격의 과도한 상승, 위험선호 강화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금융 부문 내 잠재리스크가 실물경제의 감당 수준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2. 최근 신용위험 평가 현황

가. 현황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계감이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다소 높아진 모습이다. 은행대출 가산금리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노력 등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장기화됨에 따라 이후 상당폭 상승하였다. 대체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및 가계의 신용대출 가산금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그림 I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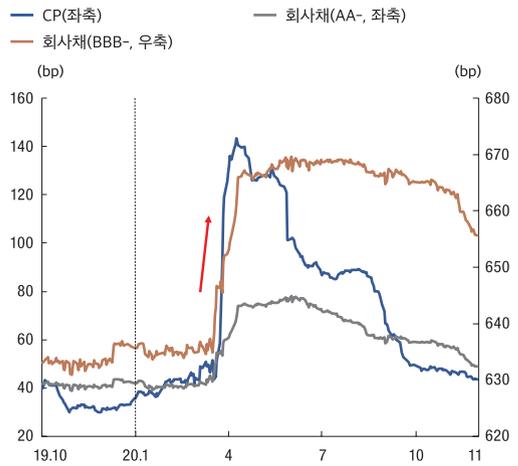
그림 III-2. 대출 가산금리¹⁾ 변동²⁾



주: 1) 4대 시중은행 평균 기준이며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은 대출취급월 포함 3개월 이동평균, 가계는 대출취급월 평균 기준
 2) 2020년중 최저치 대비 2020년 10월 가산금리 상승폭
 3) 기업은 물적담보, 가계는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 기준
 자료: 은행연합회

회사채 및 CP 시장 신용스프레드도 코로나19 확산 전에 비해 소폭 확대되었다. 특히 비우량 회사채(BBB-, 3년) 신용스프레드의 경우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이후에도 크게 축소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II-3).

그림 III-3. CP¹⁾·회사채²⁾ 신용스프레드



주: 1) CP(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 통안증권(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2) 회사채(3년, 민평 평균) - 국고채(3년, 최종호가수익률)
 자료: 금융투자협회

그러나 장기적인 시계에서 비교해보면 금융시장 가격변수에 반영된 신용경계감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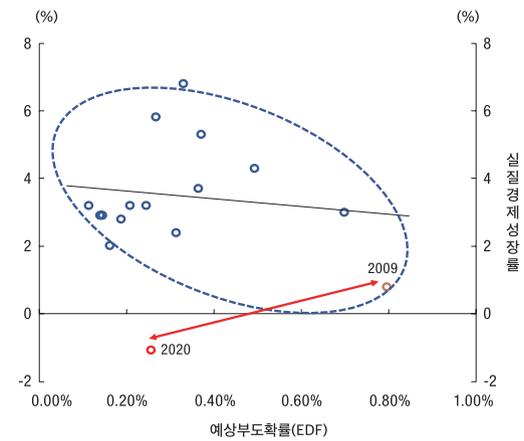
직·간접 금융시장에서 은행대출 가산금리와 회사채·CP 신용스프레드가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전 장기(10년)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다(그림 III-4).

그림 III-4. 대출 가산금리¹⁾, 회사채²⁾·CP³⁾ 신용스프레드



주: 1) 예금은행 대출(신규취급액 기준) - 은행채(AAA, 3개월, 민평 평균)
 2) 회사채(AA-, 3년, 민평 평균) - 국고채(3년, 최종호가수익률)
 3) CP(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 통안증권(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4) 2010년 1월 ~ 2019년 12월 월평균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그림 III-5. 실질GDP 성장률¹⁾과 예상부도확률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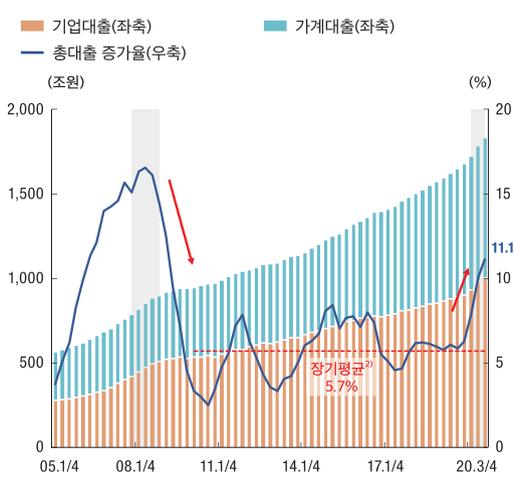
주: 1) 2005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은 한국은행 전망치(-1.1%)
 2) 2020년은 1~11월중 일평균
 자료: 한국은행, KRM

한편 주가에 반영된 기업의 예상부도확률³⁾(EDF: Expected Default Frequency)을 보면, 과거와 달리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과거 장기(10년) 평균과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1%(20년 11월 한국은행 전망 기준)로 2009년 0.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나 주식시장에서의 예상부도확률은 2009년 0.8%(일평균 기준)보다 크게 낮은 0.25%로 추정되고 있다(그림 III-5).

다음으로 신용공급 상황을 살펴보면, 은행들이 과거 위기와 달리 완화적인 대출태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은행을 통한 신용공급이 크게 확대되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국내은행의 대출태도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신용공급이 크게 위축⁴⁾되었으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는 은행대출이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대출 증가율이 장기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그림 III-6).

3) Kealhofer, McQuown, Vasicek가 Merton의 구조모형에 근거하여 개발한 예상부도확률(EDF)은 기업의 시장자산가치(주식시가총액으로 추정)가 1년 이내에 부도점(상환도래 부채 규모, Default Point) 이하로 하락할 확률을 의미하며, 기업의 자산가치, 성장성 및 변동성 등을 통해 미래 시점의 기업가치 분포를 추정 후 현재 명목부채 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산출한다. 통상 경기가 부진할 때 기업의 부도확률은 높아지는 역의 관계를 보인다.
 4) 국내은행들의 대출공급에 대한 완화적 정도를 나타내는 대출태도 지수는 2008년 평균 -17로 2020년 평균 4보다 크게 낮았으며, 대출 증가율은 2008년 2/4분기를 정점(전년동기대비 16.5%)으로 2010년 3/4분기 2.5%까지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림 Ⅲ-6. 국내은행 대출잔액 및 증가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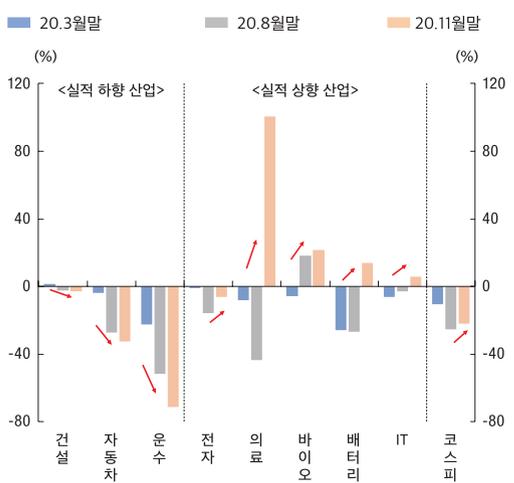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2) 2010년 1/4분기~2019년 4/4분기 분기평균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나. 저평가 배경

이처럼 신용위험이 과거 위기시나 실물경제 여건에 비해 금융시장 가격변수 및 신용공급량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배경으로 먼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⁵⁾를 들 수 있다. 일부 경제주체들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의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경제 시스템 내부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경제 외적인 보건 충격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의료 환경이 개선될 경우 경기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도 산업구조 변화⁶⁾를 통해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바이오, IT 기업 등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점이 이러한 기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Ⅲ-7).

그림 Ⅲ-7. 업종별 영업이익 컨센서스¹⁾ 변화²⁾



주: 1) 2019년 12월말 이후 컨센서스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코스피 기업 기준
 2) 2019년 12월에 전망한 2020년 영업이익 전망치 대비 증가율
 자료: Fnguide

다음으로 정책지원에 대한 신뢰와 기대⁷⁾도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한국은행과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5) IMF는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시장의 광범위한 회복은 향후 빠른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론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Update", 20년 6월).
 6)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한국은행, 20년 6월)을 참고하기 바란다.
 7) IMF는 최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간 괴리가 경제주체들의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에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정책지원에 대해 시장참가자들의 평가가 달라지거나(reassess the scope for policy support) 실물경기 회복이 더욱 지연된다면 위험평가에 대한 급격한 조정(sharp adjustment)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년 10월).
 8) BIS도 각 국의 전례없는 정책지원이 금융시장에서 기업 파산위험(default risk)을 낮게 평가하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BIS Bulletin", 20년 10월).

이와 더불어 향후 금융불안이 재발하더라도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신속한 정책지원이 가능하다면 대규모 부실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이 과거보다 저평가된 데에는 펀더멘털(fundamental)의 개선보다는 경제주체들의 긍정적인 기대(expectation)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의 기대는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할 수 있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내외 여건이 다시 악화될 경우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리스크 파급경로 및 시나리오

가. 파급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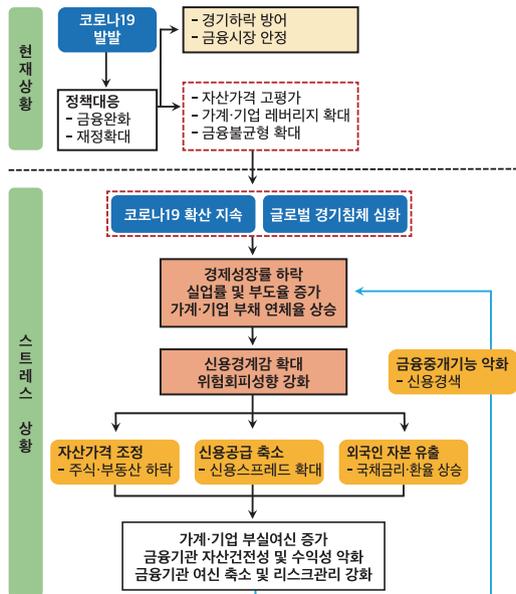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었으나 금융시스템 내 잠재 금융취약성은 누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경기부진이 심화된다면 가계와 기업 부문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경제주체의 위험회피성향 강화는 신용위험의 재평가로 이어져 회사채,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자산가격 하락은 금융기관

의 수익성 및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자본비용 등 규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자산 매각, 신규대출 축소, 기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대응한다면 신용경색이 더욱 확산되고 성장률이 추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그림 Ⅲ-8).

그림 Ⅲ-8. 금융시스템 리스크 파급경로



나.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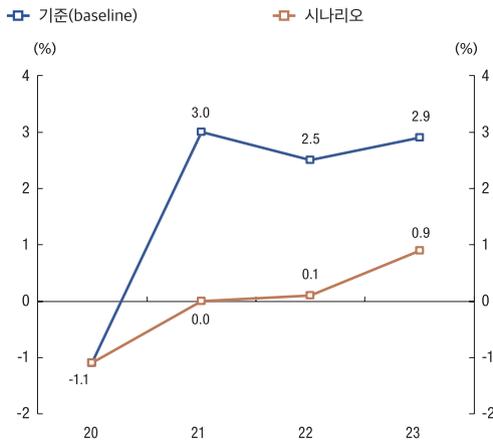
금번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누적된 금융불균형이 조정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테스트 기준시점은 2020년 2/4분기말이며 시나리오 충격이 향후 3년간 지속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⁹⁾

9) 거시경제 및 금융 변수의 2020년 3/4분기 값은 실적치를 이용하였다.

(경기회복 지연)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의 기준(baseline) 경로는 한국은행과 IMF의 경제전망 자료를 토대로 설정하였다.¹⁰⁾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에서는 IMF의 경제성장률 하방 추정치¹¹⁾를 활용하여 성장률이 baseline 경로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그림 III-9).

그림 III-9. 국내 GDP 성장률 시나리오¹⁾



주: 1) 연간 실질GDP 성장률 기준
 자료: 한국은행(20년 11월), IMF(20년 10월)

(금융시장 불안 가중 및 금융불균형 조정)

시장참가자의 위험회피성향 확대 및 신용위험 증대 등으로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신용공급이 위축되면서 금융불균형이 조정되는 상황

을 가정하였다. 주요 거시경제 및 금융 변수들의 경로는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의 거시 시나리오 모듈¹²⁾,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¹³⁾ 등을 참고하여 추정하였다(표 III-1).

표 III-1. 주요 금융 변수 시나리오¹⁾

(%, bp)

	2020년 3/4분기	시나리오	
		테스트기간 ²⁾ 평균	최대 하락 구간 ³⁾
주가	2,302	1,672	1,345
주택가격 변동률 ⁴⁾	3.8	0.1	-1.4
국고채(3년) 신용스프레드 ⁵⁾	37	90	122
회사채(3년) 신용스프레드 ⁶⁾	64	193	292

주: 1) 분기 평균 기준
 2) 2020년 3/4분기~2023년 2/4분기
 3) 국고채·회사채 신용스프레드의 경우 최대 상승 구간 기준
 4) 주택매매가격 기준, 전년동기대비
 5) 국고채(3년) 금리-콜 금리
 6) 회사채(AA-, 3년) 금리-국고채(3년) 금리

4. 부문별 영향 점검

본고에서는 개별 금융기관 및 금융업권의 자본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분석하는 기존의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에 더해, 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을 가계·기업 대출로 구분하고 동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추가로 점검하였다. 이는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금융불균형이 조정되는 상황에서 가계·기업이 받는 충격이 상이할

10) 국내 GDP의 기준(baseline) 경로는 2020~22년의 경우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년 11월)를, 2023년의 경우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20년 10월) 추정치를 활용하여 설정하였다.
 11) IMF에서는 세계, 선진국 및 신흥국 GDP에 대하여 향후 성장경로를 상방(upside), 기본(baseline) 및 하방(downside) 시나리오 별로 추정하였다(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20년 10월). 금번 스트레스 테스트의 국내 GDP 성장률 시나리오는 baseline 추정치에 IMF의 선진국 GDP 성장률 하방 추정치(baseline 대비 하락폭 기준)를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12) 자세한 내용은 2018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의 <금융안정 현안 분석> 「I.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 결과」(83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13)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가(분기 평균, 이하 동일)는 1,132까지 하락(직전 최고점 대비 -41.9%)하였고, 국고채(3년)-콜금리 스프레드는 230bp까지, 회사채(AA-, 3년)-국고채(3년) 금리 스프레드는 364bp까지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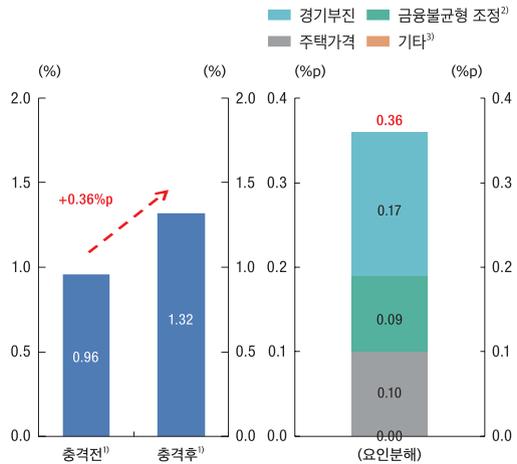
수 있으므로 부문별 취약성을 식별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융업권별 부도율¹⁴⁾ 외에 가계·기업 대출의 부도율을 별도로 추정하고, 부도율 상승의 원인을 경기부진과 금융불균형 조정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대출(20년 2/4분기말 1,791조 원)의 부실규모(48.1조원, 향후 3년간 누적 기준, 이하 동일)가 가계대출(1,429조원)의 부실규모(18.7조원)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손실(66.8조원), 시장손실(76.4조원) 외에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로 신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18.2조원 규모의 전염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가계부문

가계부문 부도율은 경기부진 및 금융불균형 조정 충격 발생시 0.36%포인트 상승(20년 2/4분기 0.96% → 23년 2/4분기 1.32%)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도율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경기부진(0.17%포인트)과 함께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0.10%포인트)가 가계대출 부도율 상승을 주도하였다(그림 III-10).

그림 III-10. 가계대출 부도율 변동요인 분해



주: 1) 충격 전(후)은 baseline(스트레스 상황) 기준

2) 주택가격 효과 제외 기준

3) 시차 종속변수 효과 등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약화에 따른 금융기관 가계대출의 부실규모는 18.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⁶⁾ 이는 2020년 2/4분기의 금융기관 가계대출인 1,429조원의 1.3%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5.2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요인별로 보면 경기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로 3.1조원, 자산가격·신용증가율 하락 등 금융불균형 조정으로 2.0조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⁷⁾(그림 III-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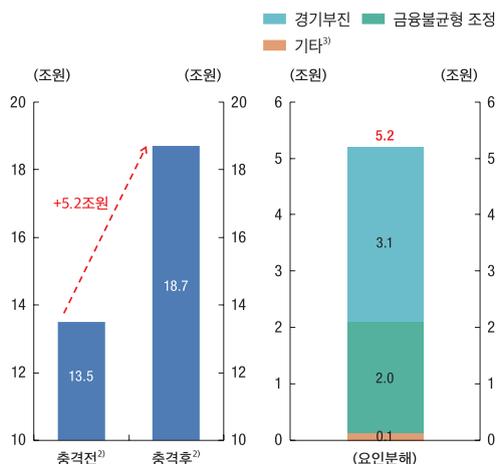
14)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은 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설명변수는 시차 종속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 성장률, 금리, 회사채 수익률, 환율, 주가, 주택가격 등의 거시변수를 사용하였다.

15) 대출 잔액은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 금융기관의 가계 및 기업 관련 익스포저 기준이다.

16)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자산건전성 분류 하락에 따른 신용손실과 같으므로 이하 '신용손실'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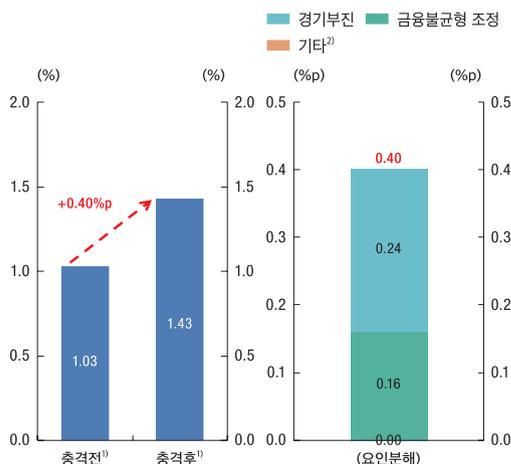
17) 전체 증가액인 5.2조원과 차이인 0.1조원은 시차 종속변수 효과 등에 기인한다.

그림 Ⅲ-11. 가계부문 신용손실¹⁾ 증가



주: 1) 3년간 누적 손실 기준
 2) 총격 전(후)은 baseline(스트레스 상황) 기준
 3) 시차 종속변수 효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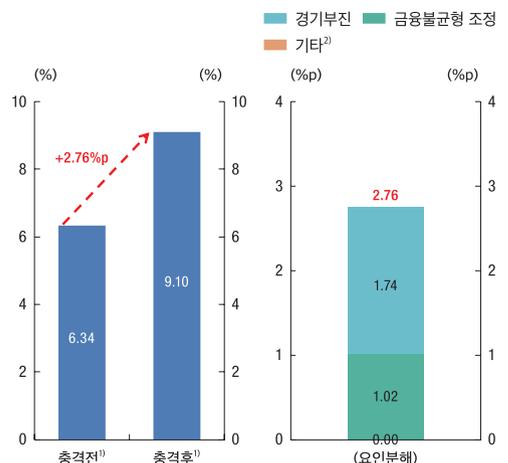
그림 Ⅲ-12. 가계대출 부도율 변동요인 분해(카드사)



주: 1) 총격 전(후)은 baseline(스트레스 상황) 기준
 2) 시차 종속변수 효과 등

업권별로 보면 가계부채의 부실은 신용카드회사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표 Ⅲ-2). 신용카드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가계소득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가계대출 대비 신용손실 비율이 각각 8.3%, 5.4%로 타 업권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Ⅲ-12, Ⅲ-13). 한편 은행의 경우 가계부채 부도율이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신용손실 규모는 대출 대비 0.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Ⅲ-13. 가계대출 부도율 변동요인 분해(저축은행)



주: 1) 총격 전(후)은 baseline(스트레스 상황) 기준
 2) 시차 종속변수 효과 등

표 Ⅲ-2. 업권별 가계대출 신용손실 예상 규모¹⁾

업권	신용손실(A)	가계대출 잔액(B)	A / B × 100
전체	18.7	1,428.6	1.3
은행	3.4	878.4	0.4
저축은행	1.5	27.8	5.4
상호금융	3.9	347.2	1.1
신용카드	9.8	117.8	8.3
보험	0.2	57.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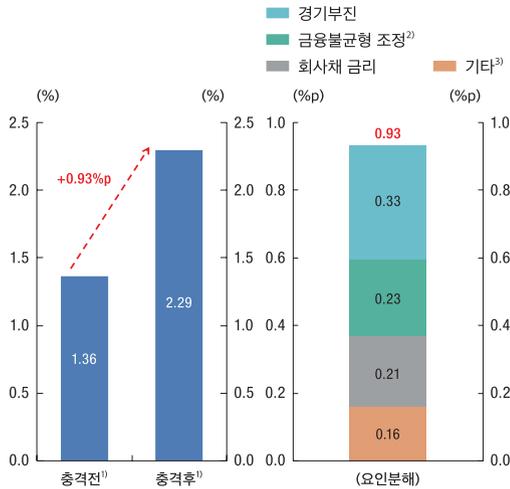
주: 1) 3년간 누적 손실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나. 기업부문

기업부문 부도율은 충격의 영향으로 2020년 2/4분기 1.36%에서 2023년 2/4분기 2.29%로 0.9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0.33%포인트)와 신

용스프레드 확대(0.21%포인트)가 부도율 상승의 주요인으로 파악되었다(그림 Ⅲ-14).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금융시장에서 신용경계감이 커지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차입 접근성은 축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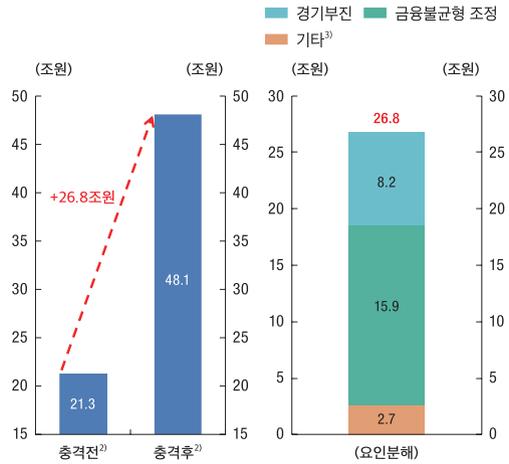
그림 Ⅲ-14. 기업대출 부도율 변동요인 분해



주: 1) 총격 전(후)은 baseline(스트레스 상황) 기준
 2) 회사채 금리 효과 제외 기준
 3) 시차 종속변수 효과 등

기업대출의 부도율이 크게 상승하며 금융기관은 향후 3년간 누적 48.1조원의 신용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계부문 신용손실 규모(18.7조원)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대출금 대비 신용손실 비율을 보더라도 기업부문이 2.7%로 가계부문 1.3%를 크게 상회하며 이는 모든 금융업권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¹⁸⁾ 한편 요인별로 보면 총격 전에 비해 경기부진으로 8.2조원, 금융불균형 조정으로 15.9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Ⅲ-15).

그림 Ⅲ-15. 기업부문 신용손실¹⁾ 증가



주: 1) 3년간 누적 손실 기준
 2) 총격 전(후)은 baseline(스트레스 상황) 기준
 3) 시차 종속변수 효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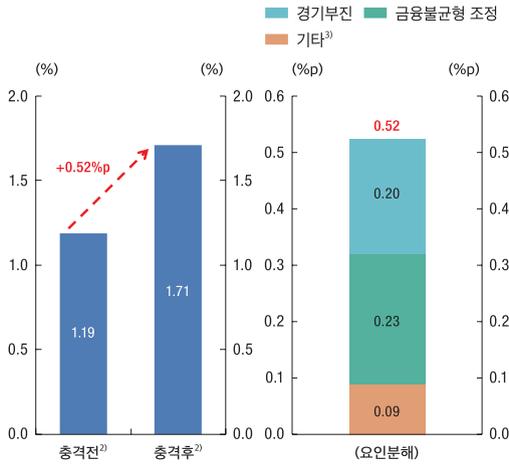
다. 금융기관

경기부진과 금융불균형 조정을 가정한 시나리오 하에서 가계·기업 대출 부실화로 인한 신용손실과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시장손실로 인해 일부 금융기관의 자본비율¹⁹⁾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16, Ⅲ-17).

18) 가계 및 기업 부문의 대출금 대비 신용손실 비율은 은행 0.4% 및 2.5%, 저축은행 5.4% 및 8.9%, 상호금융 1.1% 및 3.2%, 보험 0.3% 및 2.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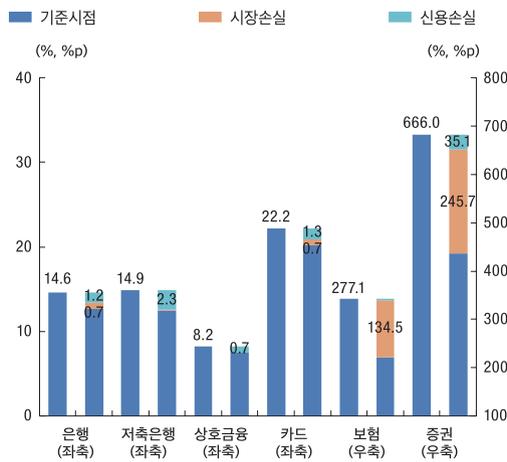
19) 분고에서 자본비율 변동은 금년 6월부터 각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바젤Ⅲ 개편안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그림 III-16. 대출채권¹⁾ 부도율 변동



주: 1) 가계 및 기업 대출 기준
 2) 충격 전(후)은 baseline(스트레스 상황) 기준
 3) 시차 종속변수 효과 등

그림 III-17. 신용 및 시장 손실의 자본비율 변동 기여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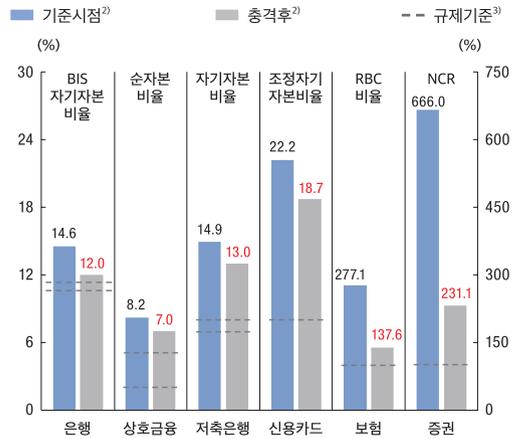


주: 1) 기준시점 대비 기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업권별 평균 자본비율은 모두 규제수준을 상회하겠으나 증권회사(-434.9%포인트)와 보험회사(-139.5%포인트)

에서 자본비율 하락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타 업권에 비해 보유자산 중 유가증권 비중이 높아²⁾ 금융불균형 조정에 따른 금융자산 가격 하락으로 시장손실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그림 III-18, 표 III-3).

그림 III-18.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¹⁾



주: 1) 은행-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카드는 좌측, 보험-증권은 우측 기준
 2) 기준시점은 2020년 2/4분기말, 충격후는 2023년 2/4분기말
 3) 규제기준은 은행 10.5%(D-SIB 11.5%), 상호금융조합 2~5%, 저축은행 7%(자산 1조원 이상 8%), 카드 8%, 보험 100%, 증권 100%

표 III-3. 업권별 시장손익 예상 규모¹⁾²⁾

업권	(조원, %)		
	시장손익(A)	유가증권 잔액(B)	A / B × 100
전체	-76.4	1,304.6	-5.1
은행	-5.1	357.3	-2.0
저축은행	0.0	2.6	0
상호금융	0.1	10.0	1.0
신용카드	-0.9	4.1	-22.0
보험	-67.0	588.6	-11.4
증권	-3.7	342.0	-1.1

주: 1) 향후 3년간(20년 3/4분기~23년 2/4분기) 누적 추정치
 2) 양(+)의 값은 이익을, 음(-)의 값은 손실을 의미

20) 2020년 2/4분기말 기준으로 보험회사는 60.3%, 증권회사는 56.4%이다.

금융기관의 자본비율 하락 요인을 경기부진과 금융불균형 조정으로 구분할 경우, 경기부진보다는 금융불균형 조정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 이는 성장률 하락의 경우 차주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높여 신용손실을 증가시키는 반면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 금융불균형 조정은 신용손실과 시장손실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분석된다.

표 Ⅲ-4. 자본비율 변동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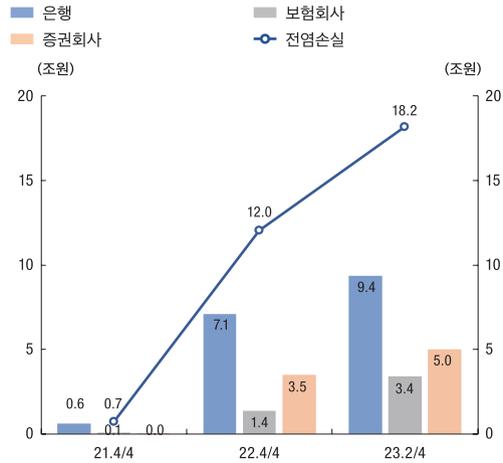
업권	경기부진	금융불균형 조정	신용스프레드 ¹⁾ 확대
은행	-0.2	-1.6	-0.3
저축은행	-1.2	-1.0	-0.4
상호금융	-0.5	-0.5	-0.1
신용카드	-0.6	-2.7	-0.2
보험	-2.9	-100.8	-40.5
증권	-3.2	-316.7	-124.4

주: 1) 회사채(AA-, 3년) 금리-국고채(3년) 금리 기준

한편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시장 및 신용 손실 확대로 자본비율이 상당폭 낮아지면서 규제비용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자본비율이 규제수준을 하회할 경우 금융기관 간 자산·부채 상호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전염손실 규모는 18.2조원으로 추정되었다(그림 Ⅲ-19). 전염손실²¹⁾ 증가는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을 약화시켜 신용공급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규제비용에 근접한 금융기관은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신규대출을 축소하고 위험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리스크에 대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용경색은 성장률을 추가적으로 하락시켜 가계·기업 대출의 부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Ⅲ-19. 전염손실 규모¹⁾



주: 1) 기준시점 대비 누적 기준

5. 종합 평가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금융불균형이 조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신용손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험자산의 가격 하락 및 금융시장의 신용경계감 확대로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시장손실이 크게 증가하며 동 기관들의 복원력이 크게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금융업권별 평균 자본비율

21) 전염손실은 금융기관의 부도 처리 또는 규제비용 준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자구 노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최종 부도 처리될 경우 금융기관 간 대출채권의 일부가 회수되지 못하여 채권자의 손실로 처리되며, 부실 금융기관 수가 늘어날수록 금융기관 간 신뢰도 약화되게 된다. 이 경우 기존 대출금 회수, 신규 대출 중단 등으로 금융기관 간 신용경색이 발생하며 이는 추가적인 자금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규제비용을 하회하거나 이에 근접한 금융기관은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위험자산 매각, 신규대출 축소 등으로 위험자산 규모를 줄이려 노력하게 된다. 이때, 위험자산 투매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은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평가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은 모든 업권에서 규제수준을 상회하며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자본비율이 규제수준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업권간 상호연계성이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들 금융기관의 부실이 타 업권에 전이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기관의 경우 향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충격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부 록

1. 그림 및 통계표	139
2. 용어 해설	145
3.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150

1. 그림 및 통계표

그림 차례

그림 I -1.	신용시장 상황 변화 지도	15
그림 I -2.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15
그림 I -3.	부문별 신용 증가율 및 명목GDP 대비 비율	16
그림 I -4.	민간신용/명목GDP 수준 및 변동폭 국제비교	16
그림 I -5.	가계신용	17
그림 I -6.	항목별 가계신용	17
그림 I -7.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18
그림 I -8.	대출유형별 가계대출	18
그림 I -9.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9
그림 I -10.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19
그림 I -11.	신용등급 및 소득수준별 가계대출 구성비	20
그림 I -12.	취약차주 비중	20
그림 I -13.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	20
그림 I -14.	금융기관 기업대출	33
그림 I -15.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34
그림 I -16.	주요 업종별 금융기관 기업대출 증가율	34
그림 I -17.	기업의 직접 금융시장 조달 동향	35
그림 I -18.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35
그림 I -19.	기업규모별 매출액 증가율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36
그림 I -20.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	36
<hr/>		
그림 II -1.	자산시장 상황 변화 지도	38
그림 II -2.	국고채 및 미국 국채 금리	38
그림 II -3.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39
그림 II -4.	회사채 및 국고채 금리	39
그림 II -5.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및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	39
그림 II -6.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40
그림 II -7.	회사채 순발행	40
그림 II -8.	코스피 및 글로벌 주가	41
그림 II -9.	주가 변동성 지수	41
그림 II -10.	PER 및 PBR	42
그림 II -11.	주요국의 PER 및 PBR	42

그림 II-12.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43
그림 II-13. 주택매매거래량	43
그림 II-14. 주택전월세가격 상승률	44
그림 II-15. 주택전월세거래량	44
그림 II-16. 아파트 입주 및 분양 물량	45
그림 II-17.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 및 공실률	45
그림 II-18. 상업용부동산 거래량	46
그림 II-19.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규모 및 증가율	46

그림 III-1.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상황 변화 지도	47
그림 III-2. 일반은행 총자산 규모	47
그림 III-3. 일반은행 대출 증감 규모 및 대출 증가율	48
그림 III-4. 부실채권 발생·정리 실적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48
그림 III-5. 일반은행 차주별 고정이하여신비율	49
그림 III-6. 일반은행 주요 업종 고정이하여신비율	49
그림 III-7. 일반은행 수익성	50
그림 III-8. 일반은행 당기순이익 증감요인	50
그림 III-9. 대외 외화차입 장·단기 가산금리	51
그림 III-10. 일반은행 CDS 프리미엄	51
그림 III-11.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 규모	57
그림 III-12.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 증가율	57
그림 III-13. 비은행금융기관 연체율	58
그림 III-14. 상호금융 대출 연체율	58
그림 III-15. 비은행금융기관 고정이하여신비율	59
그림 III-16.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순이익률(ROA)	59
그림 III-17. 비은행금융기관 당기순이익	59
그림 III-18. 금융기관·업권 간 상호거래 현황	69
그림 III-19. 금융업권 간 상호연계 구조	70
그림 III-20. 국내은행 간 상호연계 구조	70
그림 III-21. 부실전염 리스크	71
그림 III-22. 집중도 리스크	72

그림 IV-1.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증감	73
그림 IV-2.	투자주체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증감	74
그림 IV-3.	투자주체별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증감	74
그림 IV-4.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감	74
그림 IV-5.	거주자 해외 주식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75
그림 IV-6.	거주자 해외 채권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75

[복원력]

그림 I-1.	금융기관 복원력 지표 변화 지도	79
그림 I-2.	일반은행 바젤Ⅲ 기준 자본비율 및 대손충당금적립비율	80
그림 I-3.	자기자본비율 변동요인	80
그림 I-4.	일반은행 레버리지비율	81
그림 I-5.	일반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81
그림 I-6.	일반은행 외화 LCR	82
그림 I-7.	생명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	88
그림 I-8.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복원력 지표	88
그림 I-9.	여신전문금융회사 복원력 지표	89
그림 I-10.	증권회사 복원력 지표	89
그림 II-1.	대외지급능력 지표 변화 지도	90
그림 II-2.	순대외채권	90
그림 II-3.	부문별 대외채권 증감	91
그림 II-4.	부문별 대외채무 증감	91
그림 II-5.	단기 대외 채무·채권 비중	91
그림 II-6.	외환보유액 규모 및 증감액	92
그림 II-7.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92
그림 II-8.	외환보유액 구성	92

그림 III-1.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지표	93
그림 III-2.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현황	93
그림 III-3. 순이체한도 소진율	94
그림 III-4. 분리결제 비중	95
그림 III-5. CLS시스템 이용 금액 및 비중	95

[금융안정 현안 분석]

그림 I -1. 가계의 소득여건 및 부채 증가율	103
그림 I -2. 소득수준별 부채	104
그림 I -3. 연령대별 부채	104
그림 I -4. 신용등급별 부채	105
그림 I -5. 신규차주 비중	106
그림 I -6. 신규 차주 연령대별 비중	106
그림 I -7. 취약차주 비중	106
그림 I -8. 취약차주의 연령대별 비중	107
그림 I -9. 전체 차주 LTI	107
그림 I -10. 차주 특성별 평균 LTI	108
그림 I -11. 취약차주 LTI	108
그림 I -12. DSR 추이	109
그림 I -13. DSR 수준별 분포	110
그림 I -14. 차주 특성별 평균 DSR	110
그림 I -15. 취약차주 평균 DSR	111
그림 I -16. 고 DSR 차주의 부채 비중	111
그림 I -17. 차주의 연령대별 연체율	112
그림 I -18. 취약차주의 연체율	112
그림 II-1. 코로나19 충격 및 잠재리스크	114
그림 II-2. 매출액 및 GDP 증가율	115
그림 II-3.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 및 영업이익률	115
그림 II-4. 과거 위기사례와의 비교	116

그림 II-5. 주요국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116
그림 II-6. 주요국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117
그림 II-7. 유동성 부족규모 및 부족기업 수 비중	117
그림 II-8.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 전망	118
그림 II-9. 시나리오별 기업 재무건전성 지표 변화	119
그림 II-10.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변화	119
그림 II-11. 업종별 부채비율 변화	119
그림 II-12. 재무건전성 취약기업 비중 변화	120
그림 II-13. 시나리오별 유동성 부족규모	121
그림 II-14. 시나리오별 자본잠식 기업 수 비중 변화	121
그림 II-15. 시나리오별 부도확률 추이 및 전망	122
그림 II-16. 부도확률 및 기업대출 연체율	122
<hr/>	
그림 III-1. 급격한 금융불균형 조정의 파급경로	124
그림 III-2. 대출 가산금리 변동	125
그림 III-3. CP·회사채 신용스프레드	125
그림 III-4. 대출 가산금리, 회사채·CP 신용스프레드	126
그림 III-5. 실질GDP 성장률과 예상부도확률	126
그림 III-6. 국내은행 대출잔액 및 증가율	127
그림 III-7. 업종별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화	127
그림 III-8. 금융시스템 리스크 파급경로	128
그림 III-9. 국내 GDP 성장률 시나리오	129
그림 III-10. 가계대출 부도율 변동요인 분해	130
그림 III-11. 가계부문 신용손실 증가	131
그림 III-12. 가계대출 부도율 변동요인 분해(카드사)	131
그림 III-13. 가계대출 부도율 변동요인 분해(저축은행)	131
그림 III-14. 기업대출 부도율 변동요인 분해	132
그림 III-15. 기업부문 신용손실 증가	132
그림 III-16. 대출채권 부도율 변동	133
그림 III-17. 신용 및 시장 손실의 자본비율 변동 기여도	133
그림 III-18.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133
그림 III-19. 전염손실 규모	134

통계표 차례

[금융안정 상황]

표 III-1. 금융업권 간 상품별 상호거래 규모	70
표 III-2. 국내은행 간 상품별 상호거래 규모	71

[복원력]

표 I-1. 일반은행 NSFR	82
표 III-1.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비중	94

[금융안정 현안 분석]

표 I-1. 차주 소득수준별 평균 부채보유액	104
표 I-2. 차주 연령대별 평균 부채보유액	104
표 I-3. 차주 신용등급별 평균 부채보유액	105
표 I-4. 신규차주 연령대별 평균 부채보유액	106
표 I-5. DSR 변동요인 분해	109
표 II-1. 시나리오 설정	118
표 III-1. 주요 금융 변수 시나리오	129
표 III-2. 업권별 가계대출 신용손실 예상 규모	131
표 III-3. 업권별 시장손익 예상 규모	133
표 III-4. 자본비율 변동 기여도	134

2. 용어 해설

[요약]

금융안정지수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및 실물 6개 부문(은행, 금융시장, 대외, 실물경제, 가계, 기업)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지수. 동 지수는 0(안정)에서 100(불안정) 사이의 값을 가지며 금융안정 상황을 정상, 주의, 위기 단계로 구분하며 주의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를, 위기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나타냄

[금융안정 상황]

1. 신용시장

1. 신용레버리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의 위원회. 은행의 건전성 규제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EU를 포함한 28개 국가의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참여하고 있음

2. 가계신용

처분가능소득

개인의 연간소득 중 제세공과금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여기에 이전소득(사회보장금, 연금)을 보탠 것으로 개인이 소비 및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3. 기업신용

기업신용

기업이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의미하며 자금순환표 기준 비금융법인(공기업 포함)의 대출금, 정부용자 및 채권(회사채 등)의 합으로 정의

부채비율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II. 자산시장

1. 채권시장

신용스프레드	국고채와 회사채의 수익률 차이를 0.01%(bp)로 나타내어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산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신용스프레드가 높을 수록 위험회피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
우량물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평가된 신용등급이 AA-이상인 회사채

2. 주식시장

주가수익비율(PER)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주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순자산 측면에서 주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3. 부동산시장

공실률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분양 등의 방법으로도 이용되지 않는 오피스 및 매장용 빌딩의 빈 공간을 의미하며 공실면적의 합을 총 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
-----	--

III. 금융기관

1. 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회수의 문 및 추정손실 여신의 합계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부실여신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자산건전성 지표
구조적 이익률	이자이익, 수수료이익, 신탁이익 합계에서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실질총자산(평잔기준)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지속가능한 이익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순이자마진(NIM)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 - 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 자산의 평잔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핵심 수익성 지표

2. 비은행금융기관

저축성보험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으로,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높으나 만기에 이자수익이 발생
-------	--

3. 상호연계성

상호연계규모	자금순환통계의 금융 자산 및 부채 잔액표와 은행별 현금 및 예금 명세서, 차입금 명세서, 유가증권 보유명세서 등의 주요 조사표를 바탕으로 19개 개별은행, 34개 금융업권 및 9개 기타부문과 48개 금융상품별로 세분화하여 추정된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 규모
--------	--

N-B SRS (Network-Based Systemic Risk Scoring)	특정 은행의 도산 확률이 여타 은행과의 상호거래 익스포저를 통해 확대되어 나타나는 리스크 총량으로서 거래관계에 있는 두 은행의 부도확률과 상호거래 규모를 곱한 값을 모든 거래조합에 대해 산출 후 합산한 값의 제곱근으로 정의 (Das, 2015)
DebtRank	특정 업권(은행)의 도산에 따른 충격이 거래상대방에게 상호거래 익스포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손실 합계가 전체 금융(은행)권 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업권(은행)별로 계산하고 이를 단순평균한 값(Battiston et al., 2012)
허핀달-허쉬만 지수 (HHI, Herfindahl-Hirschman Index)	각 업권(은행) 단위로 여타 업권(은행)과의 거래비중 제곱 합을 산출한 후 가중 평균한 값으로,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
단일 거래상대방 의존율(Dependency Ratio)	각 업권(은행) 단위로 거래규모가 가장 큰 업권(은행)과의 거래비중을 산출한 후 가중평균한 값으로,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

[복원력]

I. 금융기관

1.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 비율로 은행들이 30일 동안의 급격한 유동성 유출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냄
영업적 예금	청산, 보호예수, 현금관리 등 특정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도매 고객이 은행에 예치한 예금
외화 LCR	외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로 은행들이 30일 동안의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냄
보통주자본	은행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
기본자본	보통주자본에 영구적 성격의 자본증권 발행 관련 자본금 등을 포함
총자본	기본자본에 청산 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 등을 포함
BIS기준 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BIS기준 총자본금액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리스크를 자기자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본적정성 지표

레버리지비율	총익스포저(명목가액) 대비 기본자본 비율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고 리스크에 기반한 자본규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자산항목 중 향후 1년 이내 현금화가 어려워 안정적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대비 부채 및 자산항목 중 향후 1년 이내 이탈 가능성이 낮은 안정적 자금조달금액(안정자금가용금액)의 비율로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2. 비은행금융기관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비율)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잉여금 등 가용자본)을 지급여력기준금액(보험회사에 내재된 위험액의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로서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순자본비율(NCR)	순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서 증권회사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및 채권평가충당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을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로 예상손실에 대한 흡수력을 나타내는 지표

II. 대외지급능력

대외지급능력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무 상환능력
---------------	--------------------

III. 금융시장인프라

금융시장인프라	금융시장에서 청산, 결제, 정보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프라를 통칭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 중앙예탁기관, 중앙청산소, 증권결제시스템, 거래정보저장소 등을 포함함
결제리스크	자금 또는 증권 결제시스템에서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리스크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를 포함함
소액결제시스템	수표, 입금 및 출금이체, 지급카드 거래 등 상대적으로 소액 지급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사전에 정해진 일련의 다자간 규정에 따라 장부상 기재방식에 의해 증권의 이체 및 결제를 처리하는 시스템
외환동시결제	한 통화의 최종이체와 다른 통화 또는 복수 통화의 최종이체가 함께 보장되는 결제 메커니즘

[금융안정 현안 분석]

I. 최근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

소득 대비 부채 비율 (LTI)	가계대출 보유자의 금융부채를 이들 차주의 소득으로 나눈 값(Loan to Income)을 의미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DSR)	가계대출 보유자의 원리금상환액을 이들 차주의 소득으로 나눈 값(Debt Service Ratio)으로 DSR 규제가 2018년 10월말 은행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되었으며, 비은행권에서도 2019년 6월말부터 관리지표로 시행
취약차주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수준 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인 차주를 지칭

II. 코로나19 장기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신용위험	금융거래의 상대방(기업)이 부도 등으로 계약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금융기관 등 금융제공자에게 초래할 수 있는 손실의 가능성
유동성위험	자금의 운용과 조달 기간의 불일치,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자본잠식	기업의 영업적자 누적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상태인 상황. 자본잠식 상황이 될 경우 총자산이 총부채 수준을 하회하여 실질적 지급불능 상태가 됨

III. 경기회복 지연과 금융불균형 조정의 부문별 영향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stress test)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개별 금융기관 또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복원력을 평가하는 기법
예상부도확률	기업의 시장자산가치가 1년 이내에 상환도래 부채규모 이하로 하락할 확률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부문	집필자
작성총괄	금융안정국 이민규(안정분석팀장)
[요약]	금융안정국 안상기·이정인(안정분석팀)
[금융안정 상황]	
I. 신용시장	
1. 신용레버리지	금융안정국 김현만·문수성(안정총괄팀)
2. 가계신용	조항서·박다희(안정총괄팀)
참고1. 최근 청년층의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	박다희(안정총괄팀)
참고2. 향후 자영업자 재무건전성 전망	박정민·김재현·조민경(안정분석팀)
3. 기업신용	문용필·김경호·이신영·김재현(안정분석팀)
II. 자산시장	
1. 채권시장	금융시장국 김은우·이재은(채권시장팀)
2. 주식시장	강석창·안희훈(주식시장팀)
3. 부동산시장	금융안정국 안상기·김상우·이정인·조민경(안정분석팀)
III. 금융기관	
1. 은행	금융안정국 정서림·민동길(은행분석팀)
참고3. 비대면 금융거래 현황 및 영향	국제국 류창훈·박복연(자본이동분석팀)
2. 비은행금융기관	금융안정국 박지수·조은아·서연아(금융안정연구팀)
참고4.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현황 및 시사점	조재현·윤여진·최은지(비은행분석팀)
참고5. 코로나19 이후 증권회사·여전사 자금조달운용 현황 및 시사점	조재현·우민지(비은행분석팀)
3. 상호연계성	윤여진·최은지·오은영(비은행분석팀)
IV. 자본유출입	국제국 나영인·강영대·김홍렬(시스템리스크팀)
	최병재·강재훈(자본이동분석팀)
[복원력]	
I. 금융기관	
1. 은행	금융안정국 김현수·김규식(은행분석팀)
참고6. 코로나19 이후 국내은행의 신용리스크 변동 및 시사점	이상호·김현수·김규식(은행분석팀)
2. 비은행금융기관	조재현·윤여진·최은지·오은영(비은행분석팀)
II. 대외지급능력	국제국 류창훈·박복연(자본이동분석팀)
	강신영·이하림(외환회계팀)
III. 금융시장인프라	금융결제국 최병현·박수연(결제안정팀)
참고7.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사이버리스크 대응 현황 및 시사점	금융안정국 이지영·이승현(금융규제팀)
[금융안정 현안 분석]	
I. 최근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	금융안정국 엄태균·배지현·남명훈·문수성(안정총괄팀)
II. 코로나19 장기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문용필·김경호·이신영·김재현(안정분석팀)
III. 경기회복 지연과 금융불균형 조정의 부문별 영향 분석	나영인·양준구·김홍렬·이은경·이현아(시스템리스크팀)

금융안정보고서

발행인 이주열
편집인 민좌홍
발행처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태평로 2가)
www.bok.or.kr
발행일 2020년 12월 24일
제작 (주)제일프린테크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조사·연구자료 > 주요 보고서 >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전화 02-750-6853, 이메일 finstabl@bok.or.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ISSN 1975-6607

